

# 2010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2011. 2. 10

문화체육관광부

## 1. 평가개요

### (1) 중점 평가방향

#### 자율성, 적극성 및 책임성 제고

- '1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의거, 주요정책과제의 평가 지표 및 배점을 우리 부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
- 주요현안의 수시 점검 및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유용한 정책 대안 제시
- 평가결과의 대국민 공개 및 국회 보고로 자체평가의 책임성 제고

#### 자체평가 역량 강화

- 업무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 상시 정책정보 제공, 평가관련 교육 수시 개최 등을 통해 자체평가위원 및 업무담당자의 역량 강화 지속 추진

#### 종합적·객관적 평가를 통한 정책 추진 효율성 제고

- 평가결과를 체계적으로 환류함으로써 정책개선 및 인사·예산·성과급 등에 적극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
-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 도모

### (2) 평가추진 개요

#### 평가추진 체계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자체평가 부문별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전체 평가위원 30명중 29명이 외부 전문가)하여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등 확보

- '10년 총 7회에 걸쳐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성과관리계획 및 자체평가계획 심의, 성과관리시행계획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및 수정, 최종 평가 수행 등)
-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전체 평가위원 30명 중 민간전문가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 부문의 경우, 문화콘텐츠산업·문화예술·관광산업·체육·홍보·행정관리역량 등 6개 분과로 구성(분과위원 23명)하여, 1차 평가를 담당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 제고
- 분과위원회별 평가지원팀 구성·운영
  - 각 분과위원회별로 평가 지원을 위해 평가지원팀을 구성하여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자료 작성·검토, 최종 평가자료 작성·검토 및 평가를 위한 각종 자료의 지원, 분과위원회 운영 등 역할 부여
  - ※ 분과위원회별로 과장급 팀장 및 주요정책 관리과제 담당 서기관/사무관급으로 구성(6개 분과 45명)
  - 정부업무평가 총괄담당관을 중심으로 평가지원총괄팀(3명)을 구성하여 평가자료 검토 및 보완 추진 등 평가 지원 총괄

- 평가 자료 작성 및 1차 검토
  - 각 정책담당부서에서 분·반기 추진실적 점검보고서 및 최종 평가보고서 등 평가 기본 자료 작성 및 평가지원팀의 1차 자료 검토
  - 과제별 추진실적 및 근거자료 등 제시(전자통합평가시스템 e-IPSES 입력)
- 분과위원회별 1차 평가 : 평가 자료의 검토 및 1차 평가
  - 분과위원회와 평가지원팀 합동 워크숍을 통해 분과위원의 평가자료 검토 및 평가지원팀의 자료 수정·보완
  - 필요시 현장 점검 등 병행 실시, 분과위원의 과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수시로 정책자료 등 제공
-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 분과위원회별 평가자료에 대해 평가지원총괄팀의 2차 검토 및 자료 수정·보완
-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협의회'의 2차 평가 : 분과위원회별 평가 결과 검토 및 사전 조정
- 전체위원회 최종 평가
  - 분과위원회의 1차 평가 및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협의회'의 2차 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점수 확정(분과별 형평성 고려)
  - 관대화 여부 검토 및 과제별 중요도·난이도 등을 반영
  - 평가과제별 총평 및 정성평가를 통해 정량평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 파급효과, 문제점 및 원인 분석, 대안 제시 등 질적 측면에 대한 평가 강화
  - 평가결과는 상대등급화 추진으로 평가의 관대화 경향을 최소화 하고 결과 공개시 등급기준으로 활용
-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전체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채택
  - 평가 개요, 평가결과 총평, 과제별 평가 결과 등

□ 평가방법

<자체평가 절차>



##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1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정책부문의 관리과제 71개
- 평가지표
  - 2009년도 자체평가 운용실태 점검 결과 및 2010년도 정부업무평가 세부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표(안)을 마련하고('10.5월),
  - 과제담당부서의 공감대 확보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부내 의견조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함('10.6월)
  - 평가지표별로 세부 설명자료를 포함한 평가매뉴얼을 마련하여 평가위원 및 직원 대상 교육 실시

### < '10년 주요정책부문 평가지표 구성 >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계획 (30)	1. 계획 수립의 적절성(30)	1-1.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1-2. 성과지표의 적절성
집행 (30)	2. 시행 과정의 적절성(30)	2-1. 추진일정의 충실성
		2-2.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성
산출/결과 (40)	3. 목표의 달성도(40)	3-1.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 2. 평가결과

### (1) 총 평

- '10년도 총 59과(팀)의 71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우수 11개(16%), 다소 우수 18개(25%), 보통 29개(41%), 다소 미흡 10개(14%), 미흡과제 3개(4%)로 나타남
  - 우수한 과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11개(16%)이며, 미흡한 과제는 「재외문화원 확충 및 특화사업의 강화」 등 3개(4%)인 것으로 평가됨
- 총 71개 관리과제의 129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84.5%로
  - 109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20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관광객 수동 집계로 인한 누락(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목표치의 과도한 설정(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간 만들기, 국산게임 해외진출 지원, 정부발표지원의 내실화), '11년 상반기 실적 산출(공연예술인프라 활용,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행사 운영의 미흡(전통예술진흥기반 조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당초 계획 변경(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공사 원활한 추진), 중국·일본 시장의 정세 및 게임법 개정 지연(국산게임 해외진출 지원), 성과지표 대체 측정(관광레저도시 개발 활성화), 감사업무 특성상 외부 요구에 의해 기 수립된 계획의 빈번한 순연 또는 대체(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행정감사 추진), 실적치 집계 시점 차이(문화인재 전문역량 강화), 법령 개정 지연(문화체육관광부 법제 선진화)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됨

<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목표달성도 >

성과목표명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단위)	실적치 (단위)	목표 달성도(%)
1-1 국민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한다	문화시설 서비스 및 여가문화 활성화	공공도서관 야간서비스 실시 개소 수(개소)	253개소	257개소	102%
		국립문화시설 이용자 수(천명)	10,975천명	11,302천명	103%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	공공도서관이용자 만족도	67%	77.3%	115%
1-2 국민 문화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예술강사 수혜자 교육 만족도(점)	77.5점 (4.1점)	81.7점 (4.2점)	105%
		명예교사 체험교육 프로그램 수혜자 수(천명)	22천명	22천명	100%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나눔사업 이용자 수	2,000 (천명)	2,126 (천명)	106%
		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23(천명)	30(천명)	130%
	다문화사회 문화권 신장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참여자 수(명)	50	53	106%
		다문화 이해교육 참여자 수(명)	870	8,400	965%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지원 실적(종)	2,000종	2,100종	105%
		장애인정보누리터 연간 등록자수(명)	330명	514명	155%
1-3 지역문화 발전기반을 마련한다.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대통령, 안압지, 침성대 관광객 증가율	7%	△9.8%	84.2%
		전주한옥마을 관광객 증가율(%)	12%	46.7%	131.0%
	지역문화자원의 역량 강화	지방대 활용지역 문화 컨설팅 결과 활용도	78점	78점 (추정)	100% (추정)
		문전성시프로젝트 시범시장 상인 및 주민 만족도	78(점)	78점 (추정)	100% (추정)
1-4 창의적인	아름답고 쾌적한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여 관람객수(명)	33,870	34,953	103%

성과목표명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단위)	실적치 (단위)	목표 달성도(%)
문화공간을 확대한다.	생활공간 만들기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학생 만족도(점)	84	80	95.2%
1-5 아시아문화 중심도시를 조성한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콘텐츠 발굴 지원	전당운영 콘텐츠 시범제작 실적(건)	5건	5건	100%
		지원 문화콘텐츠 완성화 비율(%)	85%	100(%)	100(%)
	문화도시 조성관련 지원사업 추진	정례협의 개최실적	6회	7회	100%
		조성위원회 운영활성화	10회	10회	1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추진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공정율	20%	20.6%	100%
	문화전당 아시아 예술커뮤니티 운영	아시아 권역별 커뮤니티 구축 실적(건)	3건	3건	100%
		예술커뮤니티 행사 국외인사 참석자수	150명	174명	100%
2-1 예술의 창작여건을 개선한다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	예술기획경영실무 교육 수강자수(명)	1,500명	1,511명	100.7%
		예술단체 컨설팅 건수(건)	360건	611건	170%
		기업의 예술단체 지원규모(억원)	33억원	38억원	115%
	문화예술전문 인력 양성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인원(명)	1,700명	1,735명	102%
2-2 문화예술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	시각예술 경쟁력 제고	한국국제아트페어 참가화랑수(개)	200개	193개	96.5%
		공공미술프로젝트 주민만족도(%)	70%	91%	130%
	공연예술인프라 운영 활성화	지방문예회관 이용자증가율(%)	5%	'11상반기 통계집산	-
		문예회관 우수프로그램 지원건수(건)	250건	242건	97%
	전략적 예술교류 강화	비엔날레 유료입장객수(명)	500,000명	490,328명	98%
		민족문화의 보존 및 활용	한국스타일박람회 참가자(명)	16,645명	34,953명

성과목표명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단위)	실적치 (단위)	목표 달성도(%)
예술을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전통 종교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종교시설문화행사 참여인원(천명)	204천명	243천명	119.1%
	전통예술 진흥기반 조성	전통예술행사 외부평가 점수	88점	85.3점	97%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전문용어 표준화수(점)	500점	550점	110%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건립 사업의 효율적 대국민 홍보	건립취지 국민호응도(%)	70%	72.8%	104%
		홍보물 제작건수(회)	5회	8회	160%
		언론, 방송 보도건수(회)	7회 (특집기사2 회 포함)	12회	157.1%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공사 원활한 추진	건축분야 공정율 (설계, 시공 일괄입찰 공정율 %)	15%	18.6%	124%
전시분야 공정율(%)		20%	16.7%	83.5%	
2-4 문화예술의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재외문화원 확충 및 특화사업의 강화	재외문화원(코리아센터) 특화사업 실적 건수(건)	65건	70건	113%
	해외문화교류 활성화	문화교류 비활성화 지역과의 문화교류 사업실적 건수(건)	12건	13건	108%
3-1 콘텐츠 창작 역량을 강화한다.	문화콘텐츠 핵심 전문인력 양성	교육만족도	90.6(%)	91.31(%)	100
		기획창작아카데미 실무자과정 취업률	42.5(%)	75(%)	176
	녹색문화기술의 전략적 육성	수요자 만족도	70(%)	73.1(%)	104
3-2 기업하기 좋은 콘텐츠 환경을 조성한다.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	자펀드 결성액	1,270(억원)	1,220(억원)	96
		모태펀드 투자율	92(%)	122%	132
		완성보증액수	150(억원)	176.63(억원)	118
	한국영화의 다양성 제고	예술독립영화 제작 증가율	5(%)	5.6	100
		국내예술,독립영화전 용관 운영수	40(개소)	53	132
게임콘텐츠산업 의 경쟁력 제고	게임시장규모	7.7(조원)	7.8(조원)	101	

성과목표명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단위)	실적치 (단위)	목표 달성도(%)
	디지털콘텐츠산 업 생태계 강화	모바일OK 표준인증횟수	14,400(건)	26,992	187
		주요30대 DC사업자의 거래인증 채택비율	50(%)	50(%)	100
3-3 저작권 보 호관리를 강화한다.	불법 저작물 단속 및 유통활성화	불법저작물 단속건수	222,000(건/년)	366,107(건/년)	155
		저작권 등록건수	25,400(건/년)	26,838(건/년)	105
	저작권 인식 제고 및 해외저작권 보호	저작권 교육 참가자 수	1,484(백명/년)	2,909(백명/년)	196
		해외권설정, 법률지원건수	332(건/년)	368(건/년)	110
3-4 미디어산업 의 선진화 를 실현한 다.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NIE 교육 참여자만족도	70(점)	90.5(점)	129
		지역공배율	43(%)	46(%)	107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제작지원 작품 방영화율	57(%)	60(%)	105
		재심청구율	0.18(%)	0.02(%)	900
	출판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국제도서전 참가출판사수	455(사)	480(사)	105
		우수도서지원사업의 고객만족도	80(%)	83(%)	103
3-5 콘텐츠의 해외진출을 강화한다.	문화콘텐츠 해외진출지원 인프라 구축	글로벌콘텐츠지원센 터 수혜업체 만족도	80(점)	80(점)	100
	한국영화 해외 진출 확대	한국영화 해외수출 규모	19(백만불)	28.5(백만불)	150
		한국영화 해외상영편수	315(편)	344(편)	147
	국산게임 해외 진출 지원	국산게임수출액	1,994(백만불)	1,551(백만불)	78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수출액	188(백만불)	미정	미정
4-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관광객 수용태세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관광숙박시설 확충 객실 수(실)	5,470	6,031	110.3
		관광안내정보 및 안내시설 만족도(%)	3.41	3.43 (잠정치)	100.6 (2월말 확정)

성과목표명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단위)	실적치 (단위)	목표 달성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세제 등 제도개선 건수(건)	33	37	112.1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민 인식 개선 및 국민관광 향유권 증진	광고 접촉 후 국내여행에 대한 태도변화(%)	77.8	82.3	105.8		
		국내여행에 대한 일반국민의 만족도(%)	79.8	86.3 (잠정치)	108.1 (1월말 확정)		
<b>4-2 고품질 관광자원을 확충한다.</b>	특색있는 관광 자원의 체계적, 지속적 개발	관광자원개발 지역 관광객수(백만명)	461	487	105.6		
		남해안관광권 지역관광객수(백만명)	123	129	104.9		
		유교문화권 지역관광객수(백만명)	37	39	105.4		
		서해안권 지역관광객수(백만명)	98	105	107.1		
		지리산권 지역관광객수(백만명)	24	24	100.0		
		동해안권 지역관광객수(백만명)	90	113	125.6		
	관광자원의 창의적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점)	4.70	4.70 (잠정치)	100.0 (2월말 확정)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 프로그램 이용객 만족도(%)	80	80.6	100.8		
		문화생태탐방로 방문객수(천명)	100	101.5	101.5		
		슬로시티 방문객수(백만명)	28	29.9	106.8		
		<b>4-3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b>	전략적인 해외홍보 관광 마케팅 실현	방한 아시아 주요국 외래관광객수(천명)	5,897	6,320	107.1
				한국관광이미지광고 효과조사(%)	57.5	57.7 (잠정치)	100.3 (1월말 확정)
국제관광교류 횟수(회)	15			16	106.7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국제회의, 의료관광 외국인 방문객수(만명)	22	26.2	119.1		
		외국인 500명 이상	36	33	91.7		

성과목표명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단위)	실적치 (단위)	목표 달성도(%)
		참가 국제회의 및 컨벤션 유치 성공건수(건)			
		공연관람 외래관광객 수(만명, 신규)	100	103.5 (잠정치)	103.5 (1월말 확정)
<b>4-4 미래형 녹색관광 레저기반을 조성한다.</b>	관광레저도시 개발 활성화	(태안)콘텐츠 개발 지원 만족도(%)	70	-	(방문객 만족도 대신 전문가 설문으로 대체)
		(영암·해남) 실시계획 진척률(%)	100	98	98
	녹색관광자원 개발	생태녹색관광 기본계획 수립건수(건)	5	4	80
		홍보자료제작수(건)	3	8	266.7
녹색성장형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새만금 관광단지 기본계획 수립 진척율(%)	60	60	100	
<b>5-1 스포츠의 생활화, 산업화를 실현한다</b>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활성화	1인당 체육시설면적(m <sup>2</sup> )	2.9m <sup>2</sup>	3.2m <sup>2</sup> (추정치)	111% (추정치)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구축	스포츠전문인력 교육과정 만족도(점)	4.35점	4.40점	101.1%
		스포츠용품 인증 및 시험 건수(건)	410건	624건	152%
		체육시설업 제도개선	규제개선 3건	규제개선 3건	100%
	국제 스포츠 교류 증대	국제교류사업수(건)	70건	83건	118.6%
<b>5-2 세계속의 스포츠 한국을 실현한다</b>	태권도 세계화	태권도브랜드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통합브랜드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통합브랜드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완료	100%
		태권도사업 추진 해외 문화원, 재외공관 수(개소)	21개소	26개소	130%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 강화	반도핑 인식 제고율(%)	66.9%	68.5%	101.7%
	학교스포츠	학교체육 리그제	3.3점	3.38점	102.4%

성과목표명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단위)	실적치 (단위)	목표 달성도(%)
	리그제 지원	학부모 만족도(점)		(추정치)	(추정치)
5-3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한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수(천명)	230천명	499천명	216%
	장애인 스포츠 외교력 강화	국제장애인스포츠기구 임원진출(명)	11명	12명	109%
		광저우장애인아시아 경기대회 순위	3위	3위	100%
6-1 정책홍보의 효율성을 높인다.	정책홍보 품질제고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만족도	92.0(%)	95.0(%)	103.3
		공무원 홍보교육 만족도	82(점)	87.9(점)	107.2
		정책보도 분석자료 만족도	80.0(%)	83.8(%)	104.8
	정부발표지원의 내실화	정부발표지원 기자만족도	84.5(%)	79.3(%)	93.8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블로그 활성화	방문자수	53(만명)	107(만명)	201.9
		콘텐츠 게재 건수	600(건)	925(건)	154.2
6-2 정책소통 채널을 내실화한다	미디어 활용 홍보강화	정책블로그 이용 만족도	65(점)	71.6(점)	110.2
		정책광고 캠페인 효과	58(점)	61.9(점)	106.7
	알찬 정책정보 제공	정기간행물 독자 만족도	80.0(%)	83.0(%)	103.7
	정책포털 콘텐츠 충실화	정책포털 콘텐츠 만족도	67(점)	67.3(점)	100.4
6-3 문화정보서 비스를 강화한다.	문화정보화 정책연구	문화정보화 정책연구 실적 건수	3(건)	4(건)	133.3
		문화정보화 정책연구보고서 활용률	80.0(%)	100.0(%)	125.0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한 행정감사 추진	종합감사	6	5	83
		특별감사	6	8	133.3
		전략감사	4	4	100
	문화인재 전문역량 강화	고공단 개방형 직위의 외부인사 충원비율	기존 100(%) 신규 50(%)	기존 100(%) 신규 50(%)	100

성과목표명	관리과제명	성과지표	목표치 (단위)	실적치 (단위)	목표 달성도(%)
		전직원 목표 교육시간 이수율 평균	96(%)	89.3(%)	93.2
	성공적 청사 이전추진	청사 이전 추진	100	100	100
	재정혁신 추진	민간보조금정비결과 반영비율(%)	31(%)	31.5(%)	98.4
	문화체육관광 법제 선진화	규제개선 건수(건)	22	20	90.9
		법제정비 건수(건)	56	64	114.3

## (2) 주요성과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 11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관리과제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과제의 경우,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파견·배치를 확대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하였으며, 문화예술교육의 예술꽃 씨앗학교(10개교) 지원과 성공모델 집중 조명(국내 언론)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확산에 기여함.
  -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활동지원」 과제의 경우,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사회에 대비하여 소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 강화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양극화 해소 및 경제위기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 희망을 전달하는 성과를 거둠.
  -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 과제의 경우,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결성 추진으로 민간자본의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였으며 완성보증제도, 영화 대출지급보증제도 등 다양한 금융·투자 지원정책을 통해 콘텐츠업계에 안정적인 재원 공급 기반을 마련하였음.
  - 「관광객 수용태세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과제의 경우, 지자체, 관련업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관광안내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 관광안내 시스템 개선 등 세부 추진일정을 100%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음.
  - 「국제스포츠 교류 증대」 과제의 경우,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종합 5위),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종합 2위), U-17 여자월드컵(우승) 등에서 역대 최고성적을 달성함으로써 스포츠 강국의 입지

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고, 체육교류협정 체결 추진 및 인적교류 확대로 국제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기여함.

- 「정책홍보 품질 제고」 과제의 경우, 각 부처 홍보업무에 민간컨설팅 기법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신문·방송·인터넷의 정책관련 보도를 실시간 모니터링·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책시행 전·후 여론 피드백 자료로 활용, 정책홍보 품질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고위직 미디어 적응 훈련 및 홍보담당 공무원 대상 실무교육을 통해 공직자 홍보역량을 제고하였음.

## (3) 개선·보완 사항

- 「재외문화원 확충 및 특화사업의 강화」 등 3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의 누락, 당초 추진계획 미달성, 성과지표의 포괄성 및 연계성 부족 등이 주된 원인으로 관리과제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재외문화원 확충 및 특화사업의 강화」 과제의 경우, 문화원을 거점으로 지역별 특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인 한국 문화 소개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동 과제의 핵심인 문화원 설립 관련 성과지표가 누락되었으며, 관련 추진계획도 달성하지 못하였음. 향후 해당 과제를 대표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발굴 및 지속적인 관리가 요망됨.
  - 「관광레저도시 개발 활성화」 과제의 경우, '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사실상 중단되었던 영남 해남 기업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 태안 기업도시 진입도로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설계 및 공사 추진 등 성과를 이루었으나, 동 과제의 성과지표로 설정된 「태안 콘텐츠 개발 지원 만족도」가 방문객 만족도 대신 전문가 설문으로 대체되면서 과제와의 연계성 및 포괄성도 부족하고, 목표 달성도 불확실함.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과제의 경우, 2009년과 비교하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수 증가 대비 지도실적이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최초로 장애인 서비스 차량을 구입 활용하여 기동성 있는 장애인 생활체육관련 서비스 제공 토대를 마련하였음. 다만, 서비스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성과지표의 개발과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됨.

###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 1 문화시설 서비스 및 여가문화 활성화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국공립문화시설 야간 개장 확대 등 문화시설 서비스 강화로 국민 문화향유 여건을 개선
- 여가프로그램 공모, 사례 연구, 전문가 포럼 실시로 국민 생활 패턴 변화와 여가수요 증가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여 건전한 국민 여가환경 조성의 정책적 기반 마련

###### □ 주요 성과

-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국공립 문화시설 야간개장 확대 등 문화시설 서비스 강화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국립문화시설 관람객 전년동기 대비 5.5% 증가(11,302천명 이용)
  - 국립박물관 고객만족도 향상(1.3% 증가/'09년 78.6%→'10년 79.9%)
  - 전국 공공도서관 이용객수 36% 증가(8,114만명 → 11,067만명)
- 국립문화시설 고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문화 프로그램 운영
  - '박물관 가는 날'(매월 넷째주 토요일) 지정·운영
    - \* 국·공·사립 및 대학 박물관 총 2,536건 프로그램 운영('10.1~12월)
  - 국립박물관 야간 전시안내 프로그램('큐레이터와의 대화') 운영
    - \* 총 46회 실시, 5,740명 참여('10. 12.22 기준)
  - 야간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등
    - \* 총 29회, 868명 이용('10. 12월말 기준)
  - 국립민속박물관 절기별 세시민속행사 개최
    - \* 총 129,359명 참가: 입춘(3,344명), 설(19,858명), 대보름(24,582명), 추석(81,575명)

- 국민 여가문화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2010년 국민여가활동조사의 통계품질 개선 및 여가정책포럼 개최로 사회적 여가문화의 확산과 직장인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 등 선별된 주제별 정책 실행방안 마련
  - 네이버 해피빈 등과 문화나눔 프로모션 진행 협의(5월 ~)
  - 초등학생 방학을 활용, 여가문화시설체험 프로그램조사 및 홍보(5~8월)
  - '이야기 할머니' 등 노인 1인 1여가 플러스 제도 시범사업 운영
  - 온라인 여가공모전 및 사례집 발간으로 온·오프라인 여가정보제공

<b>2</b>	<b>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b>
----------	-----------------------

**(1) 평가결과 종합**

**총평**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 설립이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주민의 정보 접근성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에 도움
-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공공도서관에 순회사서를 배치하여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을 지원, 활성화하고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체계구축 등 이용자서비스 향상에 기여
- 문화소외지역 공공도서관 및 문학관에 문학 작가를 파견,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시낭송음악회, 문학동아리, 문학집필 강좌 등)운영 지원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
- 지역대표서관의 지정·설립을 통해 지방분권시대의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밀착형 실용적인 정보서비스 체제 정비
- 국가 도서관진흥을 위한 5개년 중장기계획인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 효율적 시행을 위한 2011년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이 적절히 이루어짐
- 「2010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및 「2010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도서관정책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도서관 운영평가 체계 및 통계 수집·관리체계 확립

**주요 성과**

- 5개 시·도 68개소 작은도서관 조성('10년도)
  - '04년부터~'10년까지 413개소 조성
-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사서 지원

- 공공도서관 77개관에 순회사서 1명씩을 배치, 관내 작은도서관 344개소 운영 지원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의 연계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및 지역별 협력체계 구축
- 지역의 역량있는 문학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작품 창작환경이 열악한 문학작가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문학 발전 지원
- 문학 동아리, 문학집필 강좌, 문학작품 낭독회 등 다양한 독서·교육·문화프로그램 지원으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 제공
- 문학작가 파견 : 공공도서관·문학관 82개관에 82명의 지역작가를 파견하여 6개월간 문학프로그램 운영('10.6월-11월)
- 시낭송음악회 개최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병영도서관 등 포함) 91개관 실시 11,300여명 참석
- 도서관 서비스 대상의 계층별·지역별 특성에 따른 문화프로그램 및 전문인력풀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간 문화의 균형발전을 도모
- 농어촌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26개관에 독서·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 실시
-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설립을 통해 지역의 공공도서관 활성화 및 추진체계 기반 마련('08년 4개관 → '10년까지 6개관 지정·설립 완료)
  - 지역대표도서관 지정(2개관)
    - \* 전북 : 전북도청도서관 '10.11.22 / 광주 : 광주광역시립도서관 '10.12.21
  -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
    - \* 경남(2.11), 울산(4.15) 조례제정 / 인천광역시 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운영(4.1)
-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설립을 위한 워크숍 개최로 지역대표도서관의 구축 필요성 인식 제고
  - \* 2010 문화나눔, 문화일꾼과의 만남 워크숍 개최('10.6.10) :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사례' 발표

- 통합대출서비스 시범 구축사업 시행
  - 광역단위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시범사업
    - \* 인천미추홀도서관(22개관), 부산광역시립도서관(27개관)
-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에 따른 운영인력 증원 협조 요청
  - 행정안전자치부에 협조 요청('10.12.27)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시행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향후 국가 도서관정책체계 활성화 및 도서관 환경 개선, 민·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도서관진흥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조사
  - 「2010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는 2,507개관이 참가하였으며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를 계기로 지자체 등 도서관 운영기관이 주민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함

#### □ 잘된 점

- 생활밀착형으로 조성되는 작은도서관을 통해 지역주민공동체 참여 문화 활성화 및 지식정보의 접근성 확대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국고 및 지방비의 매칭사업으로 추진, 지역간 균형 및 사업추진의 안정화 도모
- 작가 참여형 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 및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
- 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우수 문화프로그램 및 전문강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
- 도서관의 독서·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격차 해소
- 지방분권화 시대 지역중심의 도서관 정책 수립 추진계기 마련

- 중앙집중적인 도서관정책과 도서관 관종별로 분산되어 추진해온 도서관 서비스를 시·도 지역단위로 조정·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역대표도서관에 역할 부여
- 전국의 공공도서관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대출시스템의 기반 마련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
  - 2011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도에 통보('10.9)
    -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작성을 위한 수립지침(안) 마련
    - 2011년도 시행계획 부처별· 시도별 담당자 지정
  - 각 부처 및 시·도 소관분야에 대해 시행계획 제출 및 확정
    - 30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도(시도 교육청 포함) 2011년도 시행계획 작성·제출('10.11)
    - 도서관위원회 심의·확정 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통보
-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조사
  - 관종별 도서관 운영평가지표 개발 및 「2010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실시
    - 공공도서관 등 관종별 도서관 운영평가지표 보완·개발
    - 2,507개관이 '10년 평가에 참가
  - 우수도서관 발굴 및 포상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 11개관, 문화부장관표창 33개관 등 총 44개관 포상
    - 우수도서관 포상자에 대한 국내·외 정책현장 연수 실시
    - 평가결과 우수도서관에 대한 인증마크 수여
  - 관종별 도서관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조사 실시
    - 공공도서관 등 관종별 통계지표 수정·보완
    - 통계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데이터점검 기능 강화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운영
    - 도서관통계시스템 수집·축적·제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계시스템 고도화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확대 필요
  - 농산어촌 등 소외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유권 및 지식정보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됨.
  - '10년 순회사서 지원은 전체 작은도서관 중 약 10%에 불과하여 지원 확대 필요
- \* 작은도서관조성 목표: 전국 읍면동('08년 계획수립시 3,560개) 당 1개소

### 3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교과부 협력하에 확대 추진하여 교육 수혜율을 높이는 한편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 제고 등 정책성과 달성
- 명예교사 제도운영/지원(정명훈, 강수진 등 유명예술인 및 출향 예술인 100명)을 통해 재능나눔 차원의 문화예술교육 성과 사회적 확산
- 문화예술교육의 예술꽃 씨앗학교(10개교) 지원과 성공모델 집중 조명(국내 언론)으로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확산에 기여
- 학교경영자 및 교사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실시, 교사자율 연구모임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중요성 인식에 주력

##### □ 주요 성과

-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파견·배치를 확대하여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분야에 대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 \* 예술강사 파견/지원: '09년 4,799개교, 3,483명 → '10년 5,436개교 4,156명
  - \* 수혜 학생수(수혜율): '09년 155만명(20%) → '10년 174만명(22%)
- 소외·취약지역 소재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운영(10개교)이 정착되면서 성공모델로 국내언론 집중 조명. 타 학교의 오케스트라 활동 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기 조성(성공적 모델링 역할)
- 명예교사(정명훈 등 유명예술인 100인)를 통한 학생들의 문화 예술 체험교육 실시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

- \* 운영 실적: '09년 전국 300개교, 20,000명 → '10년 250개교 22,000명 수혜
-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500개 유치원)으로 유아의 표현력 및 정서발달에 기여
-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인식 제고를 위한 교원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 \* 학교경영자 및 교원 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 총 28회, 4,772명 이수
  - \* 문화예술교육분야 교원 자율연구모임 운영 지원 : 8개 모임, 117명 참여
-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12개소)

##### □ 잘된 점

-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업무협약 체결('08.10.15), 문화예술교육 발전방안('10.6.9) 및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방안 발표('10.7.8/교과부 공동)를 토대로 공교육과 접목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정책성과 제고
  - \* 학생 수혜율: '09년 20%(155만명)→ '10년 22%(174만명)
  - \* 예술강사 학교파견: '09년 4,799개교 3,483명→'10년 5,436개교 4,156명
  - \* 예술강사 수혜자 만족도: '09년 74.7점 → '10년 81.7점
- 유명예술인(마에스트로 정명훈 등) 및 출향예술인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참여와 체험, 재능나눔 차원의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한 결과 학생과 일반의 창의력과 문화향유권을 한층 더 높여주고, 문화예술교육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함.
  - \* '09년 전국 300개교, 20,000명 → '10년 250개교 22,000명 수혜

4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 활동지원

(1) 평가결과 종합

□ 총 평

-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사회에 대비하여 소외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문화복지 지원 강화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양질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문화양극화 해소, 경제위기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고 희망을 전달함.
  -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과 문화를 나누고, 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소외계층 대상별,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정책 시너지 효과 제고

□ 주요 성과

- 문화나눔사업 복권기금 예산 확대 : '08년 198억→'09년 218억→'10년 237억 ('11년 480억)

※ 예산 증가사유: 복권기금 평가결과(매년 상위권 유지, '09년 1위) 반영  
<복권위원회의 2009 복권기금 문화나눔 평가 결과>

평가결과	복권기금사업 중 순위
90.75점(1등급)	- 11개 기관 19개 공익사업 중 1위 * 9개 기관 30개 법정사업 포함, 문화나눔사업 외 1등급 없음

- 농·산·어촌 순회사업 등 대폭 확대 추진으로 도·농간 문화격차 및 불균형 해소에 기여

소외 구분	예술행사 관람률(%)		연평균 관람회수(회)		문화시설 연간 이용률(%)	
	'08년	'10년	'08년	'10년	'08년	'10년
월소득 100만원 이하 국민	19.3	24.6(5.3%↑)	0.55	0.89(0.34회↑)	31.2	42.2(11%↑)
군지역 거주 주민	48.9	56.8(7.9%↑)	2.63	3.10(0.47회↑)	41.6	58.5(16.9%↑)

(2010 문화향수 실태조사, 문화정책관연구원)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기관 대상 분야별 전문 예술강사 파견
  - 6개 분야 274개 시설, 8천여 명 대상, 예술강사 333명이 연간 30회(60시간) 문화예술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 협력, 소외 아동·청소년 대상 방학중 창의예술캠프 연간 2회 기획 운영

캠 프 명	기간	장소	참가자
제1회 창의예술캠프 '우락부터. 상상마을 창작놀이터'	7.31(토)~8.2(월)	숲채원(황성)	400
제2회 창의예술캠프	'11. 2.16(수)~2.18(금)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150

- 여성가족부 협력, 청소년 수련시설 소외 아동·청소년 방과후 문화예술교육지원
  - 전국 96개 청소년 수련시설 대상 연극, 영화, 국악 등 3개 분야 전문예술강사 89명 파견 및 연간 20회 (40시간) 교육활동 지원
- 악기교육이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소양교육 차원이 아닌 사회적 환원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역단위 오케스트라 구성, 지원

지역	사업수행기관	협력단체	수혜인원
인천	인천문화재단	인천시립교향악단	70
대전	대전문화재단	대전시립교향악단	70
강원	춘천문화재단	춘천시립교향악단	70
부산	부산문화재단	(사)인코리안심포니	60
전남	목포문화재단	(사)전남청소년교향악단	50
경기	부천문화재단	부천필하모니, 경기예고	50
경기	화성시문화재단	수원대학교	50
전북	익산문화재단	(사)클나무필하모니	50
	계		470

- 국방부 협력, 군장병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87개 부대 1,600여 명
- 법무부 협력, 교정시설,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지원 :
  - 교정시설 20개소, 소년원학교 9개소 등 750여 명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특성화 교정시설(김천소년교도소, 천안외국인교도소) 공연화 프로그램 지원
- ※ 천안외국인교도소(11.29), 김천소년교도소(12.20) 교도소 내 초청 공연

## □ 잘된 점

- 계획수립 시부터 참여자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관계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감
- 세부프로그램별 특성화 및 수요자 맞춤형 사업 추진과 다양한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요층을 확대하고 사업효과 및 타당성을 높임
- 또한, 추진일정을 100% 정상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의 목표치도 모두 초과달성함

## 5

## 다문화사회 문화권 신장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내국인 인식개선 및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다문화 강사 양성, 다문화뮤지컬 지역순회공연을 통해 효과적으로 일반국민의 다문화 이해 증진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에 기여
- 대학생 다문화감수성 개발 연구 등 정책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족 위주의 중복·유사사업 탈피, 정책 사각영역의 미래지향적 사업 발굴

#### □ 주요 성과

-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 및 문화기반시설 파견을 통해 일반 국민의 다문화이해 제고와 인식개선에 기여
- 다문화뮤지컬 '러브인 아시아' 지역 순회공연(9개 지역, 총10회)을 통해 문화예술 매개로 한 다문화 이해 증진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

#### □ 잘된 점

- 다문화 사업 추진 관계부처, 단체, 사업 참여자 등과 지속적인 협의·의견수렴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지속 추진
- 이주민 문화향수 실태조사 등 정책연구과제 지속 발굴 추진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성과지표의 적극적 목표치 설정 미흡

**6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디지털파일 납본을 통한 대체자료 제작의 획기적 확충으로 장애인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소리책나눔터』 운영을 통한 신간도서 접근성 향상에 기여
- 디지털음성도서의 국제표준인 데이지의 한국컨소시엄 구성운영 및 한국 KS 제정을 통해 데이지의 국내활성화 추진 및 데이지 발전에 기여
- 『제3회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장애인 정보누리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정서함양과 독서활동 활성화 제고
- 장애인도서관 자원봉사자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및 장애인 정보누리터 전국 공공도서관 확산사업을 통해 장애인서비스 조기 정착 및 활성화 도모

**□ 주요 성과**

- 『2010년도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사업』
- 대체자료 제작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수 량	소요예산	비 고(제작기관)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전자점자	350종	80,000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악보	200종	180,000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화면해설영상물	50종	100,00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데이지도서	1,000종 400종	195,000 -	하상장애인복지관 자체제작
청각장애인 대체자료	수화영상도서	100종	192,000	(사)한국농아인협회
<b>계</b>		<b>2,100종</b>	<b>747,000</b>	

- 디지털파일 납본을 위한 파일형태 고시 관보게재 : '10.1.13
- 대체자료 제작을 위한 디지털파일 납본 및 보상금 지급
  - 납본수 : 311개 출판사 2,201종
  - 보상금 지급 : 225,584천원
- 대체자료제작위원회 구성 및 운영(1월)
  - 시각, 청각, 점자악보 등 전문가 14명
  - 대체자료 제작 목록선정 등
- 대체자료 제작 민간보조금 지원기관 공모 및 선정
  - 시각 : 4개 형태, 5개 민간기관 선정
  - 청각 : 1개 형태, 1개 민간기관 선정
- 시각장애인 대학생용 대학교재 제작 및 배포(점자 및 모바일 서비스)
  - 1학기(3월~6월) : 100종 / 2학기(10월~12월) : 70종
- 신간도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리책나눔터』 운영
  - 운영위원회 구성(4.19) : 작가, 출판사, 언론계 등 22명
  - 확산을 위한 포럼개최(5.19) : 80여명 참석
    - 장애계, 작가·출판계 등 신간도서 디지털파일 기증 활성화 추진
  - 기증작가 팬사인회 개최(9.11) : 100여명 참석
  - 운영위원회 개최(3회) 및 최다 기증자 포상(12.16)
  - 디지털파일 기증 : 21개 출판사(단체) 108종
- 업무협력 협약체결을 통한 다양한 대체자료 확보에 기여
  - 한국과학창의재단('10.6.16) : 우수과학도서
    - 우수과학도서 점·목자, 녹음도서 및 디지털파일 기증(802권)
  - 한국소비자원('10.7.6) : 소비자 권익향상 지식 및 정보
    - 소비자시대 및 소비자문제연구 디지털파일 기증(정기간행물 2종)
- 국제 표준의 데이지(디지털음성도서)의 국내 활성화 추진 및 KS제정
  - 한국데이직소시엄 발족('10.1.29) : 한국점자도서관 등 21개 회원사
    - 총회 및 임시회 개최 : 3회('10. 4.7, 7.14, 12.23)
  - 국제데이직소시엄 정회원가입 및 이사회 참석('10.5월, 10월)
  - 시각장애인용 디지털음성도서(데이지) 국가표준 제정('10.12.15)

-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 2회('10.8.23, 11.29)
- 『2010년도 제3회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 개최
  - 일시·장소 : 9.27 14시,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등 4개장소
  - 시상 : 장관상 2명, 관장상 22명

구 분	세부내역
원고접수	○ 15개 학교 99편 (시각 : 8개 학교 38편 / 청각 : 7개 학교 61편)
예선결과	○ 13개교 39명 (시각 : 6개 학교 20명 / 청각 : 7개 학교 19명)
본선결과	○ 개인별 : 10개 학교 22명(시각 5개 학교 11명 / 청각 : 5개 학교 11명) ○ 학교별 : 시각(광주세광학교) / 청각(서울삼성학교)

- 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
  - 이용현황

(‘10.12.30일 기준, 327일 개관)

이용자수	등록자수	대면서비스	문자·영상서비스	이동지원	전화
3,626명	514명	5,850건	221건	272회	328명

- 장애인정보누리터 개실 1주년 기념식 행사 개최(4.12)
  - 행사목적: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노력을 홍보하는 효과
  - 참석인원: 140명(장애인 단체 및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
  - 행사내용: 장애인 및 자원봉사자간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우수이용자 및 우수자원봉사자 포상(10명), 장애대학생 명예기자단 임명장 수여(5명)
- 장애인정보누리터 환경개선 및 보조공학기기 확충
  - 네트워크 개선 및 방음도어 설치, 수납공간 개선 등
  - 장애인보조공학기기 확충(독서기 등 6종 10개)
- 이용자 비치희망도서 및 참고 자료 확충 비치(140종)
- 경영정보시스템(MIS) 전산화 추진 및 '09년도 데이터 입력(6~12월)
- 장애대학생 명예기자단(5명) 발족(6~12월)
  - 기획기사 원고 작성 및 미리내 블로그 운영
- 자원봉사자 운영(연중)

- 자원봉사자 활용계획 수립(1월)
- 자원봉사자 모집 : 81명(수시)
- 자원봉사활동 : 105명 657회
- 자원봉사자 수시·심화교육(3회) 및 업무협회 개최
-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자원봉사자 사이버 교육자료 개발(6~10월)
- 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 모델 전국 확산 추진
  - 국고보조사업 계획 수립·보고(2월)
  - 국고보조금 교부(3월)
  - 지원대상 : 11개관

구 분	지 역	도서관명
장애인보조기기 구비 지원 분야 (7개관)	서울	월계문화정보도서관
	부산	구포도서관
	대구	중앙도서관
	인천	화도진도서관, 북구도서관
	강원	춘천평생교육정보관
전남	나주공공도서관	
장애인문화프로그램 지원 분야 (4개관)	부산	구포도서관
	강원	춘천평생교육정보관
	전남	광양평생교육관
	경남	함안도서관

- 지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구비 지원 분야 기관 당 10,000천원, 장애인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분야 기관 당 5,000천원
- 11개관 대상 현장방문 점검(9월)
  - 점검내용 :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적합성 등
- 국고보조금 정산완료 및 통보(11~12월)

#### □ 잘된 점

- 디지털파일 납본을 통한 대체자료 제작의 획기적 확충
  - '09년 161종에서 '10년 2,100종으로 전년 대비 13배 제작종수 확대
  - 제작매체의 다양화

- '09년: 점자(VBF), 수화영상도서, 화면해설비디오
- '10년: 점자, 데이지(BBF), 화면해설비디오, 점자악보, 수화영상도서
- 신간도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리책나눔터』 운영
  - 인쇄물을 읽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출판사 및 작가로부터 신간 도서의 디지털파일을 기증받아 신속하게 대체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한 지식나눔사업
  - 운영위원회 구성 및 발족('10.4.19) : 각계대표 22명
  - 디지털파일 기증 : 21개출판사(단체) 108종
- 업무협력 협약체결을 통한 다양한 대체자료 확보
  - 한국과학창의재단('10.6.16) : 우수과학도서
  - 한국소비자원('10.7.6) : 소비자 및 소비자권익향상 지식 및 정보
- 국제 표준 데이지(디지털음성도서)의 국내 활성화 추진
  - 한국데이지컨소시엄 발족('10.1.29) : 점자도서관 등 21개 회원사
  - 국제데이지컨소시엄 정회원 가입('10.1월)
- 독후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독서활동 활성화 제고
  -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 '9월 독서의 달' 연중행사로 정착화
  - 우수학교를 시상함으로 학생들의 독서장려, 대회참가지도, 원고 작성 등 지도교사의 역량 강화
  - 표준점자와 수화로 제작·보급한 독서자료(점자·수화영상도서)를 통해 독후감대회를 실시함으로 표준점자와 수화를 익히는 기회 제공
  - 수상작품을 장애인 대체자료로 제작·배포하여 수상자 개인의 자긍심 고취 및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독서교육 교재로 활용 제공
- 『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 및 전국 확산』을 통한 국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운영 모델 제시 및 기반 조성
  - 장애인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
  - 전국 공공도서관 장애인자료실의 표준 모델로서 국내외 도서관 관계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도서관서비스의 방향성 제시

- 자원봉사자 활용·관리를 통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분야에 자원 봉사자 활용방안 제시 및 장애유형별 개별 맞춤형서비스 제공
- 자원봉사자 활동·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국내 도서관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서 양질의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서환경 구축에 기여
- '09년부터 16개 공공도서관에 장애인보조기기 구입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통해 지방 공공도서관의 정보누리터 확산 및 도서관장애인서비스 기반 조성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디지털파일 납본에 대한 출판사 이해 부족
  - 도서관법개정('09.9.26 시행)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디지털파일을 납본받아 추진해온 대체자료 제작이 출판사의 이해부족으로 상반기 납본율이 저조한 바 지속적인 홍보와 출판사 독려가 필요
-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 지도교사 관심 부족
  - 학생들의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지도교사에 대한 시상 부재로 지도교사의 역할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지도교사상 신설 필요
  - 초·중·고등학생 대상의 장애유형별 최우수상 시상이 독서활동이 많은 초등부분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시각/청각에서 각 대상별(초등/중등) 시상을 통하여 학생들의 참여확대 제고(장관상 2개→4개)
  - 독후감대회의 자율적인 참여와 참가학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참여의식 고취 및 독후감대회 활성화 도모
- 장애인자료실 전국 확산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 부족 문제
  - 지역생활권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다 실질적 수준의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충 절실 (1개관 : 1,200천원 → 1개관 : 5,000천원)
  - 예산부족으로 지원 대상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기반 조성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11년도 130백만원 반영)

※ '13년까지 100개관 확대목표(장애인도서관서비스 선진화 방안 '09.11.23 발표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장애인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필요
- 저작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교육
- 보조공학기기 기능 및 사용법 교육
- 유형별 장애인 안내법 및 서비스 제공 방법 교육 등

## 7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역사 및 전통문화의 특성을 활용한 경주·전주, 공주·부여 등 창조적 문화도시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등 도시 경쟁력 강화
- 문화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 계기 마련

#### □ 주요 성과

#####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 천년고도 문화유산과 관광이 조화되는 도시로 재창조
  - 신라탐방길 및 전통화원·교촌한옥마을 조성,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등
- 문화기반 시설 확충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 계기 마련

#####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 전주의 풍부한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전통문화도시 조성
  - 한스타일진흥원 건립, 한옥마을 경관조성, 향교문화공간조성, 전주 어진박물관 건립, 3대문화관(소리,부채,완판본) 건립, 전통한옥(동헌·고택) 이축, 아·태무형문화유산전당 건립 등
-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체험·교육도시로 조성
  - 한국전통문화 아카데미 운영, 아·태무형문화유산 축제 개최 등

#####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

- 백제 고도의 유·무형 문화유산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 조성
  - 황새바위 및 송산리 고분군 및 성왕로 경관 정비

□ **잘된 점**

- 유·무형 문화예술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문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 토론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반영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문화도시 조성 절차, 지원근거 등 법적 근거 마련
- 사업 추진 중 문화재 협의 및 전문가 자문 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 일정 일부 지연

**8 지역문화자원의 역량 강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활성화하는 생활 속의 문화정책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향수 제고 및 지역문화역량 강화
  - 침체된 전통시장을 문화를 통해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활성화 하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확대(14개 전통시장)
  -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을 통해 민·관·합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정책현안 해결(6개 시·도, 15개 과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지역문화기반시설과 작은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을 지속 확충

□ **주요 성과**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상인들이 주체가 되어 전통시장을 '문화로 활성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의 문화공간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 기여  
(10년 14개 전통시장, 38억원 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과 공동협력하여 시범사업 추진, 시너지효과 제고 및 문전성시 사업모델 확산  
(춘천 중앙시장, 여수 교동시장 등 2개소)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전통시장 발전방안 논의 위해 전국 9개 시장에서 연속하여 "시장문화포럼" 개최(8.20~10.26, 전국 9개 전통시장)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의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문화 현안에 대한

컨설팅 ('10년도 15개 사업, 448백만원 지원)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적극적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운영('10년 170개 프로그램, 23억원 지원)
- 어르신 문화예술 활성화 심포지움 개최(12.14/서울 유스호스텔)

**<지역 문화기반시설 확충 >**

- 지역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민 문화향수 기반 마련
  -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건립, 지방문화원 시설 개·보수 지원 등(총 94개소 811억원)
  -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총 17개소 82억원)
  - 마을단위 '작은도서관' 확충(총 68개소 35억원)

**<민간투자사업BTL>**

- 시설준공 정상추진결과, 정상추진결과, 생활에 필요한 공공 시설의 조기제공으로 인한 국민편익증대

**□ 잘된 점**

- 쇠퇴해 가는 전통시장을 '문화로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생활 속 문화공간으로 활성화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결과('10.12/경희대 산학협력단)  
 \*총매출액 : 평균 12.8% 증가(사업 전 789억원→ 후 890억원)  
 \*순 생산파급효과 : 184억원('10년 지원액 55억원의 3.4배)  
 \*순 부가가치 효과 : 약 80억원(지원액의 1.5배) / \*취업파급효과 : 346명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공립문화시설 건립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업 추진실적 점검·관리에 한계
  - 연례적 이월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절계 완료 후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예산 집행율 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필요

- BTL사업은 2005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지방의 재정자립도·활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다소 무분별하게 추진한 경향이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문화시설 건립규모의 과다, 운영부실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음
  - 지자체의 BTL 사업 심의 강화와 기존 유휴시설 활용 유도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과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사업을 통한 생활환경의 심미성과 공공성 제고 등 공간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을 추진, 일상공간의 문화적 조성을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문화 창출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 □ 주요 성과

-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사업 추진을 통한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
  - 공공디자인 평가지표 심포지엄 개최('10.6.14)
  - 공공디자인 지역 세미나 개최('10.9.14, 군산)
  - 기념스탬프 디자인 공모 시상('10.11.3) 및 전시('10.11.3~11.30)
    - : 인사동 KCDF 갤러리, 국립민속박물관 등
  - 공공디자인 평가지표 구축을 위한 토론회 개최('10.11.15)
  - 2010 공공디자인 엑스포 개최('10.12.15~12.19)
  - 2010 공공디자인대상 공식 홈페이지 개설('10.10.12) 및 시상('10.12.19)
- 공공디자인·건축 관련 정보를 집적화한 행사의 효율적 운영으로 관계 전문가, 학생 및 일반시민들의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 전환에 기여
  -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심포지엄 개최('10.6.4/ 백범김구기념관), '공주 국고개 문화거리' 등 5곳 수상지 시상 및 전시

(‘10.9.29~10.3/ 부산 벅스코)

-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최 지원('10.9.29~10.3/ 부산 벅스코)
- 세계여성건축가서울대회 개최 지원('10.10.4~13/ 국립중앙박물관 등)
-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통해 학교에 다양한 문화공간을 조성,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창의성과 문화적 감수성 제고 및 학습효과 향상
  - 쾌적한 도서문화공간 조성(서울 경복여고, 서울 대청중)
  - 활동적인 동아리문화교실 조성(고성 동광농공고)
  - 교사, 학생, 학부모의 소통을 위한 문화카페공간 조성(대구 영화학교, 순천 성남초, 제주 표선초)
  - 다용도 복합문화강당 조성(안산 삼일초, 익산 성북초, 광주 수피아여중) 및 옥상정원 조성(안양 충훈고)
-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사업을 통한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문화 공간 창출
  - 안양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사업 시공 진행
    - : 11월 공정률 25%
  - 수변공간 중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사업 실시설계 완료
    - : 경기 양평, 경북 안동, 부산 진구, 전북 익산
  -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선정('10.8.25)
    - : 강원 정선, 경기 부천, 경북 상주, 전북 진안
- 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일상공간의 문화적 개선으로 지역공동체 구성원간 배려와 소통이 원활한 창의적인 공간 창출
  - 산업유산을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설계('10.11월) 및 착공('10.12월)

## □ 잘된 점

- 관계기관(국토해양부) 협의를 통한 ‘건축정책기본계획(‘10년~‘14년) 수립 등 건축문화 정책 추진기반 마련(4~6월)

○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을 통해 사업결과가 공간 개선을 넘어 지속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너지 효과 도출

- 사업을 통해 조성된 학교의 문화공간에서 방과 후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요성과

- 대구영화학교 : 제2회 방과 후 학교대상(大賞) 공모, 학교장 부문 장려상 수상(교육과학기술부)
- 고성 동광농공고 : 밴드부/비보이팀의 교내 축제 및 다양한 지역축제 참여
- 순천 성남초 : 상담실을 통해 순천교육청과 연계하여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문화공간 활용 「어린이·청소년 대상 디자인교육」 진행(6회, 190명)
  - 제주 표선초('10.12.1-2): 나만의 의자 디자인, 스타토이 디자인
  - 순천 성북초('10.12.13): 그림 그리는 로봇 디자인
  - 대구 영화학교('10.12.18) : 나만의 의자 디자인, 조명디자인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사업 합리적인 성과 측정을 위해 수혜대상인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실시('10.11.9~12.24)
  - 경기 안양, 경기 양평, 경북 안동, 부산 진구, 전북 익산, 충북 청주
-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조성' 등 추진사업 일부 지연
  - 문화재 설계심의와 공유재산취득심의 등 지자체 사정으로 인한 공사 발주 지연
- 부산 아시아건축문화역사관 건립 지원 사업 취소('10.11월)
  - 지방비 확보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지원 취소

## 10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콘텐츠 발굴 지원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광주지역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조성과 5대 콘텐츠 중심의 제작 환경구축, 역외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등 지원성과의 가시화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견인함.
- 차별화된 전당 운영체계 구축 및 창조적·미래지향적 콘텐츠 개발 확보
  -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구체성 확보
  - 전당 5개원 기능의 상호 연계·순환을 통해 미래형 문화 예술 콘텐츠 창작·제작 및 유통기반 구축

#### □ 주요 성과

- 문화콘텐츠 제작지원(CGI활용 프로젝트 제작지원 2개 등 12개 프로젝트 지원), 콘텐츠 발굴(공모전 29개), 「2D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 등 15개 과정운영(교육 293명, 취업 124명)으로 지역 문화 산업 활성화
  - 신규창업 6개사(고용창출 20여명), 역외기업 2개사 유치 등
- 문화콘텐츠 제작·체험·전시 및 교육공간인 「광주영상복합 문화관」 개관('10.2), 영상첨단산업 조성을 위한 「CGI건립 센터」 지원('10년 70억원)
- 지역 문화콘텐츠 판로 개척 및 국내외 콘텐츠 견본 전시인 「제5회 국제문화창의산업전」 개최로 수출상당 2억달러 이상 달성
- 장르융합을 기반으로 커리큘럼 교육과정 개발
  - 25개 디자인 분야 교과 융합으로 미디어 하이브리드 교과개발

- 일반적 공연 제작 프로세스에서 탈피, 다분야 협업·융복합 콘텐츠를 지향하는 시범사업 운영
  - 다분야 협업 프로그램 개발(총 6회 개최, 800명 참여), 공연-미디어 아트 연동 프로세스 개발("3 Cell+1") 및 디지털 미디어아트 실용제품화 등
- 예술극장 기획안 국제공모 및 프로듀서 캠프 개최
  - 전 세계 13개국 23개 도시에서 총 71편 응모, 최종 3편 선정
  - 해외 주요 공연장들로부터 총 10개의 우수 프로젝트 제안 접수 및 각국 극장 운영현황 공유
- 기 연구된 전시기획안의 시범제작 및 전시운영을 통해 어린이문화원 개관콘텐츠 가능성 검증
  - 지역기반의 다각적 협업 및 다양한 참여주체 발굴(장애인, 소외 계층 어린이 포함, 교사, 학부모 등 6,000명 체험)
- 국내·외 어린이워크숍 사례조사 및 국제공모를 통한 창의적 기획안 발굴
  - 국내·외 55개 기관, 전문가 인터뷰(20여명) 및 총21개안 중 5개 기획안 선정(국내 2팀/국외 3팀)
  - 어린이 국제 창작워크숍 총 5차 개최 및 결과물 전시 2회(서울/광주)

## □ 잘된 점

- 지원콘텐츠에 대한 제작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각 콘텐츠별로 업계·학계 등의 철저한 멘토링을 통한 고품질 콘텐츠 완성으로 국내외 구매상당, 공동 제작 및 투자유치 등에 활력을 기함.
  - \* '코시모시'(09년 기획창작 스튜디오) TV 시리즈 애니메이션(11분×52화) : 프랑스 레드프로그사와 공동제작 MOU(60억원)체결 등
  - \* '우당탕탕 아이쿠'(09년 CGI활용 프로젝트) TV 시리즈 애니메이션(10분×52화)
    - 2010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 애니메이션부문 대상(대통령상)수상('10.12.20), NHK JAPAN PRIZE 2010 본선진출('10.10)
    - EBS 등 지상파 방영, 출판, 뮤지컬, 음원 등 다수 OSMU 사업화 진행 중
- ACA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산학협력, 국내·외 네트워크 DB를 구축하고 현장 전문가를 활용, 프로젝트 기반교육 모델 제시
- 미디어 아트와 공연 예술분야의 기술, 인적 자원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인력풀 기반 조성
  - 단순 프로세스 설계가 아닌 실제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작품 7, 공연물 1)
  - 인력 및 기술 생태계 지도 개발 및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 운영을 통해 작가의 참여 동기 부여 시스템 구축
- 국제공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홍보시스템 구축 및 서울아트마켓(PAMS) 연계를 통해 경비절감 및 홍보효과 극대화
  - 1, 2차 총 15명의 전문가 심사를 통한 최종 공모안 선정 및 국내·외 총 4만 건 이상 홍보 실시
- 어린이문화원의 실질적 수요자인 지역 초등학교 및 관련 교육 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네트워크 구축
  - 참여기관 및 인원 : 총 120여개 기관, 6,120여명 참여
- 콘텐츠 창작과정에 어린이를 참여시킴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개관 콘텐츠 확보
  - 워크숍 대상 : 8~13세 어린이, 5~15인으로 구성되어 총 69명 참가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5대 콘텐츠 중심의 문화산업기반 지원구축을 위한 첨단영상 분야 외에 '공예·디자인, 음악 분야'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국제 프로듀서 캠프로 형성된 네트워크의 지속적 관계유지 및 신뢰 구축 필요
  - 국제공모 선정작 이외 우수 아티스트 그룹, 작품 DB구축 및 지속적 관계 유지 필요
- 어린이문화원 전시관의 공간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초등학교 교실(약 18평)2개에 전시콘텐츠를 제작, 운영하여 어

린이문화원 실제 전시공간(약 2,000평)의 특성과 방문객 동선의 자율성 반영이 어려웠음.

- 향후에는 전시적 공간 대여 등 물리적 연계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운영 등 행정적, 프로그램적 연계 방안 고려 필요
- 「어린이콘텐츠 국제창작 워크숍」은 테스트베드 성격 사업으로 여건상 다수의 어린이가 참여하지 못했음(총 69명)

## 11 문화도시 조성관련 지원사업 추진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강화, 조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으로 조성사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 추진에 기여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조성사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을 살린 조성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 조성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키 역할 수행

#### □ 주요 성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과 관련해 이어져온 구)전남도청 별관 보존 범위 설정 문제 등 조성사업 추진 관련 민감한 주요 현안에 대한 심의 자문을 함으로써, 조성사업 추진에 활력을 더함.
- 또한, 동위원회는 세미나를 개최('10.9.28)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국가발전에 대한 담론 형성
  - 아시아 문화의 허브로서 광주 문화중심도시의 의의(서울대 임현진 교수)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사업이 국가발전에 끼친 영향(KAIST 원광연 교수)
  -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창조적 지역발전(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
- 정책협의회 개최(7회)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간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전당건립 현안, 광주 U대회와 연계한 조성사업 추진 등 총 64개 안건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조성사업 추진

## □ 잘된 점

- 조성위원회 4차 회의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권역과 컴퓨터형성 이미지(CGI, Computer Generated Image)센터권역, KDB생명빌딩 등 3곳이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심의 의결(11.29)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지정에 대한 심의 의결을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 수행 및 향후 문화산업체 유치에 탄력받을 전망이다.

##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 추진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전당시설과의 업무추진 사항은 '문화전당 건설공사'의 집행을 목표로 하므로 공사집행을 위한 예산을 이월액이 없이 집행

#### □ 주요 성과

- 문화전당 건설공사의 계획공정률을 정상적으로 달성
-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방법에 대해 지역사회단체와의 갈등을 2년 6개월 만에 해결하여 전체 공사추진 저해 요소 해결
- 옛 전남도청 본관 및 민원실 등 보존건물 설계용역 착수하여 문화전당 완공시기에 맞추어 전체 시설물을 동시 완성 가능

#### □ 잘된 점

- 시설과, 설계자, 감리자, 시공사 합동 워크숍을 통해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소 및 애로사항 공유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공사의 정상적인 공정추진 가능 효과
- 광범위한 공사 현장주변의 금남지하상가 및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면담을 통해 사업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추진단에서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광주시의 문화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의 일부 부서는 문화전당 건립공사장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분쟁 야기
- 광주광역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되도록 협조 요청

**13 문화전당 아시아 예술커뮤니티 운영**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문화전당의 아시아 교류 거점 확보를 위해 아시아 예술 커뮤니티 권역별 연초 목표대로 구축 및 운영
  - '08년 동남아시아, '09년 중앙아시아, '10년 남아시아
- 아시아 권역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축 및 운영
  - 한-아세안 전통음악위원회(동남아), 한-중앙아 스토리텔링위원회(중앙아), 아시아무용위원회(남아시아)

**□ 주요 성과**

- 아시아 예술 커뮤니티 신규 거점인 '남아시아 무용 커뮤니티' 구축
  - (가칭)아시아무용위원회 창설 및 아시아무용단 창단 합의
- 아시아 권역별 커뮤니티 행사에 해외 전문가 174명 참여(목표 150명)

사업명	일정	참석자수(총174명)
○ 제4차 한-아세안 문화자원 협력회의	'10.3.16~17	동남아 10개국 20명
○ 한-아세안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광주, 고양)	'10.5.19/24	동남아 10개국 67명
○ 제1차 한-몽 문화자원 협력회의	'10.9.29~30	몽골 6명
○ 아시아 무용자원 협력회의	'10.11.23	남아시아 16명
○ 아시아 무용 심포지엄	'10.11.24	인도무용전문가 등 5명
○ 한-중앙아시아 신화설화영웅서사시 포럼	'10.11.30	중앙아시아 5개국 48명
○ 제3차 한-중앙아시아 문화자원 협력회의	'10.12.1	중앙아시아 5개국 12명

**□ 잘된 점**

- 문화전당 운영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전당의 아카이브 및 콘텐츠 구축사업 기반 구축

- 한-중앙아 신화·설화 아카이브(23편) 및 게임·드라마 등 시놉시스(18편) 개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및 문화전당의 국제적 위상 강화
  - 유네스코 총회의장 조성사업 지지표명(5월), 한-중앙아 협력포럼 중앙아 5개국 대표단 지지 획득(11월)

## 14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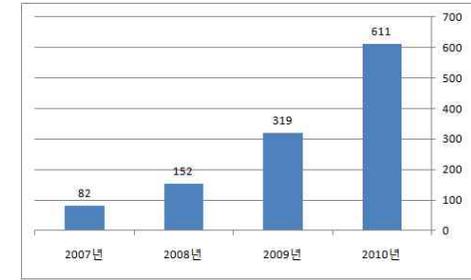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성화를 통해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예술 창작 기반조성 및 기업의 문화경영 인식 제고
- 예술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단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단체 운영 내실화 및 경영마인드 변화 도모에 기여
- 책임심의관 제도 도입을 통해 예술 지원 심의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제고
- 특성화·전문화된 극장, 예술가를 위한 소통의 공간을 조성하여 예술계 현장 수요 충족

#### □ 주요 성과

- 기업 및 예술단체의 결연으로 기업의 예술기부를 통한 안정적인 창작기반 조성과 기업의 문화경영 확산에 기여
-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 통합법인 설립('10.1월)을 통한 극장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및 조직·인력 등 시너지 효과 발휘
- 예술분야 지원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심의위원 위촉(44명) 및 책임심의위원제도 도입('10.2월)으로 지속적 발전 도모
- 위원회 사무처 본관(대학로)을 '예술가의 집'으로 조성('10.11월)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네트워킹의 거점으로 육성
- 문화예술단체 컨설팅 수요 급증
  - '10년 컨설팅 실적 총 611건 ('09년 319건, '08년 152건, '07년 82건)
  - 컨설팅의 전문성 등으로 컨설팅 서비스 수요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10년의 경우 매우 급격히 증가하였음.



- 분야별 전문화된 예술경영 실무 교육 프로그램 제공
  - 기획제작, 홍보마케팅, 조직경영 등 직무분야별 실무 과정,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가 양성' 과정, '찾아가는 실무교육',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직무교육 지원 등 분야별 전문화된 예술경영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수강생 평균 만족도는 4.2점(5점 척도)으로 '높음' 이상을 기록하였음
  - 정원 대비 신청률은 1.57대 1로 지속적인 잠재 수요를 반영하고 있음

#### □ 잘된 점

- 기업들이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기업메세나 세미나·심포지엄 개최
  - 기업의 문화예술단체 지원액 증가
- 현장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 증가

## 15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문화예술교육 기관의 역량 강화와 문화기반시설의 접근성 제고
- 문화예술분야의 교육인력, 기획경영인력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예술창작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에 기여

#### □ 주요 성과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배치 및 문화예술교육 과정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 전국 125개 문화기반시설, 125명 전문인력 배치
-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 및 관련 전문가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
  - 연간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29회 운영, 1,485명 참여

#### □ 잘된 점

- 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들과 사업 참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도 개선에 반영하였으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중앙공무원교육원·전경련IMI 국제경영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추진 계획상의 사업 일정을 모두 정상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의 목표치도 102%달성

## 16 시각예술 경쟁력 제고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한국국제아트페어, 국제미술제 참가 지원을 통한 미술시장의 활성화 및 국내미술의 국제무대 진출 기여
- 주민과 마을이 주체가 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소외지역 주민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미술작가들에게 활동의 기회 제공
- 건축물 미술장식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국민들의 미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미술작품의 다각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

#### □ 주요 성과

- 한국국제아트페어, 국제미술제 참가 지원 등을 통해 미술시장의 활성화 및 국내미술의 국제무대 진출 기여
  - 한국국제아트페어 참가 화랑수 193개(국내 120, 해외 73), 관람객(총72,000명), 판매액(12,500천원)
-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미술작가의 활동기회 부여 및 관련 분야 일자리 창출
  - 2010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작가 96명, 관련분야 157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미술모델 수립 및 지자체 확산
  - 우리동네문화소동(공모2) 10곳, 테마이야기(공모3) 5곳
  - '09년 공모 지원 평균 경쟁률 1.9:1⇒10년 경쟁률 2.5:1
- 건축물 미술장식 DB 구축을 통해 전국 단위 건축물 미술장식 활용·관리체제 구축 및 서비스 기반 확보
  - 전국 건축물 미술장식품 기초·상세 DB 구축완료('10년 4,697건) : 16개 시·도 총 11,900여건

## □ 잘된 점

- 시각예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국제아트페어 사업의 성과지표인 '참가화랑수'가 전년 실적보다 뚜렷하게 증가함
- '09년 시작한 공공미술프로젝트는 투명한 사업운영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수혜자 만족도(92%)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짐
-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건축물 미술장식 DB 활용·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확보함

17

## 공연예술인프라 운영 활성화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공연예술 인프라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 □ 주요 성과

- 지역주민의 균형있는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문예회관 확충
-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한 공연예술 인프라 운영 활성화에 기여

#### □ 잘된 점

- 소외지역의 문예회관에 우수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지역별 비엔날레 개최를 통한 문화예술도시 육성 및 국제적 예술 교류 활성화 제고
- 해외에서 활동 중인 작가들의 초대전을 통해 국제적인 미술 경향 소개 및 창작활동 활성화에 기여
- 서울아트마켓을 통해 국내 공연 예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시스템 구축

□ 주요 성과

- 비엔날레 개최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도시 기반 마련 및 국제적 예술 교류의 활성화
  - 총 관람객 1,042,917명(외국관람객 102,516명)
  - 시민참여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 제고
- 주변나라와의 문화적 공감대 형성 및 상호이익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 나라 작가들에게 지원으로 대상범위 확대 실시
  - 동아시아 총 8개국 23명의 작가들이 참여한 전시
- 국내 공연 예술 작품의 해외 진출 제고
  - 서울아트마켓 선정작(팸스초이스) 2010년 해외 진출 90건, 29단체, 31작품

□ 잘된 점

- 다문화사회라는 사회적 화두에 맞게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정부정책에 맞춰 '해외작가초대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

- 이와 더불어 문화소외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혜택을 적절히 포함시켜 진행함
- 비엔날레의 경우 외국관람객(전체관람객의 약10%) 유치를 통해 예술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회적 관심 제고
- 국내우수공연에 대해 해외 홍보와 창작·유통 전 과정에서 교류, 협력을 위한 장(場) 마련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시각예술분야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분야의 지표를 함께 설정하여 과제의 성과가 적절히 드러날 수 있게 함
- 비엔날레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국민 인지도 제고 및 관람객 증가 모색

## 19 민족문화의 보존 및 활용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한국스타일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식 개선에 기여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박람회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짜임새있는 행사 개최
- 한국문화원형 디지털화사업의 통합 추진
  - 기존의 문화원형 정체성정립사업과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의 통합 추진(한국콘텐츠진흥원 수행)을 통해 과제개발의 중복 방지 및 통합 관리 운영

#### □ 주요 성과

- 한국스타일 박람회 개최(12.15~19/코엑스)
  - 한국스타일박람회, 공예트렌드페어, 공공디자인엑스포 3개행사 공동개최(참관객 34,953명)
-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시 문화원형 활용한 대회 개막공연 참여
  - 한국 문화원형의 보급과 전파를 위하여 홀로그램·입체영상 등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 제작 지원

#### □ 잘된 점

- 한국스타일박람회의 한옥부스 설치로 한옥에 대한 관심 제고
  - 기존 알루미늄 부스가 아닌 한옥 조립부스를 설치하여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음.

- 문화콘텐츠닷컴 사이트 통합 오픈 및 대국민 무료 정보제공
  - 각각 운영되던 사이트를 문화콘텐츠닷컴으로 통합하였으며 유료 판매되던 이미지 등을 무료로 전환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한국스타일 박람회의 단독 개최 필요
  - 성과지표는 한국스타일박람회의 관람객수(16,645명)로서 전년대비 17% 이상 상향조정하여 적극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나, 한국스타일박람회, 공예트렌드페어, 공공디자인엑스포의 동시개최로 인한 관람객의 증가로 성과지표를 초과달성하였음. 이는 3개 행사의 동일 장소 개최에 의한 개별행사별 관람객 측정이 불가함에 따른 것임, 향후 단독개최, 행사장 분리 등을 통하여 성과지표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음
  - 3개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은 시너지 효과 창출 등 효율적인 측면은 있으나 행사취지, 주제 등이 희석되어 행사별 특징을 살리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20 종교문화자원의 보존 및 활용**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전통사찰의 보수·정비와 전통 불교자원의 정보화·현대화 사업 추진 등으로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을 보존·전승의 토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행사와 종교시설의 문화적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음
- 종교문화육성사업 평가모형 개발 등 전통종교문화자원 보존을 위한 객관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전통문화 성지순례코스 개발 등 종교문화자원에 대한 국민 활용도 및 관심도 제고하였음

□ **주요 성과**

- 종교문화 보존 및 체험 공간 마련으로 국민의 문화 복지 향상
  -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150개 사찰)
  - 전통 불교문화자원의 정보화·현대화 추진
    -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33책 전산화(동국역경원)
      - \* '10년까지 총 318책 중 294책 개역 전산화
    - 한국불교전서 2,387단 역주(불교문화연구원)
      - \* '10년까지 총 34,884단 중 12,703단 역주
  - 사찰, 교회, 성당 등의 문화공간화 확산 및 지역주민 연계 문화 축제 지원 확대

-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연도별	참가 사찰	참가 인원(명)	국고지원
2004년	36개 사찰	36,902(내국인 33,695, 외국인 3,207)	18억원
2005년	41개 사찰	52,504(내국인 45,887, 외국인 6,617)	25억원
2006년	50개 사찰	69,280(내국인 59,890, 외국인 9,390)	35억원
2007년	72개 사찰	81,642(내국인 68,119, 외국인 13,523)	150억원
2008년	87개 사찰	112,800(내국인 92,694, 외국인 20,106)	150억원
2009년	100개 사찰	140,893(내국인 121,494, 외국인 19,399)	185억원
<b>2010년</b>	<b>109개 사찰</b>	<b>164,968(내국인 145,217, 외국인 19,751)</b>	<b>185억원</b>

\* 참가인원은 「2010년 템플스테이 정책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용역자료 참고

- 전국 만해 백일장(3월), 서광사 산사음악회(5월), 서울 연꽃축제(7월), 한민족문화예술대전(9월), 오대산 불교문화축제(10월), 화엄사 화엄제(10월), 천태 차문화 대회(10월) 등 사찰 문화행사 확대
- 교회, 성당 등 지역주민 연계를 통한 문화축제
  - 명동성당 5월 축제 한마당(55,900여명)
  -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축제(2,500여명 추산)
  - 중추절 희망 큰잔치(1,000여명 추산)
- 서원·향교를 활용한 청소년, 일반인 등 전통문화 및 인성교육
  -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 연수(12,312명)
  - 청소년 인성교육 운영(성균관·전국향교 활용 강사교육, 인성교육, 예절교실 및 교재 제작 등)
  - 시범향교 교육(광주·수원·청주·음성·사천향교 등 5개소, 7,299명 참가)
  - 서원스테이(선비문화체험 6회, 서원활성화 사업 10개 서원)
  - 유교문화체험 연수교재 및 콘텐츠 개발(어린이, 청소년, 학부모, 교사, 기업인, 공직자 대상 연수교재 및 콘텐츠 개발)
- 겨레얼 살리기 강연회(8개 학교 3,117명 참가)
- 유교문화체험 확대를 위한 유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 경북유교문화회관 건립
    - \* 경북 안동시, 기존시설매입, 리모델링 '11년 완공예정
    -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
    - \* 경남 산청군, '12년 완공예정

- 도산선비문화체험관 건립
  - \* 경북 안동시, '11년 완공예정
- 한국 대표 유학사 관련 문헌 정보화 및 DB 구축
  - 한국 대표 유학사(儒學史) 관련 문헌 정보화(12종 87책)
  - 정본화된 자료의 DB화 추진
- 종교문화육성사업 평가모형 개발 연구('10.9~12월)를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내실화 확보
  - 각종 종교문화행사의 사업계획·예산집행·사후평가에 대한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종교문화행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함
- 전통문화 성지순례코스 개발 연구('10.7~12월)를 통한 순례코스 발굴 및 육성
  - 체험과 소통을 통한 전통종교문화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성지순례를 관광·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 잘된 점

- 템플스테이 등 불교문화 체험 공간 마련 및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
  - 템플스테이 참가사찰('09년 100개 사찰 → '10년 109개 사찰) 및 참가 인원('09년 140,893명 → '10년 164,968명) 증가
  - 전국 만해 백일장, 서광사 산사음악회 등
- 명당성당 5월축제 한마당, 중추절 희망 큰잔치, 거리에서 드리는 성탄축제 등 다양한 종교문화행사 개최로 국민의 문화향유 욕구 충족
- 전통교육문화의 보루인 성균관, 향교, 서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인성·윤리도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인성관 확립 및 민족 자긍심 고취 향상에 기여
- 쉽고 재미있는 유교문화체험을 위한 연수교재 및 콘텐츠 개발
- 대표적 한국 유교문헌의 정본화(定本化)와 DB화를 통해 전통문화 원형 발굴 보존 및 대국민 서비스에 기여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종교시설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프로그램 질적개선 필요
  - 교회·성당·사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 주민화합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 문화프로그램이 종교단체 자체수준에서 기획 운영하고 있어 프로그램 내용이 종교적 색채를 띠는 경향이 있어 참여자의 만족도가 일부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어 향후 지역의 전문 문화예술단체 등과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소외지역인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광주 증심사 '무등산 풍경소리'는 전문 예술단체에서 주관하여 광주 지역의 문화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좋은 사례. 특히 불교의 염불, 이슬람의 코란, 우리나라의 전통 굿, 힌두교 리듬이 함께 어울리는 세계 영상음악제인 화엄사 '영성음악회' 및 스님·목사·신부·원불교 교무, 언론인 등이 주체가 되어 매월 증심사 문화광장에서 개최하는 '무등산 풍경소리 음악회'는 종교화합의 장으로도 활용 가능하여 전국적인 확산 필요
- 아울러, 우리부(종무실)에서는 종교문화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우수 사례 발굴 및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 등이 필요
- 유교관련 시설의 일반주민 활용도 제고 필요
  - 최근 안동, 산청, 정읍 등에 유교관련시설 건립이 추진되고 있음
  - 동 종교시설이 단순히 종교인들의 전유공간이 아닌 지역 주민의 문화향수를 위한 건전한 종교문화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우리 부 개발 중인 선비문화체험 연수 교재 보급 등) 지원과 모니터링이 필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전통예술 공연의 연중 상설 운영을 통한 대중적 확산 및 한국민속 예술축제 운영방향 개선 등 행사·축제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 전통예술 고궁 상설공연으로 일반 대중 및 국내외 고궁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의 품격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수 창작연희의 지방 순회·상설공연으로 지방 거점의 연희단체에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지방 공연문화를 활성화하였음
- 성과지표인 외부평가점수에서 목표치의 97%를 달성함에 따라 낮은 점수를 받은 공연·행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성과

- 전통예술 대중화
  - 제5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제17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 지자체 대표민속 경연 및 민속원형 보존을 위한 현지심사제도 도입
  - 전통예술 상설공연 개최
    - 고궁 상설공연(4개궁, 55회), 전통연희 상설공연(3개지역, 23회)
  - 세계무형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 강릉단오제(6.12-19), 전주세계소리축제(10.1~5), 서면제보성소리축제(10.16-17), 구례동편소리축제(10.8-10), 여성국극(8.26-27), 판소리유과대제전(10.8-9)
- 전통예술 산업화
  - 전통예술분야 연수단원 지원
    - 국악전공졸업자 연수단원(56명), 국립국악원 연수단원(34명)

- 전통예술 마을축제 실태조사 연구용역 실시
- 전통예술 세계화
  - 해외 레지던시 운영
    - 우수 프로젝트 지원(4개 단체), 해외 기관협력 파견(6개 단체)
  - 외국인 국악 강습 및 전통예술 텍스트 번역
    - 외국인 초청 국악문화교실(7.31~8.13), 국제음악학자 초청 국악연수(10.17-30), 북미권역 국악강습 등
    - 전통예술 강습교재 및 학술서적 번역(4종)

□ 잘된 점

- 전통예술 공연의 상설화 및 지방 공연예술 활성화로 대중화 확산
- 전통예술 고궁 상설공연으로 일반 대중 및 국내외 고궁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의 품격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우수 창작연희의 지방 순회·상설공연으로 지방 거점의 연희단체에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지방 공연문화를 활성화하였음
- 기존 50회 동안의 한국민속예술축제를 개선하여 현지심사종목 등을 도입,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였음
- 전통예술분야 원형 보존 및 학술적 기반 마련
  - 전통예술 복원·재현을 통해 사라진 전통문화를 재창조하고 전통예술 해외 강습, 텍스트 번역 등 교육, 학술적 활용도가 높은 자료를 제작하여 국제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세부 과제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우리 말 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을 위해 한글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설계 및 전시 설계를 추진하여 우리말글에 대한 자긍심 고취에 기여
- 한국어 보급기관을 세종학당으로 통합하는 계획에 따라 국내외 한국어 국외보급기관이 공동 명칭을 사용하고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음
- 공공언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국어책임관 및 국어문화원 공동연찬회를 통해 민간과 연계함으로써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함께 추진함

□ 주요 성과

- 국어책임관 연찬회 2회 실시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연찬회(5월,11월)를 개최하여 공공언어 개선 분위기 확산
  -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언어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
- 국어책임관 특별과정 운영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과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인식 전환 계기 마련.
- 전세계 한국어교육기관을 '세종학당'으로 공동 브랜드화하는 방안 마련, 및 이에 대한 홍보
- 한글박물관 건축설계 현상공모 및 전시설계로 최초의 한글 주제 전시시설 건립계획을 창의적·체계적으로 추진

□ 잘된 점

- 한글박물관 건축 및 전시 설계 진행을 통한 한글문화 상징시설 실현계획을 구체화하여 우리말과 글의 가치 제고
- 공공기관 언어 개선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정책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만들어 국민과 소통을 원활할 수 있도록 함.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향후 한글박물관 건립 공정율과 세종학당 수강생 수 등 과제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의 대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의 효율적 대국민 홍보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 국민인지도 조사와 건립사업의 종합 홍보계획 수립으로 단계별 홍보전략에 의한 체계적인 홍보 추진으로 건립 취지에 대한 국민 호응도 제고에 기여
  - 기초자료 분석과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홍보컨셉, 홍보방향 및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계기·시기별 홍보 전략 및 실행 프로그램 추진
- 건립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담은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 언론 홍보활동을 통해 우호적 여론형성 조성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기여

#### □ 주요 성과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 국민인지도 조사(2회)
  - 1차(월드리서치/10.4월) : 건립취지에 대해 공감(72.8%)
  - 2차(비즈아이솔루션/10.12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인지도 (1차 37.8%→2차 71.7%)
- 건립사업 가치와 비전을 담은 다양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8건)
  - 건립사업 홍보 브로슈어, 기증안내, 프레스킷 등 인쇄물제작, 지방박물관 등 공공다중이용 시설 배포
  - 홍보 PT, CF 등 동영상 제작, 착공식 활용·전광판 광고
  - 온라인 이벤트 및 지하철 홍보물 제작 활용
- 착공식 전후 단계별 대 언론홍보 추진, 우호적 여론형성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여(방송·인쇄매체 기획 보도 11회)

- 방송(케이블 포함) 및 신문(온라인·오프라인 포함) 매체 보도 횟수
  - 1~8월 : 총 51건(KBS 등 지상파 방송사 제외)
  - 9~12월 : 총 99건
- '건국절 논란' 및 '이념 논쟁' 등 부정적 기사 보도 횟수
  - 1~8월 : 총 17건(34%)
  - 9~12월 : 총 1건(1%)

#### □ 잘된 점

- 건립사업 국민인지도 조사와 건립사업의 종합 홍보계획에 따른 착공식 전후 단계별 홍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건립사업에 대한 우호적 여론형성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여
  - 착공식을 전후로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홍보 추진을 통해 1월~8월 까지 총 8개월간의 보도건수(51건)에 비해 9월~12월까지 총 4개월간 게재된 보도기사(99건)가 2배 가량 증가
  - 기사 내용에 있어서도 역사박물관 건립 초반의 경우 '건국절 논란'을 주요 이슈로 거론하고 있으나, 9월 이후 보도되는 기사의 경우 역사박물관 건립 의미와 대한민국 대표 박물관으로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메시지가 주요 내용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향후 사업 취지와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적절한 과제선정 필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은 '13.2월 개관('12.5월 준공)을 목표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
-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석면조사 등을 시행하고 이를 분석 및 검토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립기본계획에 반영
- 건립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반영을 위하여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타당성 분석 및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문조사와 건립사업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수렴에 충실을 기함
- 성과지표로서 사업의 공정률을 채택하여 사업의 추진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성을 확보함
- 과제별 추진계획(일정)에 따라 사업 시행됨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조달청, 서울시 및 종로구청 등 관련기관과 업무협의를 통한 협조체제 구축하였고, 본 사업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의사결정 체제 구축함

□ 주요 성과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기본계획 수립('10.2월), VIP 보고 및 발표('10.3월)로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 건축개념설계안 공모추진('10.2~4월)으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을 감안한 창의적인 건축설계안 선정 및 건립사업의 홍보효과 제고
- 국토해양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설계·시공일괄입

- 찰추진의 당위성 확보('10.2월)
- 건립공사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10.7월)
- 전시분야 발주방법 결정('10.7월) 및 발주('10.8월)
  - 건립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시업무의 일관성 유지, 공사기간 단축, IT·CT 등 신전시기법의 탄력적 대응 등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시설계와 공사를 일괄발주
- 건립공사 계약('10.10)
-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계약('10.12)
- '10.12월 현재 건축분야 공정률 18.6% 및 전시분야 공정률 16.7% 달성

□ 잘된 점

- 건축분야 18.6% 및 전시분야 16.7%의 공정률 달성 등 '13.2월 개관('12.5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사업의 정상 추진
- 건립기본계획을 수립('10.2월), VIP 보고 및 발표('10.3월)로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하여 건립사업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함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추진일정의 충실성: 전시 설계자 선정 등 일부 사업 일정 지연
- 관계기관·정책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였으나 발주방법 변경 등 상황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대응성은 다소 부족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 건축분야 공정률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전시분야 공정률은 16.7%로 당초 목표인 20%에 미달

**25 재외문화원 확충 및 특화사업의 강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문화원 거점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별, 권역별 문화수요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한국문화 소개
- 문화원 주재지 뿐만 아니라 주변국까지 우수 문화관광자원의 체계적·지속적 소개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 주요 성과**

-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관광, 스포츠 등 종합적인 한국문화 소개와 지역별·권역별 문화수요에 부합하는 전략적 한국문화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강화

**□ 잘된 점**

- 재외문화원 특화사업 목표 초과 달성(65건→70건)

※ 거점별 특화사업 실적

거점별	특화사업	비고
중화권 (북경,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연 문화축제</li> <li>○ 한국문화주간</li> <li>○ 한중일 현대 미술작가전</li> <li>○ 한중 청소년 음악회</li> <li>○ 세계 바둑 최강전 지원 등</li> </ul>	
한류확산 (동경, 오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어 말하기 대회</li> <li>○ 한국가요 콘테스트</li> <li>○ 한중일 문화 심포지엄</li> <li>○ 한일 문화 교류의 밤</li> <li>○ 한일 젊은 예술가 협연 등</li> </ul>	
북미권 (뉴욕, LA,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통 문화 교실</li> <li>○ 한국문화 강좌</li> <li>○ 춤춘향 공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립학교 예술 강사 파견</li> <li>○ 한국문화워크숍 등</li> </ul>	
서유럽권 (프랑스,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영 한인작가전</li> <li>○ 템즈 페스티벌 한국 공연</li> <li>○ 한국영화제</li> <li>○ 에딘버러 프린지 한국 공연</li> <li>○ 판소리 워크숍 등</li> </ul>	
동유럽, CIS 지역 (독일, 러시아, 폴란드, 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카니발 지원</li> <li>○ 한국의 날 행사</li> <li>○ 찾아가는 한국문화</li> <li>○ 국제미술 교류전 등</li> <li>○ 서울시향 공연 등</li> </ul>	
동남아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 순회 한국영화제</li> <li>○ 이주여성을 위한 그림동화책 발간</li> <li>○ 태권도 대회</li> <li>○ 한류 공연</li> <li>○ 한-베 노래자랑 등</li> </ul>	
중남미 (아르헨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연극 스페인어판 공연</li> <li>○ 중남미 한류 경연 대회</li> <li>○ 한국 음식 경연 대회 등</li> </ul>	
중동,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소개 사진전</li> <li>○ 한국이미지 그리기 대회</li> <li>○ 한국 영화 상영 등</li> </ul>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성과지표로 과제의 주요 내용인 재외문화원 개원이 누락됨 향후 지표로 설정 필요
- 재외문화원 개원시기 지연('11년으로 연기)

※ 부진 사유

- 시드니 : 주재국 공사 관련 규제에 의해 인허가 기간 장기 소요
- 스페인 : 임차 대상 후보지 선정 지연
- 필리핀 : 문화홍보관 미배치로 사업 지연(2010.10. 부임)
- 인도네시아 : 대사관에서 문화원 별도 설립에 대해 반대하여 사업 지연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상대국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교류 행사 추진으로 프로그램 및 공연행사 만족도 및 국가이미지 제고
- 주요 선진국 이외에 동(북)유럽, 중동, CIS, 서남아시아 등 그동안 교류가 미흡했던 문화권과의 교류확대
-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문화 분야 교류를 통해 상대국과의 우호증진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부분으로의 협력 기반 강화

□ 주요 성과

- 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교류 방향 정립 및 차별화된 문화행사 계획 수립
  - 2010~2012 국제문화교류계획안 보고(5.4)
- 유럽페츠문화수도 축제, 헝가리 연극팀 초청, 한-아세안 문화 예술포럼, 인도네시아 한국문화행사 등 유럽,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문화교류확대를 통한 한국문화 해외진출 확대 및 국가브랜드 가치제고
- CIS 국가 등 제3세계 국가와의 문화교류 강화함으로써 상호 이해증진을 통한 긴밀한 관계형성 및 우호적 인적 네트워크 구성
  - 해외 청년문화봉사단 파견(CIS 지역 2개국/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 상해엑스포 계기 문화행사 및 한일축제한마당, 한중포럼, 한일문화교류회의 지원 등 중국, 일본과 상시적 문화교류협력 체계 구축

□ 잘된 점

- 사업계획 수립 시 국제교류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도 외교부, 재외공관, 국제교류 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하여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함.
- 추진계획상의 사업 일정을 모두 정상 추진하였으며, 성과지표의 목표치도 108%달성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일자리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산업계 프로젝트에 직접참여 과정 운영,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원 등으로 인력양성사업의 산업과 연계성 강화 및 활성화 추진
- 기업참여형교육과정, 게임전문인력양성, 산학연계인력양성프로그램개발 등
- 창의력 중심의 융합형 인재양성, 글로벌 마켓확장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추진
- 기획창작교육과정 운영, 전략지역전문가 연수 등

□ 주요 성과

- 기획창작분야, 게임제작분야 등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 아카데미 559명 교육운영
- 게임제작분야 취업률 95%, 게임공모전 수상 7회, 기획창작분야 ‘마노스패밀리’ 다음에 웹툰 연재, ‘여신님이 보고계셔’ CJ문화재단 ‘신인공연창작자지원’ 선정(‘11년도 공연 예정)
- 재직자과정의 경우 스마트폰, 최신기술(게임엔진 등)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전략적 수출 국가(미국, 일본, 중국)에 대한 연수과정 운영을 통한 글로벌 감각 확대
- 이현세, 이두로 화백 등이 참여한 국·내외 35개 우수프로젝트에 59명 교육생 참여를 통해 콘텐츠분야 현장전문인력 배출
- 사이버콘텐츠아카데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15,282명 교육운영
- 교육과정 통폐합, 개선으로 교육효율성 강화(155과정→62과정)

- 문화콘텐츠 학과에 실습장비, 프로그램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력양성 체제 강화
- 현장실습 34명(동의대학교, 제주한라대학), 산학협력 121명(광운대학교, 동서대학교, 제주한라대학, 한남대학교)
- 공모전 수상 ‘10년 6건(동서대학교 게임전공)
- 3개 지역(부산, 대구, 전북) 495명 대상 교육 운영지원

□ 잘된 점

- 방송, 게임, 문화콘텐츠 3개 아카데미 통합, 단일 교육체계 과정 운영으로 비용절감과 만족도 향상
- 전년도 대비 기획재정부 만족도 점수 향상
  - 2009년 77.7 → 2010년 86.4 (전년 대비 8.7점 향상)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만화, 애니메이션, 음악, 공연 등 국내 산업 취약 분야와 프리랜서 등 비정규 개발자들에 대한 인력양성 체계 미흡
- 프리랜서 등 제도권 밖의 개발자들을 위한 도제교육 시스템 지원 체계 구축
- 국내 산업 취약 분야에 대한 교육/인력 수요 파악 후 재직자를 위한 직무교육 프로그램 구성
- 창조고용의 시대를 맞아 단순 취업을 넘어 창직을 유도
- 취업의 질적 측면 및 정책의 방향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문화기술(CT) R&D 투자 확대와 R&D 혁신방안 수립을 통하여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콘텐츠 5대 강국 실현 기반 마련
- CG/3D 입체영상, 게임 등 문화기술 핵심전략분야 기술개발을 통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주요 성과

- 문화기술 R&D 투자 확대 및 R&D 혁신방안 수립을 통하여 콘텐츠산업 전반의 기술수요 가속화에 대응
  - '08년 이후 R&D 투자 대폭 확대('08년 404억원→'10년 726억원)
  - R&D 성과제고, 프로세스 선진화,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문화기술 R&D 혁신방안 수립('10.11월 장관보고) 및 시행
- 문화기술이 정부의 주요 R&D 정책에 반영되고, 국가가 확보해야 할 전략기술로서의 인식을 확산
  - 신성장 동력, 녹색기술, 융합기술,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주요 국가 R&D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

□ 잘된 점

- CG, U-러닝 등 일부 기술의 경우 세계적 수준에 근접
  - 유체시뮬레이션 등 CG기술의 국산화 및 해외 진출 기반 마련
- \* '07년 영화 '괴물' 제작시 외국기술에 의존하였으나 현재는 자체제작 가능 수준, 자체 개발한 '디지털크리쳐기술'을 삼성 갤럭시 광고, 영화 부당거래, 해결사 등의 실사와 CG합성에 적용하였으며, 괴물 후속작에도 기술 적용 중

- 온라인 캐주얼 게임 엔진 적용한 '판타테니스' 7개국 배급계약, 실감형 u-러닝 기술 적용한 교육콘텐츠 '현대영어사' 전국 1,000여개 지점에 서비스
- 융복합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 적극 추진으로 기술경쟁력 확보
  - CG/3D 입체영상, 차세대 게임, 가상현실 등 콘텐츠 핵심기술 개발(지정공모과제 46개, 자유공모과제 17개)
  - 해외 제작-유통-배급사 등과 공동으로 글로벌 프로젝트 기반의 기술개발 추진(애니메이션, 3D영상 분야 총 3개 과제)
  - 학제간 융합연구를 통한 기초·원천 연구 및 미래 신기술 개발을 위한 대학 내 CT연구소 육성지원(11개소) 및 권역별 특화산업에 기반한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지원(신규 2개 센터 지정)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문화기술 R&D 기능 및 예산규모에 비해 취약한 R&D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성과창출을 위하여 '문화기술 R&D 혁신방안' 수립('10.11월 장관보고)
- 문화부 R&D 전담부서 보강, 기획·평가·관리 등을 전담할 관리기관 신설, 대형 국책성 R&D 수행을 위한 문화기술 전담연구원 신설 추진
- 다과제 분산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지원, 기술적 성과(특허, 논문 등)보다는 산업적 성과창출을 위하여 R&D 기획-평가-관리 전주기적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추진
- 만족도 조사 실시 관련 타부처 사례조사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사방법 설계가 필요함
- IT 위주의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인문, 예술, 스토리 기획 및 서비스 R&D 등으로 확대를 통하여 문화부 고유영역 수립 필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결성 추진으로 민간자본의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유도
  - 정부출자 상한 규모 확대, 의무투자비율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문화산업분야투자 촉진 도모
- 완성보증제도, 영화대출지급보증제도 등 다양한 금융·투자 지원 정책을 통해 콘텐츠업계에 안정적인 재원 공급 기반마련

□ 주요 성과

-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결성 및 문화콘텐츠업계 투자로 콘텐츠산업 활성화
  - 모태펀드 518억원을 출자하여 7개 조합, 1,220억원 결성 운용 중
    - (\*) 총 규모 : 33개 조합, 6,063억원 규모
  - CG·3D분야를 중점 지원분야로 추가, 중점분야 정부출자 지분 상한 확대 등 콘텐츠 환경변화에 따른 핵심 분야 육성 기반 확립
- 완성보증제도 본격 실시 및 영화대출지급보증제도 도입
  - 20건의 프로젝트에 약 176억원 규모의 완성보증 실시
    - \* '09년 4건 30.6억원 보증
  - 영화대출지급보증제도 실시를 위한 MOU체결('10.12)
    - \* 영진위, 한국무역보험공사 각 100억씩 출연('10~'12), 2,000억 보증효과

□ 잘된 점

- 모태펀드 자조합 의무투자비율 강화에 따른 적극적 투자로 '09년

대비 당기순이익 및 연 투자액 증가

- \* 당기순이익 '09상반기 -40억 → '10 상반기 12억으로 흑자전환
- \* 기존에 결성된 총 자조합의 '09년 1년간 투자액 1,360억 → '10년 11개월 동안 투자액 1,497억으로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
- 콘텐츠 특성을 반영한 평가모형 활용 및 제도개선으로 완성보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반확립
  - 영화 P&A비용에 대한 우선상환 조건 완화(최대 15억원까지 인정), 내수용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한도 상향(5억→10억) 등
    - \* '10년 상반기 66.25억원에 그치던 보증실적이 '10년 하반기에는 110.38억원으로 67%이상 급증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초기단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도입(제작 초기단계 투자 조합은 자조합 선정 시 가점 부여), 그러나 여전히 초기 투자 부진
  - 제작 초기단계 투자를 중점지원분야로 추가, 정부출자비율을 70%까지 상향 필요('11년 운용계획에 반영)
- 국내 콘텐츠업체의 제작역량 강화 및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조성 필요
  - 1천억원 규모의 글로벌펀드 신규 조성('11년)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영화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다양성·예술영화 지원으로 다양성영화의 선순환구조(제작활성화-유통/배급-투자) 정착에 기여
- 예술·독립·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영화 제작을 지원하여 영화산업창작기반 구축 및 미래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 성과

- '10년 총 56편의 독립영화·예술영화 제작지원 및 안정적 상영지원을 통해 다양성영화 제작 활성화 및 한국영화 발전 기초역량 강화에 기여
  - 칸 영화제 시네마파운데이션 초청작인 독립영화 「얼어붙은 땅」, 저예산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98만 관객을 동원한 「방가, 방가」 등 작품성과 흥행성을 겸비한 다수의 역량 있는 작품 배출
- '10년 예술영화전용관지원사업을 통해 총 53개 상영관 총 11억 5,924만원 지원, 예술영화 144편 상영, 총 관람객 33만 명 기록
  - 비 상설 극장 및 다양성영화 기획전 지원으로 상영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관람객 발굴 및 다양성영화 상영 확대

□ 잘된 점

- 한국영화산업의 발전 기반인 다양성영화의 제작 → 배급 → 상영 → 부가시장 확대의 선순환구조 구축 지원을 통해 상업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한국다양성영화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 '10년 독립영화지원작 '방가, 방가',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등 역량있는 작품의 관객호응 확대 및 작품성 인정으로 지원사업의 성과 확대
  - 예술영화제작지원작으로 '10년 제 63회 칸 영화제 비평가주간 초청작인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은 대중상, 대한민국영화상 등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한국영화의 작품성 배양에 크게 기여
- 우수 역량을 갖춘 다양성영화 총 10편을 선정하여 상영관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성영화 관객저변 확대 및 안정적 상영기반 마련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전체 영화관객 대비 예술영화 관객점유율 2.5~4.5%로, 다양성영화의 협소한 관람객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방식의 다양화 요구
  - 다양성영화 개봉지원을 통해 예술·독립영화 상영기회 및 관객저변 확대
- 독립영화·예술영화전용관 중 60%가 수도권에 집중, 관람취약지역의 관객 접근성 강화 필요
  - 취약지역인 지방의 경우 프로그래밍 및 기획전 지원 등을 활용하여 지방 지역민들의 다양성영화 접근성 강화 추진
- 다양성영화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작비 지원 등 직접지원 방식에서 역량 있는 작품의 간접·사후지원 등으로 다변화 필요
- 당초 예술영화전용관에 대한 평가없이 사전에 선정심사만을 통해 운영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10년부터 예술영화전용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예술영화전용관 평가를 통해 사업운영성과와 문제점·개선방향 등을 도출하여 예술영화전용관 정책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함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우리나라 중심의 국제e스포츠 선도 및 글로벌 브랜드화 확립
  -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남미 등 전 세계 33개국이 참가한 세계e스포츠대회 개최 및 국제e스포츠 협력 기반 조성
- 온라인게임 위주의 게임산업 구조를 극복하고 차세대 게임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게임기업의 인큐베이션부터 해외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을 통해 차세대 게임콘텐츠 산업 성장 견인

□ 주요 성과

- 세계e스포츠 선도국가로 우리나라 e스포츠의 글로벌 위상 강화 및 세계e스포츠 표준화 주도
  - 유럽, 아시아, 남미 국가의 신규 회원국 가입으로 국제e스포츠 연맹 회원국 확대
    - ※ 이탈리아, 포르투갈, 노르웨이, 러시아, 이스라엘,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몰디브, 브라질 등 10개국 신규 회원 가입('09년 15개국 → '10년 25개국)
  - 정부 차원의 권위와 대표성을 가진 단체로 구성된 국제기구(국제e스포츠연맹)가 개최한 세계e스포츠대회의 성공적 개최
    - ※ 회원국(25개국) 및 비회원국(8개국) 포함 33개국 193명 선수참가(10.28~10.31, 대구광역시)
  - 글로벌 e스포츠 표준화 선도로 e스포츠 중주국 위상 강화
    - ※ 선수관리등록시스템 구축 및 경기, 인증, 종목('09년 선수, 심판) 운영 등 국제e스포츠 표준화 연구용역 수행
  -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국제e스포츠협력 지원으로 e스포츠올림픽으로 성장 기반 조성

- ※ '10. 10월 국제e스포츠연맹 정기총회 개최 25개국 회원국가 참여
- ※ '10. 10월 국제e스포츠 심포지엄 개최, 국내외 e스포츠전문가, 기자등 180여명 참여
- 국산 e스포츠종목 활성화 및 e스포츠 저변확대 등 e스포츠활성화를 위한 대통령배e스포츠 대회 개최
  - ※ 16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600여명 선수 참가(10.22~10.24, 구미시)
- e스포츠 중주국으로서 국가이미지 제고 및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세계 최초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
  - ※ '10년 12월 현재 공정율 : 19.8%
- 게임을 활용한 정규수업(G-러닝) 시범사업 추진으로 국내 공교육 정상화 유도 및 세계 교육시장 주도 기반 마련
  - 공교육 중심의 게임활용 교육을 통해 기능성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및 게임의 순기능 활성화 확대
    - ※ 8개 시범학교(서울시 발산초, 우신초, 논현초, 흑석초, 동두천중앙고, 경기도 서삼초, 강원도 노암초, 대구시 동신초) 선정, 시범사업 추진
- 기능성 게임 선도 국가 역할 수행을 위한 글로벌 기능성 게임 제작
  - 국제적 이슈인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기능성게임의 순기능 역할을 통해 환경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대처 의지 표명 및 국제사회의 기능성게임 논의구조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
    - ※ 기후변화 주제 기능성게임 'EcoFriendz' 개발, '11.1월 보급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을 통한 차세대 게임콘텐츠 산업 성장 견인
  - 차세대게임 기업 인큐베이션 지원(입주사 19개, 회원사 109개)
    - ※ 지자체 협력을 통해 19개 입주사에 대해 임대료, 관리비, 시설비 등 추가 지원
    - ※ 회원사 대상 MS 게임 개발도수 및 개발·테스트용 소프트웨어 무상 지원(28개사)
  - '2010년 차세대게임 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 과제 신규 지원(9건)
    - ※ 2차년 계속지원 개발 과제 지원(8건)
  - 전문교육기관 선정(10개기관)을 통한 차세대게임 전문인력 양성(82명)
  - 게임벤처 2.0 운영을 통한 게임 전문인력 육성·지원(19명)
    - ※ 게임개발 사무공간 및 소프트웨어 지원, 개발게임 발표회(2회)
  - 차세대게임개발 조직역량 강화(20개사)
    -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 조직진단컨설팅, 맞춤형 워크숍 등으로 게임사 역량 강화

- 게임 국내서비스 지원(20개사)
  - ※ 중소기업기업 개발 게임의 OBT 및 CBT지원, 광고 등 국내마케팅 지원
- 차세대게임 개발 경진대회(12.22/전문기술지원을 통한 10개 게임개발)
  - ※ XNA, Window Phone7, GameOven 등 플랫폼별 멘토링 형식의 게임개발 경진대회를 통해 게임전문기술 지원, 개발 게임의 상용화 지원
-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국산 게임콘텐츠 발굴 및 국내 게임산업 활성화 유도를 위한 우수게임 제작 지원
  - ※ '10. 4월, 8월 2회 실시 총 10편 시상 및 제작비(350백만원) 지원
- 학생 및 아마추어들의 창작의욕 고취, 게임 아이디어 및 게임콘텐츠 확보를 통한 창의적 콘텐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게임 아이디어 및 인디게임 공모전 개최
- 한·중 게임산업 교류활성화를 위한 한·중 인디게임 공모전 개최
  - ※ '10. 9월 한·중 게임 6편 선정 시상 및 전시
- 대한민국 게임아이디어 및 인디게임 공모전 개최
  - ※ 인디게임 공모전(일반부 '10.4월,7월,10월 3회, 청소년부 '10.10월 1회, 체험형/스마트폰부 '10.10월 1회), 게임아이디어공모전 '10.10월 1회 개최 시상 및 전시

## □ 잘된 점

-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된 국제e스포츠연맹의 신규 회원국 승인시 해당국 정부 승인을 받은 협·단체를 회원국으로 승인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 초과 달성('10년 계획 : 20~25개국 → '10년 실적 25개국)
- 그간 기능성게임은 산학 협력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였으나, 국제기구(NNEP)와의 협력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능성게임 논의구조에서 선도적인 역할 수행
- 정부의 적극적인 차세대 게임산업 육성정책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온라인게임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 산업구조 개선 및 글로벌 게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오픈마켓 등장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게임시장에 대응한 모바일 게임개발 및 관련 기업 적극적 육성 필요
- 스마트폰, 태블릿 PC 및 멀티플랫폼에 기반한 차세대게임 분야 개발 및 투자지원으로 모바일게임 해외시장 선점 필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및 하위법령공포, 차세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발표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 육성기반 마련
- 첨단 DC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체화·융합을 통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발굴로 초기시장 창출
- 콘텐츠와 기기,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한 디지털 가치사슬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기반 마련
- 모바일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 모바일 웹 표준 확산 등 선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시장 선점 및 개방적 생태계 조성
- 온라인DC 제작과 고가의 공동장비 활용서비스 인프라 지원 및 콘텐츠서비스 기술 지원을 통한 중소 DC업체의 제작활성화
- DC 거래인증, DC 품질인증,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온라인 DC거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 DB 품질진단·기술정보 제공·산학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DB 산업 발전기반 구축

□ 주요 성과

-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정 및 하위법령을 공포함으로써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법정부적 제도적 체계 마련
  - ※ 법제정(6.10), 시행령(12.10)·시행규칙(12.13) 공포
- 콘텐츠와 기기,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한 디지털 가치사슬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로 대·중소 기업 동반성장 기반 마련
  - ※ u-헬스, 관광('09), 전자출판, 3D입체 게임('10) 등 신규분야 지속 발굴

- 콘텐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3D분야 종합 육성계획 수립 등 차세대 콘텐츠 분야 성장동력 강화
- 융합형 콘텐츠 분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총 34개 과제, 120억원 지원)
  - 해외 CG 프로젝트 수주 확대('09년 190억→'10년 300억 추정)
  - 해외 CG 프로젝트 제작비 지원(10개 과제, 42.2억원)
  - AFM(미국필름마켓) 연계 상담회 개최(10개 업체, 2,400억원 수출상담)
  - 디지털 태권, VR BreakOut(비보이 뮤지컬) 등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가상현실 콘텐츠 및 소셜 네트워크형 게임(SNG) 발굴
- 모바일 앱 제작지원, 모바일OK 표준화사업지원, 모바일 콘텐츠 유통포럼 운영 등 신규시장 창출 및 기반 조성
  - 모바일 웹 표준(모바일OK) 확산 시범사업(3차년도) 추진
    - ※ 모바일OK 표준 인증 검사횟수 26,992회(12월말기준)
  - 모바일콘텐츠 글로벌 어워드 & 컨퍼런스 개최로 최신 모바일 콘텐츠 산업 동향 소개 및 우수 콘텐츠 발굴(8.30)
  - 모바일 웹 기반의 시장 창출을 위한 모바일 웹 기반 응용서비스 발굴·지원(18건)
-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설립 준비,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한 공정거래 환경조성 및 콘텐츠 거래사실·서비스품질 인증제도 확산 등 유통환경의 선순환 구조 기반 마련
  - ※ 콘텐츠 이용보호 전문상담(90건), 콘텐츠사업자 약관 모니터링(150개)
  - ※ 거래인증 참여업체(15처), 품질인증 참여업체(30처)
- DB품질진단·인증 및 DB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고시) 제정 등으로 DB산업 발전기반 구축
  - ※ 「데이터베이스 품질 인증제도」 운영 지침 고시(10.8)
  - ※ DB품질진단·인증 현황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품질진단	7종 (3개기관)	10종 (10개기관)	23종 (20개기관)	27종 (27개기관)	16종 (16개기관)	17종 (16개기관)	15종 (15개기관)	20종 (20개기관)
품질인증								7개기관

## □ 잘된 점

- CG, 가상현실, 가상세계 등 융합형 콘텐츠 초기시장 창출

### 〈융합형 콘텐츠 분야 성공사례〉

- 우리 CG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평균 40% 이상의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영화 CG 시장 진출 확대
  - \* 천녀유혼, 백사전설 등 대작영화 CG 프로젝트 수주('10년 총 92.5억원 규모)
- '다이노키즈'는 국내 가상세계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보여줌
  -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10여개국에서 등록회원 57만명, 월 방문자 5만명('10.9월 기준)
  - \* 다이노키즈 :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에서 개발한 어린이 대상 영어 온라인 가상세계 서비스
- 스크린골프의 성공으로 가상현실 콘텐츠의 신시장 창출 가능성 확인
  - \* '골프존'('10년 매출액 2천억원)은 국내 시장의 80%를 점유하며, 1만5천명 고용창출
  - \* '디지털 태권', 가상현실 기술을 접목한 공연 'VR BreakOut' 등 후속 콘텐츠 개발중
- 콘텐츠 이용보호센터 활성화를 통해 공정거래 환경 조성에 기여
  - 홈페이지 운영 및 콘텐츠 사업자·이용자 대상 이용보호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콘텐츠 이용보호 전문상담 횟수 비약적 증가
    - ※ '09년 전문상담건수 90건에서 '10년 734건으로 815.6% 증가

## 33 불법 저작물 단속 및 유통활성화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을 위한 전략적 수사·강화된 단속을 추진하여 100대 국정과제인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보호」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특히, 온라인 상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기반 조성에 기여
  - \* 2년 연속 미 무역대표부(USTR)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
-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및 저작권 인증제 도입을 통해 안전한 저작물 거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고, 온라인상 저작권 이용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및 저작권 자유이용사이트 기능 개선을 통해 국민의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

#### □ 주요 성과

- 웹하드·헤비업로더에 대한 기획수사, 헤비업로더에 대한 세계 최초의 계정정지명령 등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사법적·행정적 단속을 강화
  - 웹하드 16개, 헤비업로더 209명 검찰 송치, 헤비업로더 11명에 대한 계정정지명령 처분
  - 웹하드 4개, 헤비업로더 10명의 범죄수익금 39억 7천만원을 밝혀내 몰수·추징 의견 검찰 송치
- 저작권 침해사범 사법처리 건수, 불법복제물 시정권고 및 삭제 조치 등 전년 대비 양적·질적으로 많은 성과 거양
  - 특별사법경찰의 사법처리: '09년 312명 → '10년 539명
  - 시정권고: '09년 3만 5천 건 → '10년 8만 5천 건

-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및 활성화
  - “저작권 등록제도 및 절차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 추진 및 일반 저작물과 프로그램저작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온라인 등록 시스템 통합으로 절차 및 제도 개선 수행
    - 실시간 등록정보 조회 및 검색서비스 제공, 저작권등록공보 게시
  - 공모전 주관기관 등 27개 기관에 대한 등록제도 방문홍보를 통해 저작권 등록 활성화 유도(‘10년 등록건수 약26,000건 달성)
-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의 단계적 도입 - 고아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추진
  - 법정허락제도 개선방안 마련 : 현행 60일 정도 소요되는 법정허락 절차 및 기간 단축 방안 마련(‘11년중 시행령 개정 추진)
  - ‘고아저작물’ 대상 권리자 찾기 사업 실시
-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실시
  - ‘10년 12개 단체 대상 업무점검 완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상 실지감사 실시(‘11.1월중 결과통보)
  - ‘공공저작물’ 분야 신탁허가단체 변경 추진
- 저작권인증제 본격 도입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저작권인증제도 본격 추진을 위한 저작권 인증업무 지침 고시(11.8,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36호)
  - 저작권 인증 업무를 수행할 저작권 인증기관의 지정·관리지침 제시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확대
  - 표준계약서 사용 및 계약 절차 간소화를 적용한 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확대를 통해 편리한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
- 저작권프리사이트 기능개선 및 서비스 강화를 통한 저작물 이용 확대
  - 자유이용저작물 DB 추가 구축(332건)
  - 자유이용사이트 UI 개편 및 검색기능 보완 등을 통한 이용편의 제공
  - 어문분야 향후 10년간 저작권 만료 예정 저작물 조사
  - 만료저작물 패러디 이벤트 개최(366편 참가)

## □ 잘된 점

- 불법복제물 단속의 적시성·효과성 강화
  - 대학가 개학 시즌을 맞아 불법복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 전국 400여개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
  - 서울 및 수도권지역 불법복제물 집중단속(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 온·오프라인상 불법 게임물 특별단속
-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사범(웹하드, 헤비업로더) 기획 수사
  - 웹하드 대표자 4명, 헤비업로더 48명 검찰송치
  - 웹하드와 헤비업로더, 클럽운영자간 검은 유착관계를 밝혀냄
  - 웹하드 대표자 4명, 헤비업로더 10명의 범죄수익금 39억 7천만 원 몰수·추징의견 검찰송치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헤비업로더 시정명령 등 시행
  - 통합 저작권법 시행 이후 48개 OSP에 대하여 750건의 시정명령을 처분하였으며, 특히 세계 최초의 계정정지명령(11건)에 대해 해외에서 높은 관심 표명
  - 불법복제물 심의시스템을 자동화하여 85,085건이 시정권고 집행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근무 요원을 증원(26명→66명)하여 단속을 대폭 강화하였음
- 저작권 등록업무 환경 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서비스 실명제, 서류 간소화,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 등 고객 중심 서비스 개선
  - 저작권 등록 분야 고객만족도 지수(PCSI) 전년 대비 대폭 상승(‘09년 73.8점 → ‘10년 81.2점)
-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고아저작물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ECL 대안제도 마련(법정허락제도 개선안)
  - ECL 도입에 대한 제도적 충격 완화를 위한 단계적 도입 전략
- 신탁단체 업무점검의 효과적 추진
  -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정보센터 관련전문가 참여 등 업무점검

반의 전문성 제고

- 저작권 인증업무 지침 고시 및 인증기관 지정기준 제시로 저작권 인증제도 도입 기반 조성
  - 권리자단체, 학계, 저작권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저작권인증 활성화 TF 운영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고시 등 관련 기본 지침 마련 및 조기정착 제고
-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확장 및 저작권 프리사이트 실효성 제고를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증대
  - 저작권라이선스관리시스템 이용계약건수(561건) 목표 388건 대비 144% 달성
  - 자유이용저작물 이용활성화(건수) 성과지표의 목표치 103,000건에 대해 377,375건(12/26 현재)으로 366% 초과 달성
- 공유저작물 관련 홍보 및 이용자 편의 제공에 초점을 맞춘 프리사이트 개편으로 공유저작물의 이용 증가
  - 자유이용저작물 이용건수 약 400% 증가
  - '09 : 92,643건, '10 : 377,375('10.12.26기준)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저작물 장르별 균형있는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인력 및 조직의 확충 절실
  - '11년 상반기 중에 특사경 지역사무소 2개소(경인, 대구) 추가 설치·운영('11년 정원 및 예산에 반영)
  - '12년에 2개 사무소 증설, 10명 증원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계획
- 사후 단속 형태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근절 노력의 한계와 이와 관련한 웹하드 등록제 도입 필요
  - 저작권 보호의지 및 기술적·재정적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웹하드 영업을 허용하는 웹하드 등록제 도입 필요
  - 국회에 계류 중인 웹하드 등록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

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통과되도록 적극 추진 계획

- 저작권 등록 절차 및 제도개선 추진의 필요성
  - 형식심사인 저작권 등록제도의 악용사례 발생, 허위 등록이 명백한 건에 대하여 등록기관이 이를 인지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직권말소제도' 도입 추진
    -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개정 저작권법안 제출, 국회 심사 중
  - 등록심사시 중복등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1년 '저작물 비교·검색 시스템' 구축 추진
  - 매년 증가하고 있는 등록 신청건수의 신속·정확한 대응방안으로 전문화된 인력을 갖춘 등록업무 실무조직 확충 필요
- 저작권 처리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저작권관리번호 활용 및 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이용의 효율성에 대한 홍보 강화 필요
- 신탁관리 또는 보상금과 관련없는 권리 소재가 불명확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 간소화 방안 강구 및 관계자 공감대 형성 필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일반인, 산업체 종사자, 교원 등 대상별 맞춤형 저작권 교육운영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실시 등 다원화된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선진화된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체제 구축
  - 대상별 교육 교재, 온라인 교육 콘텐츠 신규 개발 및 리뉴얼 작업 추진을 통하여 다양하고 세분화된 교육 수요 충족
  - 저작권 노래 등 다양한 저작권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 각종 미디어를 통하여 보급하고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등 온·오프라인 캠페인 추진으로 저작권에 대한 국내외적 긍정적 이미지 제고
- 해외저작권 보호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해외 현지 불법 저작물 유통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한류 거점 지역(중국 북경, 동남아 방콕)에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저작권 보호 상시 지원체계 구축
  - 현지 법률사무소 등과 연계하여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 컨설팅 지원 및 구제조치 실시
  - 한·중, 한·일, 한·동남아 국가 간 국제 저작권 포럼 개최,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 교환 및 현안 발굴로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관계 구축
  - Annual Report 국·영문 홍보자료 발간·배포 등 현지 홍보 활동 강화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법 제도 개선(국회 제출)
  -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불법복제물 유통 차단 및 법적 명확성 확보를 위해 사적복제 규정 정비
  - 허위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단속 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관련 단체에 기술적 자문 등과 관련된 필요한 협조를 요청 지원 근거 마련

- 한-EU FTA 합의 사항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국회 제출)
  - 방송사업자의 공연권 도입 등 동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
- 저작권 제도 연구 및 포럼 개최
  - 저작권 이슈를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요현안 논의(총 12회 : 라운드 포럼 6회 / 오픈 포럼 6회)

□ 주요 성과

-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저작권 교육 확대 시행
  - 교과내용 연구(실험본 국정도서 초등 5·6학년 국어, 도덕, 사회)
  - 교과서 집필진 대상 워크숍 개최('10. 4 ~9, 3회)
  -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10.1 ~ 12, 50개교)
  -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10.3 ~ 11, 198개 교실)
  - 저작권 연극단 운영('10.12, 20개교)
  - 저작권 교육콘텐츠 리뉴얼('10.12, 3종 59차시)
- 청소년 및 일반인 대상 저작권 표준교재 개발('10.12, 3종)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운영('10.1 ~ 12, 75회, **3,444명**)
  - 전국문예회관연합회과의 MOU 체결('10. 3) 및 교육 대상자 관리 시스템 개발('10. 11)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2,459회, **282,856명**)
- 다양한 분야의 저작권 인적 자원 개발 및 체계적 교육 운영
  -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운영('10. 4 ~ 12, 32회, **4,344명**)
  -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인가('10. 7, 교과부)
  - 경기도교육청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과 MOU 체결('10. 10, 11)
  - 온라인 저작권 교육콘텐츠 개발('10. 12, 4종)
  - 사이버 저작권 전문 교육 콘텐츠 개발('10. 12, 3종 18차시)
  - 저작권 실무자 표준교재 개발('10. 12, 5종)

- 저작권 전문교육과정 개발('10. 12, 1종)
- 저작권 문화학교 운영('10.6 ~ 12, 총 3회, **69명** 수료)
- 저작권 아카데미 운영('10.6 ~ 12, 총 10회, **202명** 수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수원과 MOU 체결('10. 11)
-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 저작권 실무자 연수('10.10 ~ 11, 총 2회, **46명**)
- 저작권 교육 포럼('10.8 ~ 12, 총 6회)
- 저작권 교육단 69명 운영('10.9 ~ 11, 총 2회)
- 저작권 청년강사 39명 양성('10.6, 12, 총 2회)
- 저작권 전문교원양성 과정 운영('10. 7, 1회, **38명**) 및 교원연수 담당자 저작권 교육 워크숍 개최('10.3, '10.8, 2회)
- 교육연수원 확대 발전 방안 연구('10.12, 1종)
- 생활밀착형 저작권 인식제고
  -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10주년 기념행사 개최(4.26, 언론홍보 196건)
    - 10주년 기념 좌담회(4.22, 전자신문)
  - 매월 26일 저작권 보호의 날 온라인 캠페인(7회, 66,075명 참여)
  - 저작권 대학생 챌린저 운영(50명, 5~8월)
  -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개최(7~11월) 및 저작권 포스터·표어·카툰 공모전 개최(7~11월),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 논문 공모전 개최(4~12월)
  - 중학생 대상 저작권 퀴즈대회 개최(4~8월)
  - 저작권 어플리케이션 및 캐릭터, 노래 개발(5종)
  - 저작권 노래 활용 및 보급
    - 가요프로그램 내 캠페인송 송출(10회, 8~11월)
    - 예능프로그램 엔딩 캠페인송 송출(11회, 8월)
    - WIPO 등 해외 관련 기관에 DVD 제작·보급(영어, 중국어, 태국어, 6~8월)
  - 저작권 다큐멘터리 및 뮤직비디오 DVD 제작·보급(5~6월)
    - 전국 초·중등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 DVD 제작·보급(11,857개 기관)
- 해외 저작권 보호전략 수립, 해외사무소 기능강화 및 확대 등을

- 통한 해외 저작권 합법 유통 기반 조성 및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
- 해외 저작권보호 중장기 로드맵 수립('10.4) 및 중국 상해지역 저작권 전문관 파견('10.10)
- 해외 저작권 권리확인 인증(1,853건),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컨설팅(368건) 실시를 통해 해외 진출 콘텐츠 업체 지원 강화
- 중국 증거보전, 경고장발송 및 행정처벌 신고 등 구제조치 지원 강화 및 중국,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국저작권물 온라인 침해 모니터링 수행 등
- 저작권 국제 네트워크 협력 확대를 통한 해외 저작권 교류·협력 강화
  - 한·중 저작권 포럼('10.6), 한·말레이시아 저작권 교류협력 워크숍('10.8), 서울, 한·일 저작권 포럼('10.10), 한·태 저작권보호 협력포럼('10.10), 한·베트남 저작권 워크숍('10.11) 등 개최
  - 말레이시아 상무부 장관 방문('10.5), 파라과이 고위 공무원 방문('10.12), WIPO Study Visit 2010 개최('10.11)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국제 교류·협력 기회 마련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법 제도 개선
  - 입안 : '10. 2월
  - 부처의견조회 : '10. 2. 16 ~ 26
  - 입법예고 : '10. 2. 19 ~ 3. 11
  - 규제 심사 : '10. 3. 17
  - 법제처 심사 : '10. 6. 3 ~ 8. 2
  - 차관회의 : '10. 8. 12
  - 국무회의 : '10. 8. 16
  - 국회제출 : '10. 8. 26
- 한-EU FTA 합의 사항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 입안 : '10. 8월
  - 부처의견조회 : '10. 8. 26 ~ 9. 6
  - 입법예고 : '10. 8. 31 ~ 9. 9
  - 규제 심사 : '10. 9. 8

- 법제처 심사 : '10. 9. 10 ~ 9. 14
- 차관회의 : '10. 9. 16
- 국무회의 : '10. 10. 5
- 국회제출 : '10. 10. 28
- 저작권 제도 연구 및 포럼 개최
  - 라운드 포럼 총 6회 (1, 3 5, 7, 9, 11월)
    - 익월 포럼 주제 선정 및 전월 포럼에 대한 평가
  - 오픈 포럼 총 6회 (2, 4, 6, 8, 10, 12월)
    - 제1회(2월) : 전자출판과 저작권
    - 제2회(4월) :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 제3회(6월) : 스마트폰과 저작권
    - 제4회(8월) : 이러닝과 저작권
    - 제5회(10월) : 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 제6회(12월) : 디지털 환경에서의 실연자의 법적지위

#### □ 잘된 점

- 대상별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통한 대 국민 저작권 인식 제고
- 워크숍 개최 및 MOU 체결 등 원활한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력 체계 구축
- 세계지적재산권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저작권 선진국으로서 국내·외 위상을 높였으며, 저작권 노래를 공중파TV 및 온라인·모바일 매체 등에 적극 홍보하여 전 국민 대상의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 및 인식 확산에 기여
- 해외 저작권보호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해외사무소 확대 전략 등 효율적·체계적인 저작권 보호 지원 기반 마련 (중국 상해 주재원 파견, 미국사무소 신설 검토)
- 저작권법 제도 개선

- 정당한 권원(權源)으로부터 파생된 저작물의 복제만을 사적복제의 면책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종전법의 해석상 논란 해소 및 온라인을 통한 광범위한 불법복제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데 기여하고,
- 법원의 확정 판결 등을 거치지 않고 간편한 행정절차를 통하여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부실한 권리 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등 권리 처리를 신속·명확히 하여 저작물 거래 안전 확보와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기여
- 또한, 저작권 선진국과의 FTA 체결 및 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 제고
- 저작권 제도 연구 및 포럼 개최
  - 저작권 현안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논의함으로써, 저작권 주요 현안에 대한 사전 대처 및 해결방안 모색
  -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쟁점 현안에 대한 내실 있는 토론 가능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지방 저작권 교육 확대 방안 및 대학생, 공무원 대상 특화된 저작권 교육 과정 개설 필요
-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정책 대상을 유아 및 아동까지 확대하여 저작권이 학습이나 교육이 아닌 인성, 의식 차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이에 '11년도에 저작권 창작동화 공모전을 통해 수상작을 창작동화집(유아) 및 플래시애니메이션(아동)으로 제작·보급할 계획임
- 글로벌 해외 저작권 보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류 콘텐츠 저작권 통합 지원체계인 '(가칭) CC센터(Contents & Copyright Center)' 운영 계획에 따른 미주지역 해외사무소 등 신설

- 국제포럼 등 주요 국제행사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행사 준비 기간이 촉박하였으므로 균형 있는 행사 분배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
- 공개포럼 개최 시 발제 자료의 확보 시점이 시급하여 활발한 토론 유도에 한계
- 향후 발제 자료를 공개포럼 2주 전에 확보, 토론자에게 전달 하여 생산적 토론 유도

## 35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디지털 기술발전과 뉴미디어 등장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인쇄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통합기구 출범, ABC 부수 공개제도 시행, 법제도 정비, 안정적 재원 확보 기반마련, 뉴미디어환경 대응 사업개발 등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 및 성과 발생

#### □ 주요 성과

- 언론진흥 정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언론관련 통합기구를 출범시켜 조직운영의 효율성 높이고, 정책추진 실행력 및 효과성 제고
  - 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언론진흥기금을 설치·운영('10. 1. 4)
- '09년 ABC 제도 시행후, '10년 신문사 참여율을 높이고 신문부수 공사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BC 제도 조기 정착을 추진
  - 일간신문사 158개사 참여, 2009년도분 신문부수 공사보고서 발간('10. 12. 10)
-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등에 대한 준수 여부 일제 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 언론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여건 마련
  - 일제 조사('10. 10. 18 ~ 11. 18), 미이행기관 지적 및 개선요구 추진
- 언론의 자율성 확대 및 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지역신문 진흥을 위한 법체계 정비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10.1.27)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개정(6.10) 및 동시행령 개정(9.20)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 조성과 기금 지원의 안정성 확보  
- (당초) '10. 9. 22 → (변경) '16. 12. 31 (6년 연장)

-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다양성 보장 및 진흥을 위해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설치·운영('10. 3. 18)
  - 언론계의 자율규제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온라인뉴스 공간의 뉴스생산과 유통·이용에 대한 신뢰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대응책 모색
  - 뉴스콘텐츠 유료화 환경 조성을 위한 뉴스저작권 사용 홍보강화 및 뉴스저작권 시장 활성화 추진('10년 45억)
  - 신문산업의 뉴미디어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통합뉴스룸, 뉴스 ML사업, 뉴스콘텐츠통합운영관리시스템 시범사업 등 추진
    - 통합뉴스룸 SW 지원(9개사), NewsML 구축지원(11개사), 뉴스콘텐츠통합운영관리시스템(9개사)
  - 소외계층 대상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외계층 정보 접근성 높이는 한편, 신문산업 지원효과 동시 달성
    - (언론진흥기금) 17종 신문, 2,393처, 총 72,333부 지원
    - (지역신문발전기금) 67종 신문, 32,522처, 총 365,028부 지원
  - 미래 신문 독자개발을 위한 NIE 교육사업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종합적 사고 배양 및 친사회화 능력 및 신문활용능력 향상
    - 신문제작 체험교육(101개교, 2,046명), NIE 수업지원(179개교, 12,670명), 지역신문 NIE 교실(31개교, 1,151명)
  - 농어촌 등 배달 취약지역 공배센터 확대 및 공동수송사업 추진 등 신문유통 인프라 확대
    - 공배센터 76개소 신규개설, 신문 공동수송 52개 노선 지원
- ※ '10.12.31. 현재, 총 738개 공배센터 개설(직영 22개소, 민영 536개소, 소형 180개소)

## □ 잘된 점

- 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 제도, 조직 등 핵심 기반사업 추진
  - ABC 제도 조기 정착,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 언론진흥재단을 출범 등 추진

- 신문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 진단 및 처방 마련
  - '신문산업위기극복대토론회' 개최를 통해 문제점 진단 및 극복방향 수립
- 뉴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사업 발굴·추진
  - 뉴스유료화 환경 조성 및 뉴스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 시범지원 등 추진
- 신문 유통인프라 확대 및 경영 효율화 달성
  - 직영공배센터 폐쇄하여 비용은 절감하고, 공배센터 및 공동수송노선은 확대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제3기 지역발전위원회 발족 지연
  - 국회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제2기 위원회 임기가 종료('10. 9월) 후 바로 출범하지 못하고 '10. 12월에 구성·출범
- 일부 사업 당초 추진일정 변경 추진
  - 정책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 추진일정의 조정 시행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글로벌 콘텐츠 강국 빅5'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송콘텐츠의 다양한 장르별 지원과 경쟁력 확보에 노력
- 한류확산을 위한 대작킬러콘텐츠와 역량 있는 중소규모 제작사의 우수한 중저예산 콘텐츠를 발굴, 제작 지원함
- 제작 지원 이후에도 △지원과제별 중간실사를 통해 과제 수행의 상황을 점검 △업체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제작 지원사업 관련한 의견 수렴 △완성된 콘텐츠의 상품화를 위한 컨설팅과 완성작품의 상영회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 기획·제작·유통 전반의 창작 기반 구축에 노력
- 성과지표에 의한 사업 결과
  - 금년부터 신규 적용되는 성과지표인 '방영율'은 전년도까지의 성과지표였던 '완성화율'에 비해 매우 적극적인 지표로서 투입대비 실적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결과지향형 지표로 사료됨
  - 지원업체 선정시 방영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작품의 선정을 통해 최근 3개년('08년~'10년) 평균 방영율 60%를 달성하였음.('08년: 61%, '09년: 59%, '10년: 61%)

□ 주요 성과

- 정량적 평가
  - 성과목표인 지원작품 방영율은 최근 3년간 평균 60%를 달성하여 선정된 작품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상품화 및 유통관리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63편 방영 / 104편 지원)

- 2010년 지원작품의 완성율은 98%를 달성하여 지원작품의 선정과 제작관리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57편 완성 /58편 지원)
- 정성적 평가
  - '09년부터 글로벌 마켓 진출을 목표로 한 미니시리즈 및 대작 다큐멘터리 부문 지원 추가, '10년 미니시리즈 4편(총 20억원), 대작다큐 5편(총 8억원) 지원
  - '10년부터 연출자, 작가, 연기자 신규 인력 등용을 위한 단막극 제작지원을 시작하여 총 144명(편당 9명)의 신규 방송 인력 진출 활성화(16편, 총 10억원)
  - 창의적인 중저예산 다큐멘터리 28편 발굴, 제작지원(총 13억원)
  - 성장잠재력이 큰 3D콘텐츠 4편 제작 지원으로 제작 노하우 습득과 영상 고급화에 기여(총 3억원)

□ 잘된 점

- 미니시리즈 '로드넘버원'은 일본에 편당 12만불에 판매되는 등 해외판매 호조(수출 시장에서 미니시리즈의 일본판매금액 상한액은 편당 10만불)
- 단막극 제작지원을 통해 지원선정작 16편 중 12편이 지상파 방영되고 방송사의 단막극 제작과 편성 재개에 기여
- 지원 완성작에 대한 상영회와 제작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업체간 사업성과 공유를 통해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작품 홍보를 통한 매체 편성 지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완성된 작품의 저작권을 방송사가 소유하는 행태 개선 필요
- 작품심사 시 방영계약서 등 방송사 편성에 가점을 부여함에 따라 대부분 지원 작품 저작권도 방송사가 최종 소유
- 방송사 편성 관련 서류 제출 요건을 폐지하고, 제작사 저작권

확보 계획서 심사

- 스태프, 보조출연자의 인건비 우선 집행 확대 필요
- 한국방송영화공연예술인노동조합(한예조)의 소속 연기자 파업, 드라마 출연거부 등 체불임금의 상황 악화
- 장르별(미니시리즈·단막극 등) 인건비 적정 사용비율 산출 후 지원금에 대해 임금 우선 집행 협약

## 37 출판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지식산업의 핵심적 요소인 출판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시행령 개정, 파주출판단지 2단계 조성 사업 추진, 전자출판산업 육성 방안 마련
-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우수도서 선정·배포 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 추진으로 출판산업의 활성화 및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

#### □ 주요 성과

- 국내 출판물 홍보 및 저작권수출 활성화로 출판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도서전 한국관 참가
  - 서울국제도서전 개최('10.5.12~16), 해외도서전(타이페이, 볼로냐, 케이프타운, 북경, 프랑크푸르트) 5개국 참가 지원
- 우수도서 선정·구입을 통한 학술출판 활성화와 출판산업을 지식문화산업의 핵심기반산업으로 육성
  - 우수학술도서 선정·배포: 202개 출판사의 도서 386종 235,748권 선정, 공공도서관 등 970개처 배포
  - 우수교양도서 선정·배포: 254개 출판사의 도서 405종 197,169권 선정, 작은 도서관, 도서벽지학교 등 1,889개처 배포
- 전자출판 산업 육성방안 발표('10.4.26)
  - 미디어 환경변화 및 기술개발 등에 따른 전자출판산업 육성을 위한 5대 추진전략 15대 과제 추진
- 전자출판산업 육성을 통한 출판 산업 다변화와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우수전자책 제작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 대한민국 디지털작가상 공모를 통한 수상작(8편)에 대한 전자책 제작 및 유통 지원
- 파주출판 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산업의 복합공간으로 조성
  - 1단계 산업용지에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입주 허용('10. 9. 24)
    - 국토부, 지정부, 경기도, 입주업체 협의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2단계 산업용지 우선 분양 대상 협동화사업 평가 선정('10. 10. 1)
    - 입주(174,364㎡)신청 → 평가위 평가 → 87개사 입주 계약 완료
  - 2단계 기반 조성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09~'11년 : 현재 45% 추진)
- 출판문화산업의 지원. 육성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체계 개선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10.6.18)
  -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10.7.1)
- 출판법령에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규제 도입
  - 공정위의 소비자 경품규제가 폐지('10.6.30)됨에 따라 간행물에 대해서 무제한 경품 제공이 가능해져 도서정가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출판법령에 경품규제 도입

## □ 잘된 점

- 출판산업의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
  - 서울국제도서전을 통한 국민독서환경 조성 및 저작권 수출 증대
    - 도서전 관람객 증가(총입장객 120,020명/ 전년대비 8.6% 증가)
  - 우수작품 번역 및 대표작가 교류지원을 통한 한국문학 인지도 제고
    - 번역지원(11개 언어권, 24건), 번역도서 보급(70개처, 6,500부)
    - KLTi 포럼 개최(6회), 대표작가 창작활동 지원(1회)
- 우수도서 선정·구입을 통한 학술출판 활성화와 출판산업을 지식문화산업의 핵심기반산업으로 육성
  - 우수도서 선정·배포사업을 통해 국민독서문화 향상을 기하고 문화격차 해소를 통한 전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전자출판 산업 육성방안 발표('10.4.26)
  - 전자출판 정책연구 TF('09.10.~'10.1월), 전자출판 육성방안 관련 토론회 개최('10.2.5), 전자출판과 저작권 포럼('10.2.25) 개최 등 출판계, 유통사, 관련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육성방안 마련
- 출판문화산업의 지원. 육성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
  - 공정위의 소비자 경품규제가 폐지('10.6.30)됨에 따라 간행물에 대해서 무제한 경품 제공이 가능해져 도서정가제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출판법령에 경품규제 도입
- 파주출판단지를 협동화사업계획에 따라 분양 추진하고 문화산업용지로 활성화하기 위해 관리기본계획 변경
  - 출판, 인쇄, 영상, 소프트웨어 업체가 협동화사업계획을 사전에 마련하여 균형 있는 업종 위치 배정, 용지 분할 등 계획적 조성 기반 마련
  -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경기도, 파주시, 파주단지입주업체 등과 협의하여 파주출판단지를 문화산업단지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판, 인쇄업종 외에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정책사업 추진에 출판계의 의견을 좀더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할 필요
  - 수시 현장방문 의견 수렴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콘텐츠 업계의 해외진출 시 필요한 정보, 컨설팅,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종합지원 인프라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주요 성과

- 국내외 콘텐츠 산업 동향, 이슈 정보 등 콘텐츠 산업 심층 정보 제공

구분	'10 정보제공 건수
해외시장동향	10,809건
국내외 콘텐츠기업 DB	929건
다국어사이트 국내 콘텐츠기업 DB	431건
<b>합계</b>	<b>12,169건</b>

- **콘텐츠산업정보포털 통합을 통해 정보 접근성 강화**
  - 콘텐츠 해외진출 정보의 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정보제공사이트([www.koreacontent.org](http://www.koreacontent.org))를 콘텐츠산업정보포털([www.kocca.kr](http://www.kocca.kr))로 통합 구축('10.5.7 포털 오픈)
  - 회원 수 약 15만명, 등록 콘텐츠 약 23,000여 건
- **글로벌콘텐츠센터**를 통한 **상시 상담**과 함께 해외진출시 꼭 필요한 인프라인 **현지화, 홍보, 컨설팅, 마케팅, 법무지원** 실시
  - 해외진출 집중지원 지원 : 총 20개 과제
  - 마케팅 및 법률상담 지원 : 총 120건 ※'10.1.1~'10.12.1 기준
  - 현지화 지원 : 총 28개사 40개 과제
  - 해외지적재산권 관련 법무지원 : 총 38개 과제
- **유관기관/업계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출지원 강화**
  - 수출지원기관 협의회 : 총 6회 개최

- 해외진출 진흥을 위한 세미나 및 교류회 : 총 3회 개최
- **국제콘텐츠컨퍼런스(DICON) 개최**
  - 참가자수 전년 대비 1.85배 증가(5,717명)와 311건의 상담실적 창출
- **대한민국 콘텐츠 해외진출 유공자 포상**
  - 대통령표창 2건, 국무총리표창 2건, 장관표창 4건, 콘진원장상 2건 등 총 10건 시상
  - ※ 대한민국 콘텐츠 어워드도 통합 시상식 개최

□ 잘된 점

- 콘텐츠 장르별 산업정보를 콘텐츠산업정보포털([www.kocca.kr](http://www.kocca.kr))로 통합 구축·운영을 통한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정보 제공
- 해외사무소를 거점으로 해외 콘텐츠산업동향과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
- 컨설팅, 홍보, 번역 등 단발성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실질적인 해외진출 지원방안 시행
- 수출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협의회 개최를 통해 기관간 업무공조 및 콘텐츠 지원사업 강화 기반 마련
  - 문화부, KOCCA, 관광공사, 저작권위원회, 영진원, KOTRA, 중소기업중앙회, 한류재단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협력사업 추진
- 콘텐츠 홍보 강화
  - 핵심시장(미국) 콘텐츠 홍보 강화(기획기사, 온라인, 옥외 등)
  - GCC 사업안내 및 성과 언론홍보(일간지, 12월)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상시컨설팅 전문인력 강화를 통한 업계지원 강화
  - 마케팅, 법률 전담 상담인력 및 인포데스크 관리인력 확보
  - 외부 자문단 운영시스템 개선(성과, 활동 등)
- 해외진출 집중 지원은 업체의 마케팅 계획에 의거 연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

- 해외사무소 및 해외 유관기관(해외 업무협력사)과의 연계 강화
  - 해외사무소는 물론 KOTRA, 현지 기관(문화원, 관광공사 등)과의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 대한민국 콘텐츠 해외진출 유공자
  - 시상식 통합에 따른 시상규모 조정 필요성 제기
- 2010년 10월 개최 예정이었던 '한중일문화콘텐츠산업포럼'이 중국·일본의 외교마찰로 인해 2011년 3월로 연기

## 39 한국영화 해외진출 확대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해외 세일즈사 필름마켓 참가지원 및 칸·베를린·베니스 국제영화제 등 주요 국제영화제 참가지원, 한국영화 홍보 강화 등 한국영화 해외진출 활성화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 다각화
- 지역별 관객층에 따라 차별화된 해외 상영행사 개최를 통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한국영화 해외진출전략 추진 및 한국영화 해외극장개봉지원을 통해 한국영화 구매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잠재적 바이어 발굴, 해외 관객층 저변확대 도모

#### □ 주요 성과

- 국내 우수 한국영화의 칸·베를린·베니스 등 주요 국제영화제 참가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해외진출 기반 마련
  - 총 11개 영화제 28편 55,477,000원 지원(총 28명)
- 한국영화 세일즈사 및 후반작업 업체에 대한 베를린, 홍콩, 칸, 끌레르몽페랑, AFM 등 국제 필름마켓 참가지원을 통한 한국영화 해외진출 확대
  - 상담건수 2,425건, 계약건수 457건, 계약체결 9,829천불 달성
- 해외사무소(미국, 중국) 및 해외주재원(일본, 프랑스) 운영 개선
  - Ko-Production 행사의 사전 비즈니스 미팅 매칭, 한국영화 상영 프로그램 진행 등 한국영화 현지 프로모션 사업 강화
  - 주요 전략지역의 영화산업동향 파악을 통한 정책정보 확보 및 해외 현지 진출 업체, 인사 등과의 현지 네트워크 강화
- 온라인 비즈니스센터(kobiz) 구축을 통한 해외영화정보와 글로벌

사업지원, 모바일/SNS 기반 한국영화 프로모션 시스템 확립

- 영화 '베스트셀러' 등 장르 패키지(한국 공포·판타지) 총 8편 37벌 다국어 자막 제작·활용도 제고를 통해 한국영화 해외상영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국제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KO-PRODUCTION 사업을 통해 국제공동제작프로젝트 비즈 매칭, 후반제작업체 프리젠테이션 및 국내 로케이션 설명회 추진
  - 프랑스 파리, 중국 상해, 북경, 일본 동경, 미국 LA의 4개국 5개 도시 추진
- 한국영화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전략, 해외마케팅, 기획개발 등 주제 강연, 해외전문가 초청 로케이션 피칭을 위한 '한국영화 글로벌마켓 진출을 위한 전략포럼' 개최('10.8월, 총 380명 참가)

#### □ 잘된 점

- 한국영화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해외진출전략 수립을 통해,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맞춤형 사업 추진
  - 북미 지역은 '로케이션 및 후반제작 프로모션', 중국과 일본 지역은 '프로젝트 및 후반제작 비즈 매칭', 유럽 지역은 '영화제 기반 한국영화 수출지원 및 프로젝트 중심 비즈 매칭'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한국영화 수출지원 전략 다각화를 위해 기존 '해외 세일즈사' 지원 중심에서 '세일즈,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보유 제작사, 영상위원회' 등 제작 프로세스별 고객으로 차별화 지원
- 지역별 KO-PRODUCTION 사업으로 완성작품 수출방식에서 사전 기획, 투자유치, 로케이션 촬영, 후반제작 지원으로 해외진출지원 사업 고도화
- 해외 영화제 프로그래머 초청시사 등 전략적 한국영화 상영회를 통한 한국영화 홍보 강화

-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감독 장철수)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 출품지원(세계 30여개 영화제 초청, 7개국 해외 세일즈, 5개 영화제 수상)
- 온라인 비즈니스센터(kobiz) 구축을 통한 모바일/SNS 등 최신 디바이스 기반 한국영화 프로모션 시스템 확립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한국영화 해외 수출실적 집계 범위를 완성작 수출에서 서비스 분야(후반제작 수주, 국제공동제작 작품실적)까지 확대하여 해외 진출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실제적인 산업 동향 반영
- 완성작품 수출방식에서 한 단계 진일보하여 사전 기획 단계부터 '공동제작 및 로케이션, 투자유치 확대, 기술·인력수출' 등 해외 진출지원 사업 다각화 추진
-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및 해외동향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비즈니스센터(kobiz) 구축·활용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2010년도 상장 게임업체의 **3/4분기 수출이 전년 대비 11.4%** 증가한 4,114억원에 이르는 등 '10년 국산게임 총 수출액(비상장 업체 포함)은 1,551백만달러 이상으로 예상되어, **2009년 보다 25% 이상 증가 전망**
- 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을 통하여 국산 온라인 게임 콘텐츠 업체의 해외 직접 진출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국제게임전시회 B2B를 통한 해외 수출계약 실적이 '09년 대비 **6배 증가**하여 명실상부한 비즈니스 전시회로의 위상강화

## □ 주요 성과

-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전문적인 수출마케팅 지원
  - ※ 총 154개 업체 지원, 1,654건 비즈매칭, 수출상담액 1억 140만 달러, 계약액 1,665 달러 달성
- 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 이용업체 선정(20개 업체)
  - 1차('10.3월 8개), 2차('10.8월 6개), 3차('10.10월 6개)
- 글로벌서비스플랫폼 게임경진대회(GNGWC) 개최('10.11.21, 부산 벅스코)
- 국제게임전시회(지스타 2010) 개최('10.11.18~21, 부산 벅스코)
  - 관람객 28만명, 수출상담(3,550건 상담, 19,829만달러 계약(166건))

## □ 잘된 점

- 국내기업과 해외 바이어 1:1 상담주선 시, 특화된 온라인 비즈매칭 시스템을 통해 상호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사전 미팅 실시로 현장 미팅시 심화된 미팅이 가능토록 하여 수출을 촉진시킴
  - 오류 매칭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 미팅을 통해 진척되고

세부적인 미팅이 가능함

- 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콘텐츠업체의 해외 시장 직접 진출을 지원하여 해외 판로를 다변화하고, 해외 과금결제 시스템 확충 등 상용화 기반 조성을 통해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
- G스타 개최 결과 해외 수출계약 실적 및 관람객이 '09년 대비 증가(계약실적 6배이상 증가)하면서 국제게임전시회로서의 위상 강화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플랫폼로 전시회 참가 대상과 고객이 상이하여 각각의 플랫폼별 개별 마켓 지원 필요
  - 온라인, 아케이드 등 별도의 개별 마켓 참가 지원 증대 필요
- 국내와 상이한 소비자특성, 결제구조 등 해외시장에서 중소게임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결제시스템의 지원을 확대하여 신흥시장에서의 한국 온라인게임 선점 지원 필요
- 해외 게임업체 바이어 유치 확대 및 국제게임전시회 개최 준비 진행을 조기에 시행하여 다양한 연계행사 발굴 필요

41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국제방송영상전본시 참가 지원, △국제방송영상전본시(BCWW) 개최, △수출용 방송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방송콘텐츠 해외교류 지원 등 5개 세부사업으로 방송영상 수출실적 호조 등 전반적 성과는 매우 양호함
- 다만, 성과지표인 '방송콘텐츠 해외수출액'은 매년 12월말까지 실적을 다음해 1월말 경 집계되어 정확한 목표 달성도는 나오지 않으나 방송콘텐츠 수출 실적 예상치를 감안하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함.

□ 주요 성과

- 국제방송영상전본시 참가지원사업은 7개 마켓, 138개사가 참가, 52,934천 달러 수출실적 달성하여 '09년대비 14%정도 증가함.

※ 2009년 6개 마켓, 103개사 참가, 수출액 46,450USD)

건본시명	시기/장소	참가사수	상담건수	계약액 (단위 : 천달러)
Filmart	3월/홍콩	15	201	1,748
MIPTV	4월/칸느	30	617	13,768
STVF	6월/상해	16	280	7,288
TTF	9월/타이페이	12	210	5,072
MIPCOM	10월/칸느	27	691	10,050
TIFFCOM	10월/도쿄	19	397	12,191
ATF	12월/싱가포르	19	458	2,818
총 계		138	2,854	52,935

- '10년 9.1 ~ 9.3까지 개최된 국제영상전본시(BCWW) 개최 사업은 총 50개국 221개 전시사에 연인원 6,000명 참가하여 2,640만

달러 수출실적을 달성함.

- ※ '09년 실적 : 44개국 206개 전시사, 연인원 5,200명 참가, 수출실적 2,056만 달러
- 한국방송콘텐츠 해외교류지원
  - 드라마 <태양의 여자> 등 한국 방송콘텐츠 CIS, 중동 지역 등 11개국 배급(5개국 6개 방송사 방영 확인)
  - 9개 한국 방송콘텐츠(다큐 7개, 드라마 1, 애니메이션 1) 국제상 출품 지원, 2개 작품 2개 국제상 본선 진출
- 수출용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에 총 26개사 39개 작품에 대해 8.4억원 지원하였으며, 19백만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렸음.

□ 잘된 점

- 국제방송영상전본시 참가
  - 작년 대비 참가 전시에서 수출 실적 전년대비 8% 이상 향상
  - 주요 건본시 부대행사 개최를 통한 우수 방송콘텐츠 홍보 마케팅 활성화
  - 상해 TV 페스티벌 주요 바이어 초청 "한국의 밤" 행사 개최
  - MIPCOM 오프닝 파티 "What's the Wonder in Korea" 한국 콘텐츠 프로모션 행사 개최
- 국제방송영상전본시 개최
  - 거래실적 '09년(2,056만 달러) 대비 28% 증가
  - 행사규모 '09년(44개국 206개 전시사) 대비 7% 증가
- 한국방송콘텐츠 해외교류지원 사업의 경우 진흥원의 직접 '판권구매 후 무료 배급'을 지양하고 판권 보유업체의 직접 '유료배급' 방식으로 변환한 원년이지만, 방송사 및 유관기관의 협조로 총 11개국 중 10개국에 유료 배급 실시함으로써 시장가능성 확인
- 수출용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사업은 재제작비 단가 현실화를 통해 지원 단가 조정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한 재제작 가이드라인 제시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국제방송영상전본시 참가
  - 신규 참가 마켓 검토를 통한 동유럽, 남미 등 참가 마켓 확충, 신흥 지역 진출 기회 제공이 미흡하였으며, 향후 수출협의회 회의 및 관계자 협의를 통하여 보완 추진하겠음.
  - 포맷, 국제공동제작, 융합 콘텐츠 등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국제방송영상전본시 개최
  - 행사 용역대행사 조기 선정, 해외 전시사와 바이어 대상 마케팅을 빠른 시기에 적극적으로 실시
- 한국방송콘텐츠 해외교류지원
  - 소액 다건의 국제상 출품 개별 지원을 지양하고, 방송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는 분야의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한국 콘텐츠 홍보 및 새로운 비즈니스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방향 모색 필요
- 수출용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 수출용 프로그램 재 제작 지원금 확대 요구가 있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일부 누락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 지원 대책 수립 및 번역 완성도 제고를 위한 감수 분야 추가 지원

## 42 관광객 수용태세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기금 용자 지원 등으로 국내 관광숙박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 확충을 위한 기반 마련
-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베니키아) 사업지원과 우수숙박시설 인증제(굿스테이) 활성화로 관광객 이용편의 제공 및 서비스 수준제고 기반 마련
- 고택·종택을 활용한 체험 숙박시설 확충,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기반 제공
- 관광안내소·관광안내표지판 등 관광안내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개선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서비스 환경 개선
- 첨단 IT를 활용한 관광안내시스템 도입으로 관광안내 표준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관광정보 안내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지역관광객 유치 확대기반 마련
- 외래 관광객의 국내관광 편의제고를 위해 관광통역안내소 및 관광안내체계 운영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 주요 성과

-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 수립·발표
  - 관광호텔 복합개발 요건 완화
  - 도시개발계획에 관광숙박시설 확충계획 포함
  - 관광호텔을 주거·교육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
  - 관광호텔 토지를 감정가격이하 공급대상에 포함
  - 관광호텔의 교통유발계수 조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인하

- 관광단지 내 민간사업자의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세제감면
- 관광숙박시설 확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원
- 관광호텔 건립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도시계획변경 대상 부지에 관광호텔 건립 시 공공기여 인정
- 준공업지역 관광호텔 건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 관광호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추진
- 공영개발에 따른 관광호텔 부지를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 이하 공급

○ 관광숙박업 영업여건 개선 및 서비스 수준 제고

-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조건 완화
  - \*상환기간 1년 연장, 대여금리 0.25~0.5% 추가 인하
- 일반주거지역 내 위치하는 관광숙박시설의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완화
  - \*폭15미터 이상 도로 20미터이상 연접⇒폭12미터 이상 도로 4미터이상 연접
-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완화
  - \*한개 객실당 5인 이상⇒한개 객실당 1인 이상
- 호텔업 전기요금 산업을 적용 기한 1개년 연장('11년 까지 적용)
- 호텔업 재산세 감면 1개년 연장('11년 까지 적용)
- 중저가 관광호텔의 공동브랜드(베니키아) 활용으로 인지도 제고 및 외래 관광객 이용편의 제공

○ 국민관광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 지원

- 고택·중택 등 전통한옥을 활용하여 우리 고유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한옥 숙박시설 운영 지원
- 야영장 등의 숙박시설과 공공편의시설을 갖춘 쾌적하고 저렴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지원

○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로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17개소
- 관광안내소 지역명소화: 2개소(대전, 전남 순천)
- 명동관광통역안내소 신축·이전('10.12월)

- 관광안내소 통합·운영: 인천공항 내 5개소의 관광안내소를 1개소로 통합하여 운영('10. 9월)
- 관광안내소 운영지침 제작('10.12월)

○ 전국 관광안내표지 확충

-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1,512개, 개보수 462개

종합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 도로표지			관광안내 보행표지			기타 표지		
계	신설	개보수	계	신설	개보수	계	신설	개보수	계	신설	개보수
444	324	120	898	671	227	426	355	71	216	172	44

- 다국어관광안내표지 시범사업: 3개소(부산 중구, 강릉시, 부여군)
- 관광안내지도 제작: 12개 시·도 / 9억원

○ IT기술을 이용한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시스템 구축

- U-Tourpia사업: 2개소(충청북도, 경상북도 영덕군)
- 구석구석 I-walk 사업: 1개소(경상북도 경주시)

○ 관광안내전화 1330의 안내서비스 및 외국인 언어불편 해소를 위한 외국어통역 자원봉사운동 등을 통해 관광안내 서비스 질적 향상

- 관광안내전화 1330 안내서비스 확대
  - 1330 안내전화 운영 활성화: '10.11월 콜 수 157,409명(22.5% 증가 / '09.11월 콜 수 121,849명)
- 외국어통역자원봉사활동(BBB운동) 실적('10.11월말 기준 3,750명)
  - 1588-5644 이용실적: '10.11월말 51,784건
  - 1588-5644 이용 안내카드 제작·배포: 265,000부
  - 언론홍보 추진: 326건(온라인 홍보 등)
  - 언어통역자원봉사자 확충: 580명
  - 이용 안내 및 업무협약 체결: 11곳(지자체 4곳, 병원 4곳, 기타 3곳)

□ 잘된 점

- 지자체, 관련업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관광안내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음
-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 관광안내 시스템

개선 등의 22개 세부 추진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음

- 급증하는 외래관광객 수용을 위해 당초 목표한 5,470실을 110% 초과한 6,031실을 확충하였고, 관광안내정보 및 안내시설 만족도도 당초 목표치(3.41)를 달성할 것으로 추정됨

**43**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관광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으로 관광사업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관광분야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
- 특히 고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관광레저분야 관련 제도개선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여행업체에게 우수여행상품 기획 및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상품선택의 기준을 제공하였으며,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제고를 통한 여행산업 경쟁력 강화 기반을 구축

**□ 주요 성과**

-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관광 및 레저스포츠의 제도 개선과 시설확충 등을 내용으로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광·레저산업 육성 방안 발표 (7.15, 37건)

\* 고용전략회의(대통령 주재, 기재부, 법무부 등 6개 관계부처 참석)

\* 관광·레저 산업 육성을 통해 '14년까지 1,200만명의 외래관광객 유치와 약 4만 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

**※ 주요 추진과제**

- ▶ 지역관광 으뜸명소 육성, ▶ 수도권 관광숙박시설 확충, ▶ 쇼핑관광 활성화,
- ▶ 관광산업 품질 제고, ▶ 3대 생태관광거점(순천만, 우포늪, DMZ) 육성,
- ▶ 국립공원 내 에코빌리지 조성, ▶ 해양관광, 수변관광, 항공투어, 해양·항공 레저 육성, ▶ 중국시장에 대한 비자제도 획기적 개선 등

- 금융시장을 활용한 관광산업진흥 및 인프라 지원 방안을 위한

업계 관계자,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관광업계의 의견이 반영된 관광산업 펀드 조성방안 연구

- \* 관광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위탁) 및 사후 관리방안 등
- 방한 외래객 증가로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간 협의를 통한 '관광숙박시설확충특별대책' 마련 발표
- \* 관광호텔복합개발 요건 완화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지원 특별법 제정 등
-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조기(6월)에 국회 제출하여 기존의 1·2차 개정안과 함께 통합법(대안)으로 국회 심의 중(법사위 계류)
- 관광산업의 핵심 산업인 여행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 \* 우수여행상품 선정, 홍보 및 안전여행 캠페인 실시, 여행불편신고센터 운영, 여행산업제도 개선 연구 등

□ **잘된 점**

- 지자체, 관련업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6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하여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 마련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과 후속조치를 위한 관광진흥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음
- 국가고용전략회의(제4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를 통하여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과제 총 37건을 발굴·추진하여 당초 목표치 33건을 초과 달성하였음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다양한 국내관광 소재를 개발하고, 가볼 만한 곳 추천 사업 등 다각적 홍보로 국내 관광 활성화에 기여
  - 특히 공식여행사를 중심으로 양질의 국내관광 상품 개발 및 판촉을 지원하여 국내 여행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
- 국민 관광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여행 트렌드 발굴의 일환으로 '공정여행(Fair Travel)' 문화확산 캠페인 추진, 건전하고 윤리적인 여행문화 정착에 기여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장애인관광정보 가이드북 발간, 장애인 관광버스 개조 지원 사업 등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관광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 관광 편의 증진에 노력
- 복지관광 및 여행바우처 실시를 통해 관광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유도
- 코리아패스 도입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전국 관광지, 쇼핑 시설 및 교통 등 이용 편의 증진 계기 마련

□ **주요 성과**

- 공정여행 문화확산 캠페인 추진을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
  - '新관광 공정여행' 캠페인 방영, 언론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추진
  - 대국민 공정여행 가이드 제시
- 국내 휴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장기휴가를 위한 국내여행 프로그램 <리프레시 여행> 개발
  - ※ 여행전문 작가에 의한 사전답사, 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역별, 테마별, 교통수단별 최종 21개 국내여행 코스 개발

- 책자, 리플렛 등으로 제작하여 기업체, 공공기관, 학교 등 배포
- \* <리프래시 여행> 6천 부 제작 및 E-Book 등재(visitkorea 사이트)

○ 관광소외계층 관광환경 개선 추진

- 방송매체를 통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정의 및 기준안 등 소개
- 장애인, 실버층 등 관광소외계층 대상 관광가이드북 '함께하는 여행'발간('10.12월)
- 공사 여행정보 사이트내 '장애인 여행정보' 메뉴 신설('10.6월)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지자체 및 관광산업계와 협력을 통한 코리아패스 출시

- 42개사 6000여 점포를 관광카드 가맹점으로 확보하여 서울지역 출시 ('10.12.20)

○ 수요자 중심의 국내여행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체계 개편

- 기존 B2B, B2C 성격이 혼재되어 있던 관광공사 사이트를 국내 여행정보사이트와 관광비즈니스 사이트로 분리
- 지도기반, 지역 중심 사이트로 개선을 통한 네티즌과의 소통 확대 및 전국 기초지자체 단위의 관광 마이크로페이지 오픈

○ 여름 성수기 대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실시

- 오토캠핑, 휴양림, 갯벌 등 주요 국내관광 테마를 활용한 국내 휴가 권장 캠페인 실시
- 산림청,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국내 주요 시설 관리 공공기관과 협조, 원활한 국내 휴가 캠페인 전개
- 언론 매체를 활용한 기획기사 보도 유도 등 대국민 여름휴가 인식 개선

○ 올바른 수학여행문화 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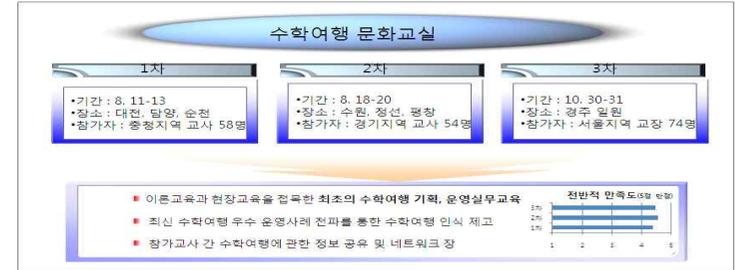
-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육성과 모범 운영사례 확산을 위한 수학여행 시범학교 운영



- 교육여행 전반에 관한 교육여행 실태조사 실시



- 수학여행 문화교실 개최 : 형식적인 현장 팸투어가 아닌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수학여행교육



- 테마별 56개 수학여행코스 발굴

5-7월	테마별 수학여행코스개발추진계획 수립 및 기존 수학여행코스 및 신규 관광지 사전조사
8월	1차 70개 신규수학여행코스 발굴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코스 수정 및 보완
9-11월	2차 56개 수학여행코스 대상 체험기 작성 현장교사 모집 및 체험기 발굴
12월	전문가 감수 및 교정작업
'11. 1-3월	체험기 책자 제작 및 배포를 통한 테마별 신규수학여행코스 홍보활동 추진

○ 교과서 활용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 테마별 교과서 주제 여행 콘텐츠 개발 및 온라인 홍보활동 강화
- 공사-내일신문 공동 '교과서 속 여행지를 가다' 기획기사 연재
- 2010 대한민국 구석구석 초중생 기행문 공모전 실시
- 청소년 여행봉사 프로그램 운영

○ 우수여행상품 공모전을 통한 테마상품 개발 및 홍보

- 여행업계의 경쟁력 있는 국내여행상품 개발 독려(상·하반기 각 1회 시행)
- 총 15개 여행사 40개 상품 선정 : 온/오프라인 공동 프로모션 및 판촉비 일부지원



- “구석구석 공식여행사” 공동 신규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 추진
  - 정부 정책사업 및 공사 주력테마에 연계한 업계와 공동 상품 기획 및 홍보
  - 지속 협력을 통한 여행상품 품질관리 유도 및 신상품 개발 독려( 총 79개 상품)



- 복지관 단위 단체관광 및 저소득층 여행바우처 지원 실시
  - 장애인 등 복지관(시설) 단위 단체여행 실시(142개 복지관, 5,333명) ('11. 1월 현재, 단위: 명)

구분	예산	목표	실제	달성율	복지관단위 단체여행				가족 여행	비고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기타		
'08	8억	4,500	4,554	101%	830	1,546	1,635	543		
'09	8억	4,600	4,745	103%	474	1,008	1,009	710	1,544	
'10	8억	4,600	5,333	116%	836	1,773	1,495	1,013	216	

- ※기타는 다문화, 새터민, 여성 등
  - 여행바우처 약 6,000명 선정 및 여행실시 시 경비 지원
- 적극적 홍보 통해 대국민 복지관광 인지도 및 인식 제고
  - 매일경제, 파이낸셜 뉴스 등 관련기사 홍보('10.1~12)
  - KTV 문화공감 365 「가을! 문화의 바다에 빠지다」 ('10.10.14)
    - ※ 국내 취약계층 관광정책 소개,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광 다름
- 장애인 관광버스 개조 지원(3대, 지원예정)
  - '09년도 1대 개조 사업 시범도입 후 '10년도 3대까지 확대 시행

□ 잘된 점

- 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저예산으로 고효율의 홍보 효과를 거둠
- 사전 조사 및 전문가 의견 청취로 수요자에게 필요한 관광정보 및 각종 관광 인프라를 제공
- 수요자 중심의 여행정보 제공을 통한 온라인 여행정보 유통 확산
  - 파란닷컴 등 포털사이트 및 하나투어 등 관광업계 대상 13만여 건 온라인 관광정보 제공(2010년 말 기준)
- 블로그, 트위터 등 SNS매체를 활용한 네티즌과 소통 강화
  - 여행정보 블로그 : 일평균방문 1,500명/누적방문 968,000명
  - 트위터 : 팔로워어 11,500여명
  - 2010년 인터넷 소통대상 수상(공공부문)

45 특색있는 관광자원의 체계적, 지속적 개발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간 상호 연계를 통한 광역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국내 관광의 지속적인 발전 및 지역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
  - \* 광역 및 지역 관광자원개발 324개소 지원 및 관광객 767백만명 창출
-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지역단위 소규모 사업과 광역적 관광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대규모 사업의 조화로운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광수요 창출 및 균형 잡힌 관광기반 구축
- 청와대의 '10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50개 정부정책 가운데 '관광자원개발사업'이 6위로 평가되는 등 정책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성과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및 자연친화적 관광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및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행문화 체험기회 제공
  - 관광지 개발(경기 동두천 소요산 관광지 등 52개소 조성)
  - 문화관광자원개발(서천군 장항선 폐선활용 관광진흥 등 171개소 조성)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수변생태공원 등 42개소 조성)
    - \* 사업 추진지역 총 487백만명 방문
- 남해안, 서해안, 지리산권 등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남해안권 광역관광자원 개발(고하도 이충무공 순국공원 조성 등 7개소 조성)
  - 서해안권 광역관광자원 개발(전북 소설아리랑 기행벨트 등

8개소 조성)

- 동해안권 광역관광자원 개발(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 만들기 등 7개소 조성)
- 유교문화권 관광자원 개발(안동 숙박휴양거점조성사업 등 12개소 조성)
- 지리산권 관광자원 개발(구례 산수유 테마파크 조성 등 12개소 조성)
  - \* 사업 추진지역 총 408백만명 방문
- DMZ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10.3월 VIP 보고), 3대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10.3월),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10.10월) 등 신규사업 계획 수립으로 광역 관광개발의 효율적 추진기반 마련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일부 사업의 지방비 미확보에 따라 당초 지원계획액(2,123억원) 중 32억원을 미집행하였음
  - '11년 예산에 대한 조기 가내시 및 지방비 확보계획 접수를 통해 지방비의 조기확보 독려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뛰어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지원하여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하여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의 경쟁력 및 자생력 제고
- 하드웨어 조성 중심 관광개발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테마에 맞는 독특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상품화 추진
- 관광목적지별 최적의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위한 시설과 콘텐츠의 융합 및 마을간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 확충
-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사업추진을 통해 옛길을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예술 등 콘텐츠 자원을 엮음으로써 체험·교육 위주의 새로운 관광트랜드 조성 기반 마련
- 무분별하게 가속화되는 도시화를 지양하고 지역성·전통성에 기초한 여유로운 생활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대안적 도시 및 지역발전 모델을 제시

□ 주요 성과

< 문화관광축제 >

-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브랜드 홍보에 기여함
  - '09년 문화관광축제(57개)→10년 문화관광축제(44개)로 축소

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프로그램 >

- 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콘텐츠 확충을 위한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사업 추진
  -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 부산 미로미로 골목길 프로젝트 등 10개사업 추진

<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

-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도보 여행 저변 확대
  - '10년 신규 탐방로 12개소 선정·지원, 선정 탐방로 방문객수 10,504명 달성, 일반 관광객 대상으로 높은 만족도(85점) 획득
- 청소년여행문화학교(10회 200명), 모니터링 투어, 팸투어 등을 통해 탐방로를 체험·교육형 관광상품으로 육성

<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 대중관광개발이 가져온 지역사회 해체와 정주민 감소에 대응하여 주민의 정주기반을 확보해 주고 그들의 경제성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지역개발의 방향성 제시
- 슬로시티 이념 구현을 위해 지역 고유 자원 조사 및 스토리텔링 지역이 보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고유한 특징점에 대한 지원 강화
  - 슬로푸드 상품 개발(창평 장류, 장흥 표고버섯) 청산도 전통문화 복원(독살, 초분, 구들장논), 하동 다원 연계 관광루트 조성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 사업추진 대상 사업을 예산이 확정된 후 컨설팅단의 현장 점검 등을 거친 후 당해연도 상반기에 사업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지방비 확보 지연 등으로 사업의 조기 추진에 애로
  - 2010년 5월 사업계획 수립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세계적인 경기 불황 및 중국 상하이엑스포, 광저우아시안게임 등 메가이벤트 개최에 따른 인접국가 해외여행수요 잠식에도 불구하고,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과 지자체·관광업계·여행업계의 연대사업 및 행사 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임
- 중화권 시장(상하이엑스포 연계 홍보이벤트 전개, 노인·청소년 등 전략상품 육성, 우수고품질상품 개발 및 방한비자제도 개선 등 유치기반 강화), 동남아 지역의 한류 연계마케팅(방한 로케 유치 연계 마케팅 등), 3대 전략상품(계절상품, 수학여행 등의 특수단체, 무슬림) 등
- ⇒ '10년 전체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약 879만 명으로 전년(782만 명) 대비 12.4% 증가
- UNWTO, APEC, ASEAN+3, OECD 관광위원회 등 관광분야 주요 국제기구 및 제5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8월/중국 항저우·후저우), 한중 관광장관회담(10월/부여) 등 양자·삼자 정부간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개최하는 한편, G-20국가의 관광장관으로 구성된 T.20 관광장관회의의 제2차 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 한국의 경제력에 걸맞는 국격(國格) 제고 및 관광분야에서의 국제적 논의 주도, 나아가 국내 MICE 산업 발전과 한국 문화 홍보의 획기적인 계기 마련
- 정(情), 흥(興), 기(氣) 등 한국관광의 본질적 이미지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해외홍보 관광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실현

- 지역별로 차별화된 광고안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기반 소비자 체험형 광고인 인터랙티브(interactive) 캠페인, 팬매체 활용 특집프로그램광고 등을 통해 한국관광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
- SNS 등 급속한 온라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소셜 미디어 허브 플랫폼(Social Media Hub Platform)을 구축하고 한국관광공사 본사와 해외지사와의 회원 가입 시스템 일원화로 통합마케팅 기반 구축

□ 주요 성과

- 세계적 경기불황 및 남북한 긴장 상황(천안함, 연평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세부 시장별 맞춤형 효과적 전략마케팅 추진으로 전체 외래 관광객 증가
- '10년 전체 방한 외래 관광객 유치실적은 전년(782만 명) 대비 12.4% 증가
- 제88차 UNWTO 집행이사회(6.5.~11./아르헨티나 이구아수), 제6차 APEC 관광장관회의(9.22.~23./일본 나라) 등 관광분야 주요 국제회의 참석을 통한 한국관광정책의 적극적 홍보 및 녹색성장·지속가능한 관광개발·관광인력 훈련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한국관광외교의 인지도 제고
- 특히, 제2차 T.20 관광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 앞서 관광분야의 국제적 논의 주도 및 선진국과 개도국간 교량 역할 수행뿐 아니라 국내 MICE 산업 발전과 한국 문화 홍보의 계기 마련
- 제5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8.21.~24./중국 항저우), 제5회 한중일 청소년교육관광포럼(10.30.~11.2./일본 도쿄) 등 동북아 3국간의 관광회의 정례화로 3국간 관광교류 협력 및 방한 관광객의 약 50%를 차지하는 동북아 역내 관광기반 강화

- 제6차 한중관광실무협의회(3.30./서울), 제4회 한중연해지역관광포럼(7.8.~11./중국 옌타이), 제2회 한중 관광장관회담(10.13./부여) 등의 개최를 통해, 2010 중국방문의 해 및 2012 한국방문의 해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한중간 관광협력강화 기반 조성
- 이외에도 한-일 관광진흥협의회 및 한-러 관광진흥협의회 등 주변국간 상호 관광협력 증진을 위한 양자간 관광실무협의회의 정례화로 실질적인 이웃 국가간 관광네트워크 구축 기반조성
- 주요 방한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외광고, 100만 구전네트워크, 대학생 홍보단 활동 등을 통해 한국관광의 본질적 이미지를 전달하여 외래객 유치 증진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
- TV광고 후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는 비율 점증
  - \* 방한 의향도: '07년 51.1%→'08년 49.9%→'09년 54.8%→'10년 57.7%(잠정치)
- 특히, 뉴미디어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캠페인(Interactive Campaign)의 경우 사이트 방문자 수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외부 유인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나 외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
  - \* 빅뱅 등 한류스타 10명 출연, facebook·twitter 등 SNS 확산 850만 건 달성
  - \* 30명의 중국·일본 파워블로거를 통해 약 800개의 한국 홍보 SNS 콘텐츠 생성

#### □ 잘된 점

- 급변하는 중국 관광정책 분석, 방한아시아 주요국 관광시장 동향 분석 등 사전 조사가 치밀하게 이루어졌음
- 한국관광 해외홍보 마케팅을 위한 32개 세부 추진일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음
- 주요국 관광시장에 대한 철저한 동향분석으로 아시아 주요국 관광객은 632만명(일본 302, 중국 188, 홍콩 23, 대만 41, 필리핀 30, 싱가포르 11, 태국 26, 말레이시아 11만명)으로 목표 590만명을 7.1% 초과 달성함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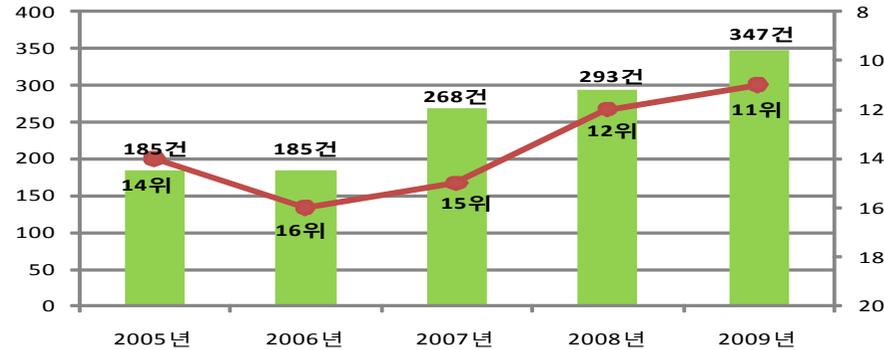
-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된 MICE산업, 고부가가치 크루즈·의료·공연관광의 집중 육성을 통해 고품격 관광콘텐츠 및 상품 육성을 추진하고 타산업과의 융복합화를 촉진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강국으로 도약 기반 마련
- 대형 MICE 유치 및 개최 촉진을 통한 국가 대외이미지 제고,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에 따른 관광수입증대 및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제출 등 관련제도 개선을 통한 신성장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기반 마련
- 공연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 육성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에 기여
  -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연계 이벤트 마케팅(R-16 Korea 비보이 세계대회, 공연관광축제) 전개로 한국관광상품 홍보 및 판촉 강화
  - 공연관광 마케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해외 로드쇼 등 공동 마케팅 전개
- 국내 항구 이미지 차별화를 통해 기존 주요 항구 위주의 단일 기항을 복수기항 형태로 유도함으로써 국내 기항 크루즈의 양적성장과 노선 다변화 추진
  - 인도, 호주 등 크루즈 제 3시장을 목표로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국내 입항 크루즈선사의 다변화 기반 마련
  -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내 11개 항구를 중심으로 테마별 38개 관광코스를 신규 개발하여 차별화된 기항지 이미지를 부각
  - 구미주·동남아·중국·일본 선사 및 유관인사 대상 팸투어 실시로 국내 입항 노선 확대에 기여

## □ 주요 성과

### < MICE >

- 아시아 MICE 목적지로서의 위상 제고
  - '09년 UIA(국제협회연합) 기준 총 347건\*의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세계 11위, 아시아 3위 차지하면서 MICE 목적지로서의 위상 제고
- \* 전년 대비 세계 국제회의 개최 건수 증가율(3.8%)을 훨씬 상회한 수치(54건 증가, 18.4% 상승)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순위 역시 1단계 상승한 11위를 차지함으로써, 해마다 개최 건수 및 순위 면에서 기록을 갱신 중

【 연도별 한국 국제회의 개최건수 및 순위 】



- '11년 중국 바오젠 그룹 인센티브 관광(1만~1만 5천 명), 동아시아 허벌라이트 유니버시티(8천~1만여 명) 등 대형 인센티브 관광·국제회의 유치 확정(12월)을 통해 고부가가치 대형 MICE 방문객 유치 증대를 통한 관광수입 증대 및 MICE 목적지로서의 한국 위상 제고
- \* 외국인 500명 이상 참가 국제회의 및 컨벤션 유치 성공건수는 '10년 목표치 36건 달성 예상(정확한 통계는 '11.4월경 산출 예정)
- 신성장동력인 MICE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 G20 정상회의 계기 '전시·회의산업 발전방안'을 마련, 2015년 국제회의 참관객 100만 명 목표로 6대 실천과제 선정(6

월)함으로써, 관계부처 공동 수립·추진을 통해 산업과 관광 인프라의 연계, 제도 개선 및 지원체제 효율화

- MICE 전략적 마케팅 강화 및 MICE 관련 법·제도 개선
  - 한국 강점분야(원전, 스포츠, IT, 의학 등)를 국제회의 유치 강화산업으로 선정, 맞춤형 컨설팅 등 집중 유치마케팅 전개 및 전시·회의 성과제고를 위한 해외 통합마케팅 체계 구축(12월)을 통한 국제회의 세계 10위권(UIA 기준) 진입을 위한 해외마케팅 기반 강화
  - \* 한국관광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관광공사-일본정부관광국(JNTO) 간 해외통합 마케팅 등 관련 협력체계 구축
  - 국제회의 시설 요건 완화(준회의시설 및 전시시설) 및 MICE 복합지구 제도 도입 방안 마련(12월)을 통한 회의산업 관련 행정규제 완화 및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

### < 의료 관광 >

-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을 통한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
  - 의료관광안내홍보센터(인천공항·관광공사/2개소) 운영, 부산센터 1개소 추진('11.1월 예정)
  - 의료관광 안내 홍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한 마케팅 기반 조성 사업 추진('11.1월 예정)
  - 해외 U-헬스센터 개소 추진('11.2월, 블라디보스톡 1호 센터 개소 예정)
  - 의료관광 의료관광코디네이터 및 국제간병사(신규) 인력양성 등을 통한 국내 수용여건 개선
  - 타깃시장 및 경쟁국 조사에 근거한 의료관광 실무 매뉴얼(경쟁국진료수가, 필요서식, 상품개발 가이드라인 등) 개발 보급
  - 나눔의 의료관광 사업(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공동, 타깃시장 환자 무료치료 및 현지유력매체 홍보 사업) 신규 발굴 및 추진
  - 양성자 치료 의료관광 상품, 한방의료관광상품 등 고부가가치 특화 진료상품 개발

- 국제의료관광컨벤션(서울, 부산/연 2회) 정례화를 통한 해외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의료관광객 유치: '09년 6.2만 명 → '10년 8.5만 명

### < 공연 관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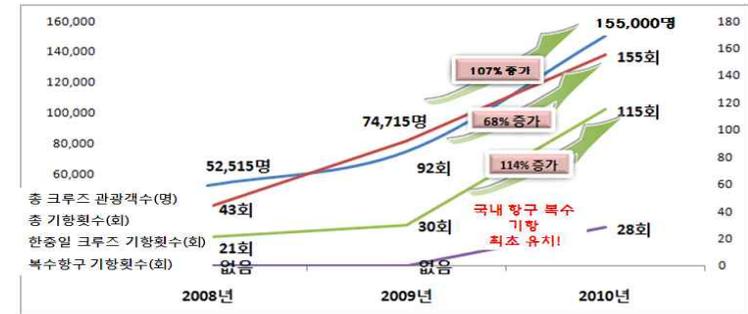
-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및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FIT(외국인 개별 관광객) 및 단체 관광객 공연상품 유치로 '10년 해외공연관광객 100만 명 돌파(최종 집계 중)

구 분	2008	2009	2010
공연관광객 수(명)	518,933	803,790	1,035,000

- \* UNWTO가 예측한 10대 관광행태 중 문화관광, 도시관광, 스포츠관광을 제시하고 있음. '09년 연간 공연관광 외래관광객은 80만명(경제적 파급효과: 1,904억 4천만원)→'12년 150만명 돌파(경제적 파급효과: 3,759억원) 추정
- 2010공연관광축제에서 우수 공연 상연, 특가 할인행사 '코인 모데이' 실시, 국내 방송프로그램을 연계한 공연상품 이슈화, 신규공연 발굴(추격자) 등으로 총 130,256명 참가(외국인 68,673명, 내국인 61,583명/홍보효과 696억 원)
  - \* 만족도 조사결과(만족+매우 만족): '09년 79.2% → '10년 84.2%
- R-16 Korea 비보이 세계대회에서 8개국 예선전과 해외지사 연계 현지 여행사 상품화, 현지 방송프로그램 홍보 등 통합 이벤트 마케팅 전개로 총 4만 2천여 명 참가(외국인 2,127명, 내국인 4만여 명/해외홍보효과 1,282억 원)

### < 크루즈 관광 >

-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한 크루즈 신규시장 확대
  - 크루즈 관광객 유치규모: '09년 총 92편 입항, 74,715명 입국 → '10년 입항 147회, 154,479명 입국
  - 항구별 테마화(국내 11개 항구, 테마별 38개 관광코스 개발) 추진
  - 크루즈 전문박람회 유치활동: 15개 선사, 37건 유치상담
  - 일본(도쿄)지역 대상 한국크루즈 유치 설명회로 6개 유관기관 공동참가, 4개 선사 및 15개 여행사 18건 유치상담 실시



- 복수기항 및 준모항 추진(최초)
  - 복수기항 지원을 통한 복수기항 크루즈 유치(15회, 최초 실시): 인도 단체 크루즈 유치(6월), 호주 크루즈 2개 선사 대상 한중일 노선 등
  - 준모항 유치(32회)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 '11년 Royal Caribbean Cruise 레전드호 인천 모항 취항 확정('10년 2회 → '11년 9회 예정)
- 국내 크루즈 수용태세 개선 및 만족도 제고
  - 선상 입국 심사 서비스 체계화 및 선상 검역심사 최초 시도
  - 선상 입국 지원제도 개선 및 선상 검역서비스 실시(6회)
  - '10년 법무부 입국심사 강화(지문채취) 규정에 대한 크루즈 입국심사 간소화방안 협의(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회)
- 크루즈 관광객 안내개선을 위한 "크루즈버디" 실시(3회, 120명)
  - 지방의 크루즈 가이드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모델 제시 및 제주·인천·여수 등 타 지역 지자체 및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사례 확산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 MICE >

- 'MICE산업구조 선진화 및 제도개선', '마케팅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 '관광연계 및 부가가치 창출

확대' 등 MICE 육성 중장기 비전에 따른 주요정책 과제별 추진을 통해 MICE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 의료 관광 >

-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의료관광 진흥책 및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시행 중에 있어, 한국 의료에 대한 해외의 낮은 인지도 개선과 언어 등 해외환자 수용태세 등에 대한 물적·인적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

< 공연 관광 >

- 증가하는 공연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연장 등 인프라가 부족하며, '11년 공연관광 활성화 사업 예산 감소로 해외 마케팅에 한계 우려

< 크루즈 관광 >

- 해외 선사의 기항 유치에 기반한 크루즈 활성화의 한계 해결을 위한 해외 선사의 국내 모항 및 준모항 유치 추진 필요
- 장기적인 크루즈 관광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국적 선사의 육성 방안 마련 필요
- 항구별 차별화된 관광 코스 개발에 근거하여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고급 프로그램 개발과 환경개선 필요

49 관광레저도시 개발 활성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방안으로 도입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을 조기에 가시화하고 경쟁력을 갖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위하여
- 기업도시별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추진,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진입도로 국비지원 및 행정지원 등을 통하여 영암·해남 및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의 획기적인 기반이 구축됨

□ 주요 성과

- '05년 시범지역 지정 이후 '08년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로 사실상 중단되어 왔던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기반이 확립됨
  - 구성지구: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여 개발계획 승인·고시(1월)
  - 삼포지구: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이행하여 개발계획 승인·고시(10월)
  - 삼호지구: '09.10월 개발계획 승인·고시, 실시계획 승인절차 이행중
  - \* 부동지구: 기업도시 시범지역 이외 지역으로서 BH 조정회의를 거쳐 KDI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 여부를 확정키로 함
- 태안 기업도시의 경우 진입도로 자체를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건설중인 진입도로를 IT 기반 친환경 안내체계와 연계한 도로로 설계하여 추진중(공정률 : 31%)
  - S자형 도로, 음악도로, 벤치·분수 설치, 태양열 전원 가로등 설치, LED 전광판 설치, 자전거 도로, 마사토 길 조성 등
  - 인간과 자연의 이야기가 흐르는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홍보

애니메이션을 제작·배포

- 중장기 콘텐츠전략을 수립하여 콘텐츠 개념 정립, 전문가 조사를 통한 콘텐츠 비전 및 전략 아이디어 개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계별 콘텐츠 추진계획 마련
- 시행사(서남해안레저(주), KAVO(주),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 썬 카운티(주), 현대도시개발(주)) 및 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총 3회에 걸쳐 기업도시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국토부와 공동, 총 7건의 제도개선 과제 완료)

<10년도 제도개선 성과>

-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에서 '공시지가'로 제공(시행사 투자비 부담 완화)
- 토지소유자 요청시 일부사업 환지방식 도입(토지소유자 양도소득세 경감효과)
- 시행사가 공공편익시설 100분의 40이상 부담시, 공사시행자로 지정
- 개발이익의 사후 재 조정(시행사 투자비 부담 완화 효과)
- 관광시설 분양 또는 회원모집 기준완화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시설투자 활성화 효과)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2년 연장 (입장객에 대한 부담 경감으로 이용객 증가 효과)
- 기업도시에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의 감면에 대한 경과규정 연장 (수도권 등에서 기업체 이전 촉진)

- 영암·해남 및 태안 기업도시의 기반시설 조기 건설을 위해 각 기업도시별 진입도로에 대하여 광특회계 예산 111억원(진입도로 건설비의 50%)을 국비 지원하여 기업도시의 접근성 제고

<2010 예산지원 현황 : 총 111억원>

- 영암·해남 : 22억원
  - \* '08년 이후 총 132억을 지원하여 '10. 10월 준공
- 태안 : 89억원
  - \* '08년 이후 총 199억원을 지원하여 '10. 12말 기준 31% 공정률 진행중

- 대학원생 및 대학생을 상대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총 167편을 접수하여 17편을 우수 논문 및 아이디어로 선정, 향후 기업도시 콘텐츠 개발에 활용 예정

<공모전 접수 결과 및 수상대상자 선정>

- 논문 :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1편 접수, 7편 시상
- 아이디어 : 전 국민을 대상으로 146편 접수, 10편 시상

- 기타 관광레저도시 개발활성화 포럼 개최(2회), 영암·해남 기업도시 추진을 위해 실시설계자문위원회 참가(2회) 및 기업도시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배포하여 기업도시 추진 지원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 활동도 활발히 전개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필요
  -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을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려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사업성격이 유사한 자유경제구역 및 산업단지와 같은 예산지원 확대 필요
  - ⇒ 영암·해남 및 태안 기업도시의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폐수처리시설 등) 수요를 취합·분석해서 추가 국비지원 사업 발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원방안 강구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UNWTO에 따르면 관광부문의 전세계 CO2배출량은 13억 2백만톤으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바 아직 초창기 단계인 생태녹색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친환경적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됨
- 한국적 특성이 담긴 생태자원을 활용, 우리 고유의 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 제시를 통해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 관광산업 기반 마련
- 강이 지닌 자연적, 문화적 특성과 관광자원의 잠재력을 활용한 강의 역사문화적 장소성을 회복하고 강변 생활문화의 창조적 기반 마련

※ 2010년 총리실 특정평가(녹색성장과제 부문)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됨

## □ 주요 성과

-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지를 선정제시함으로써 유사 생태자원 보유 지역에 대한 본보기 등 생태관광 활성화 촉진 효과 기대
- 녹색관광 국내외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한 녹색관광에 대한 국민참여도 제고
  - 해외 유력인사 참가 녹색관광 국제심포지엄 개최
  - 언론사와 공동 연중 기획시리즈 게재(신동아, 한국경제)
  - 정부매체 활용 홍보(인터넷 기획기사 시리즈 및 전광판 광고)
  - 생태관광 지하철 광고 및 생태관광 사진공모전 및 전시회

- 기행문·만화 등 제작, 일반국민·청소년 등 대상 녹색관광 생활속 실천 홍보
- 강변 문화관광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촉매사업인 선도사업 확정
  - 나루터 복원, 전통벚길 체험, 레저스포츠 벨리 조성 등 강별 특화된 사업 선정
- 강별 차별화·특성화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고유성 창조를 위한 특화사업 선정
  - 녹색여가 문화공간, 수변문화 예술공간, 생태문화거점공간 등 강의 활용잠재력을 분석한 사업 선정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생태관광 모델사업지 기본·실시계획 수립 지연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에 집행되었으나 지자체의 지방비(추경) 확보 지연으로 계획수립 용역발주 지연
    - ※ '10년 12월까지 모든 모델사업지 계획수립을 목표하였으나 '11년 상반기로 지연
  -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지역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확보 없이는 집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최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북아 국제관광 시장에서 선도적 우위를 점하고 국가 관광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관광도시로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기조와 생태 중심의 관광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관광단지의 개발방향과 미래상 제시
-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적인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 관광 흐름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한 관광개발 계획 수립

□ 주요 성과

- 새만금 관광개발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홍보
  - 새만금 방조제 준공기념 축제개최 지원(4.27~5.6)
    - 기세배놀이,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 관람객수 : 35만명
  - 디스커버리 채널 새만금 특집 다큐 제작·방영
    -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의 ‘미래·기회·약속의 땅’, 저탄소 녹색성장 선도 및 청정생태 도시 건설계획을 전 세계에 적극 홍보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광용지 개발 컨셉 제시
  - 관광테마의 차별화로 다양한 관광행태에 능동적 대응
  - 다양한 이동수단 도입

- 수상교통, 트램 및 자기부상열차 등 저탄소의 신교통 체계 도입
- 도시기능과 관광기능을 복합한 정주형 관광도시 조성
-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수질확보 요구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새만금 개발계획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지표 설정 필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각종 생활체육시설 지원을 통한 ‘문밖을 나서면 누구나 15분 안에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 마련
- \* '05년말 대비 1인당 체육시설 면적 50% 증가('05년말 1.92㎡⇒'09년말 2.88㎡)

□ 주요 성과

- 생활공감형 국민체육센터(수영장·체육관 등) 및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등 노인계층 중점이용 노인건강체육시설 및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학생 및 지역주민 이용 운동장 체육시설(잔디 운동장·우레탄 트랙)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
- 시군구 기본 종합체육시설로서 국민체육센터 건립(51개소·신규 20)
- 녹지 공간에 생활체육공원 조성(18개소·신규 10)
- 고령화사회 대비 게이트볼장 등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4개소·신규 2)
- 농어촌 지역주민들을 위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5개소·신규 5)
- 학생, 주민 이용 체육활동 공간으로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잔디 운동장, 우레탄트랙, 다목적구장 등) 조성(140개소·신규 140)

□ 잘된 점

- 공공체육시설 통합 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 추진
- 공공체육시설 이용 및 개방 정보 등 안내체계가 지자체별로 다르게 구축되어 있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통합하여 제공하는 종합적인 안내체계 마련 추진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관리·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정책 현장에 대한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부족
- 건립중인 시설에 대한 사업관리 차원의 현장점검 보다는 이용 및 개방 등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 부족 및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다소 부족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보급, 고부가가치형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및 인증지원 강화, 스포츠산업 진흥포럼 운영 및 통계 구축 등으로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
- 프로스포츠의 자생력 강화 등으로 스포츠산업 시장 확산 기반 마련, 스포츠용품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해외 스포츠용품 박람회 참가지원 등으로 스포츠산업의 상품성 및 시장성 강화
-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 학생골프선수의 면세 대상 확대 등 체육시설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체육시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 □ 주요 성과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5개소)
  - 스포츠마케터·스포츠시설업 전문인력 양성(101명), 스포츠경영관리사 역량강화 교육(25명), 인턴십(25명), 스포츠산업 해외연수(20명), 체육행정·공공스포츠시설 전문교육(97명), 스포츠단체 임직원 비즈니스 교육(24명) 등 총 292명 전문인력 양성
- 고부가가치형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및 인증지원 강화
  - “가상현실 실감형 스포츠 시뮬레이션 개발” 등 전략기술 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기반 조성(16건, 70억 지원)

-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부여 추진(24개 업체 44개 품목)
- 스포츠바닥재, 자전거, 야구공 공인시험 등 스포츠용품 시험 580건 실시
- 스포츠산업 진흥포럼 운영 및 스포츠 산업통계 구축
  - 스포츠산업통계망(Spobiz.net) 구축 운영 및 스포츠산업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등 통계조사(3~12월)
  - 스포츠산업진흥 포럼 개최(연 12회, 국제포럼 2회, 지자체포럼 1회)
- 스포츠마케팅 및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해외시장 개척 전문기관(kotra)과 제휴하여 업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시장 분석, 판촉전략 수립, 현지 마케팅을 일체형으로 지원(14개업체 600백만원)
  - 유명 해외 스포츠용품박람회 참가 지원(5회) 등 마케팅 강화
    - 31개 업체참가, 197건 104억원 계약
  -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개최(12월)
    - (주)디자인파크개발(대통령표창) 등 우수 스포츠산업체 10개 기관·단체 수상
  -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개최(2.24~2.27)
    - 수출 97백만불, 국내 266억원 상담
  - 우수체육용구 생산 장려 및 용자실적 제고
    - 체육용구 생산 9개 업체 2,173백만원, 체육시설 설치 17개 업체 5,490백만원, 스포츠 서비스 1개 업체 300백만원
- 국내 프로스포츠 활성화 지원
  - 저소득층에게 프로스포츠 관람 기회 제공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스포츠 관람바우처” 사업 추진으로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골프장 등 체육시설이용 활성화
  - 우수 골프선수의 선발 및 육성을 위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10.3월), 신고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10.4월),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10.7월)

## □ 잘된 점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고부가가치형 스포츠산업 기술 개발 및 인증·시험 지원 강화 등으로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을 마련함
- 체육시설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체육시설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 54 국제 스포츠 교류 증대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 U-17 여자월드컵 등에서 역대 최고성적을 달성함으로써 스포츠 강국의 입지 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고, 체육교류협정 체결 추진 및 인적교류 확대로 국제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기여

#### □ 주요 성과

-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종합경기대회의 참가 지원을 통해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 종합 5위, 광저우 아시아경기대회 종합 2위, FIFA월드컵축구대회 16강 진출, FIFA U-17 여자월드컵 우승 등 글로벌 스포츠 위상 강화와 국민 자긍심 향상에 기여하였고, 2010세계세팍타크로선수권대회, 2010세계펜싱선수권대회 등 세계선수권 및 기타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대회 개최역량 강화
- 국제(세계·아시아) 체육기구의 한국인 임직원 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스포츠외교역량강화 시스템의 일부 지원 대상자\*\*는 국제스포츠 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기반 마련

\* 세계체육기구 임직원 진출추이: 64명('03)→99명('06)→101명('07)  
→ 103명('08) → 108명('09) → 114명('10.12월 기준)

\*\* 강광배('07, 해외연수지원) : 국제봅슬레이경기연맹(FIBT) 부회장 당선('10.9월)채지훈('09, 국제기구파견) : 국제빙상연맹(ISU) 기술위원 당선('10.9월), 아메리카스포츠대학교(ASU) 교수채용('10.11월)

-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 수료생 '09년(21명) 대비 '10년(23명) 증가하였으며, 국제행사 및 경기대회 파견 등 '10년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생(4기)\* 활용 성과
  - \* 4기 황이삭(터키국제청소년스포츠문화페스티벌 파견, 7월) / 4기 조혜옥·김상협(제2회 비치아시아경기대회 파견, '10.12.5~12.12)
- 개도국 체육용품지원 16건, 체육교류협정 후속지원 14건, 태권도 시범단 파견 2건, 국제대회 참가지원 51건, 총83건으로 '10년 성과목표(70건) 초과 달성

#### □ 잘된 점

- 동·하계 주요 국제종합대회 우수성적 거양을 통해 명실상부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
  - 2010년 제21회 밴쿠버동계올림픽대회에서 **동계올림픽대회 사상 최고의 성적 달성** (금 6, 은 6, 동 2, 종합 5위)
  - 2010년 제16회 광저우아시아경기대회에서 **대회 사상 최고의 성적 달성** (금 76, 은 65, 동 91, 종합 2위)
  - FIFA월드컵축구대회 **16강 진출, U-17 여자월드컵 우승**
-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 등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양성된 스포츠외교 인력\*\*을 적극 활용
  - \* 전문교과, 외국어(일반영어, 스포츠외교영어, 불어 교차진행) / 워크숍(동계) / 국제경기대회 참관(제1회 싱가포르유소년올림픽, '10.8월)
  - \*\* '10년 스포츠외교전문가과정(4기) 3명 국제행사 및 경기대회 파견
- 대한체육회 및 각 경기단체의 국제회의 총회 참가지원을 통해 국제체육(세계·아시아)기구 한국인 임직원 진출 확대에 기여하였으며, 각 경기단체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임직원 진출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 ※ 세계체육기구 임직원 진출추이: 64명('03)→99명('06)→101명('07) → 103명('08) → 108명('09) → 114명('10.12월 기준)
- 개도국 체육용품지원 및 인적교류, 체육교류협정 후속지원 사업에

대한 분기별 예산 교부 방식이 사업기간 내에 재외공관 지원 요청 및 강화사업 추가 편성 등 지원국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가능하게 함

※ '체육교류협정 후속지원 사업' 하반기 추가사업: 아이스하키 일본선수단 합동훈련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세계 2대 메가 스포츠의 하나인 월드컵축구대회의 체계적·효율적 유치 추진을 위한 민·관 유치 추진 체계 가동 및 범정부적 유치 지원 활동을 했으나 미국 등 강대국들의 벽을 넘지 못하였고, 카타르의 전략적 유치 전략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2022 월드컵유치에 실패함. 향후 국제 영향력 있는 인재육성, 국제스포츠계 주요인사와의 평시 친분유지 등 국제스포츠 외교력의 지속적인 확대 필요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국내는 물론 국외를 대상으로 태권도 사범 및 시범단, 미디어 활용 홍보, 태권도공원 조성, 통합브랜드 개발 등 태권도에 대한 전략적이고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의 전통무예이자 글로벌 스포츠로 성장하고 있는 태권도의 세계화 및 저변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음

## □ 주요 성과

- 주재국의 여건 및 사업효과 등을 감안, 태권도 사범 및 시범단, 평화봉사단의 전략적인 해외 진출로 국가브랜드 강화 및 중주국으로서의 위상제고
- 태권도 통합브랜드 개발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미디어를 활용한 태권도 홍보를 통해 2020 올림픽 핵심종목 유지기반 강화 및 태권도 세계화 추진
- 태권도공원의 본격 공사 착공 및 10년도 목표 공정률(10%)을 원활하게 달성함으로써 태권도공원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 및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순례, 수련의 장으로서의 기틀 마련

## □ 잘된 점

- 세계인의 태권도 성지가 될 태권도공원의 본격적인 공사 착공 및 차질 없는 건립공사 추진
- 국기원의 법정법인화('10.5)를 통해 태권도 본산으로서 국기

원의 공공성 강화 계기 마련

- 태권도의 통합 브랜드 개발 및 국내외 태권도 정보의 DB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태권도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기여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국제표준에 근거한 도핑검사와 철저한 결과관리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전문적인 도핑검사관 양성 및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도핑관리로 스포츠 선진국으로써 위상 적립에 기여

## □ 주요 성과

- 도핑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스포츠 경쟁 환경조성
-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9001:2008 인증유지(BSI, 영국표준협회)로 도핑검사 및 결과관리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 및 도핑방지의 전문시스템 구축
-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책방향 수행 및 경영계획서에 기초한 성과관리 및 경영효율화 추진
-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사회과학연구 심포지움 개최(2010. 11. 3, 4일)를 통한 국제협력 활성화 및 선진도핑방지기구로서 입지 토대 마련

## □ 잘된 점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에 대비한 혈액도핑 및 EPO 검사 등 도핑검사의 다양성 확보, 프로단체 선수의 도핑검사 대행과 국제기구(WADA, ANADO, IF 등)와의 적극적인 도핑검사 교류로 도핑방지의 국제 경쟁력 강화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학교스포츠 리그제 운영은 종전 토너먼트 대회 환경에서보다 학생선수들의 경기 경험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체계적인 훈련 실시를 가능케 하여 학생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수업참여도를 높여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는 등 학교체육 선진화에 기여

## □ 주요 성과

- 토너먼트 방식의 주중경기 및 원정 경기로 야기되어 온 수업 결손을 방지하여 학교수업 참여도를 제고하고 학업 관심도와 몰입도, 나아가 학업 성취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연중 리그제 운영을 통하여 경기경험 증대와 경기력 및 집중력 향상을 가능케 하여 엘리트 학생운동 선수 양성에 기여함으로써 국위 선양의 기반 마련

## □ 잘된 점

- '10년도 초중고 축구리그 만족도조사(한국갤럽) 결과, 학교스포츠 리그제 운영으로 매 주말 경기실시와 체계적인 훈련으로 인한 경기력·집중력 향상과 게임수 증가로 인한 경험 축적, 컨디션 유지 및 부상관리 등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 학생선수들의 학교생활을 분석한 결과 선수들의 수업 참여도는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고 있으며, 수업참여 이유로는 '리그규정'이 소폭 감소한 반면 '수업이 재미있어서'라는 자발적 동기가 다소 증가함(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운동 경력이 오래되고, 학업의 기초가 부족한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업 병행이 직접적인 학업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58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09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96명(1,120백만원)에서 '10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136명(1,634백만원)으로 40명(514백만원)이 증가 배치하여 전국 장애인들에게 많고 다양한 생활체육 관련 서비스를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하였음
- 또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지방에 특장차(2대)를 보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나 재가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생활체육을 즐기도록 접근성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승합차(5대)를 보급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위한 기동성을 확보하였음
-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장애인 스포츠 용품을 구입하여 임대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장애인들도 생활체육을 즐기므로써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 비장애인들의 체육경기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에게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들에게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이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 주요 성과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원은 '09년 보다 40명 증원했음에도 실적은 '09년 21만여명에 비해 거의 50만명인 2배이상의 지도 실적
- 처음으로 장애인 서비스 차량인 승합차 5대를 구입하여 장애인생활체육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기동성있는 장애인생활체육 관련 서비스를 구현하는 토대를 마련함

- 장애인생활체육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수준 높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서비스 하도록 하는 기반을 확보함

□ 미흡사항 및 고려사항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전체 장애인들에게 할 수 있는 서비스는 한정되어 있음.
  - 현재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원은 미흡하며 동 지도자의 증원은 시급한 문제임

※생활체육지도자 비교

적요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일반	정원/현원	917명/913명	1,000명/995명	1,100명/1,090명	1,200명/1,197명	1,600명/1,453명
어르신	정원/현원		250명/244명	300명/300명	350명/345명	600명/477명
장애인	인원	0	0	21	32	101('10년136)

- 장애인생활체육 관련 예산은 '10년 68억원에서 '11년 75억원으로 약 7억여원 증액되었고 증액된 7억원중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원이 36명 증원된 5억여원으로 순수하게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증액된 예산은 2억원이 되지 않음. 동 예산으로는 증가하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욕구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함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59 장애인 스포츠 외교력 강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종목별 국제대회 및 밴쿠버동계올림픽 및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등 2개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를 통해 장애인체육이 한층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체육의 경기력이 크게 향상됨
  - 제10회 밴쿠버장애인동계올림픽 종합 18위, 제10회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종합 3위 등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에서 거둔 우수한 성적은 장애인스포츠에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함
- IPC 집행위원 당선은 비롯, 국제기구 국내인사 피선으로 장애인 스포츠 외교의 인프라가 구축됨과 동시에 외교력이 크게 강화됨
-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국내 선수의 기량 향상으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주요 성과

- 밴쿠버동계올림픽 컬링종목 사상 첫 은메달 획득으로 종합 18위 달성
  - 동계올림픽 구기 단체종목 사상 최초 메달 획득, 5개 종목에 25명 출전
- 제10회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전세계 참가국 중 종합 3위 달성으로, 대한민국 국위선양 및 경기력 향상 기반 마련
  - 최종 금 27개, 은 43개, 동 33개 획득 및 수영, 사격, 양궁 등 다양한 종목의 세계신기록 및 아시아신기록 수립으로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위상 제고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 참가(총 6,746명) 및 세계신기록 7개, 올림픽기록 2개가 수립 등 선수 기량 향상

#### □ 미흡사항 및 고려사항

- 국가대표선수단 경기력 제고를 위해 유소년 장애인선수 육성 및 후보 선수 훈련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장기적 대책 필요

## 60 정책홍보 품질 제고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각 부처 홍보업무(홍보계획 수립, 실행 등)에 민간컨설팅의 실질적 활용을 통한 정책홍보 역량 및 품질 제고
  - '국격 제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핵심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 관련 컨설팅과 여론조사 연계 실시를 통한 체계적 지원
- 홍보전문성 및 실무능력 강화를 통해 공직자 홍보역량 제고
  - 고위직 미디어 적응 훈련으로 정책전달 역량 제고 및 현장 대응 능력 강화
  - 각부처 일반 공무원 및 홍보담당 공무원 대상 국내외 선진 홍보기법 습득 및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 운영, 홍보 실행능력 배양
- 신문·방송·인터넷의 정책관련 보도를 실시간 모니터링·분석해 관계기관(청와대·총리실·부처·국회 등)에 제공함으로써 정책시행 전·후 여론 피드백 자료로 활용, 정책홍보 품질 제고에 기여
  - 국정현안 및 국책과제에 대한 보도흐름과 쟁점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범부처 홍보를 위한 상황분석 자료로 활용
  - 국가위기와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상황분석과 전파, 다각적인 여론분석을 통해 정부의 기민한 위기관리 및 대응체제 지원
  - 분석자료관리시스템(ndata.pr.kr) 개발·구축(2009년)에 이어 지난 10년간 약 14,000여건 정책보도 분석자료 입력 완료, 시계열 분석 등 분석자료 활용 가치 제고

## □ 주요 성과

- 각 부처 핵심 국정과제·긴급 사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컨설팅 및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방향 설정·실행 프로그램 등에 활용토록 지원, 정책 인지도 확산 및 추진력 확보에 기여
  - 글로벌 에티켓, 저출산 대책, 녹색생활 실천, 정부 뉴미디어 홍보방안 등 컨설팅 지원(총 74건)
  - 국격 제고, 저출산 대책, 공정사회 등 범정부 핵심 과제 및 각 부처 주요 과제에 대한 여론조사 병행 지원(총 9건)
- 차별화된 커리큘럼 구성·운영으로 실질적 교육을 통한 공직자 홍보역량 강화 및 홍보 전문성 제고
  - 기본역량과정(홍보경험 無)과 전문화과정(홍보경험 有)으로 이원화
    - \* 홍보기획, 뉴미디어, 콘텐츠제작, 소통역량 등 전문화과정 세분화
  - 민간·해외 case-study, 실습, 토론의 소수정예 세미나형 진행 및 현장 방문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폰·트위터·페이스북 등 뉴미디어 관련 교육에 관심도 집중으로 “뉴미디어 특별과정” 추가 실시(7월,11월/2회)
    - \* 2010년 총8회 개최 : 기본 2회, 전문화 4회, 뉴미디어 2회/ 총232명 수료
    - \* 2010년 교육 운영결과 만족도 평균 87.9점, 전년 대비 2.2% 향상('08년 75.1점 → '09년 86점 → '10년 87.9점)
- 미디어 접점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미디어 적응 훈련 실시
  - 정책 결정자의 효율적인 의사 전달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소통을 확대
  -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정책의 목적과 배경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역량 제고
    - \* 장차관 대상: 11회/대변인 대상: 28회, 56명/국·과장대상: 12회, 47명

-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정책홍보 관심도 제고
  - 홍보·정책 부서간 공조 모범사례 발굴, 홍보 노하우벤치마킹 유도
    - \* 연 2회 개최 : 상반기 7.16(총리주재), 하반기 12.16(총리주재)
- 연간 1500여건 이상의 정책보도 분석자료를 정기적으로 부처에 제공, 정책홍보 핵심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
  - 실시간 모니터링을 토대로 △정책보도종합(월 100건 이상) △TV시사프로 월 50여건 △주간 정책보도 분석 등 제공
- 국정현안 및 국정과제 관련 보도 및 여론 분석자료 제공
  - 현안분석(월 15건 이상), 주간 주요정책 보도 분석(주1회), 대통령 관련 언론 제언(주1회) 등 국정현안에 대한 언론보도와 전문가 제언 중심 정리

### <2010 주요 현안분석 현황>

△신년 국정연설 및 기획특집 △세종시 발전방안 △일자리 창출 △4대강 사업 △교육개혁 △천안함 침몰 △사회양극화 △부동산 활성화 방안 △중편 기본계획안 발표 △친서민 정책 △8·29 부동산대책 △공정한 사회 △서울 G20정상회의 △UAE 파병 △북 연평도포격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구제역 등

- 신속한 상황분석, 정부의 기민한 위기관리 및 대응체제 지원
  - △천안함 침몰(3.27~4.10, 5.20~5.28) △G20정상회의(11.8~11.12) △북 연평도 포격(11.23~12.3)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12.6~12.10) △구제역(12.13~) 등 관련 1주일~한 달여간의 언론 및 여론상황 일일 2회 이상 보고
  - 해당부처에 주요기사 SMS 총 1,396건
- 지역 정책여론 수렴 다각화 추진(2010년 2월~)
  -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4개 지역 TV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외부모니터 제도 운영
- 분석자료관리시스템(ndata.pr.kr) 과거 10년간 자료 DB화

## □ 잘된 점

- 고객맞춤형 민간컨설팅 지원을 통한 정책홍보 품질 제고
  - 각 부처 수요에 기반, 정책별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 컨설팅 지원
  -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적시·적정 컨설팅 수행, 정책홍보업무(홍보계획 수립, 메시지 개발, 실행 프로그램 등)에 실질적 활용
- 미디어 노출 점점에 따른 특화된 맞춤형 교육 운영
  - 장·차관 과정(대담), 대변인 과정(브리핑), 국·과장 과정(토론 등)
  - 방송 출연과정에서 국민과의 접촉이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 Case study, Role playing, 정책홍보 시뮬레이션 등 가상모의 연습을 통한 실천 응용력 교육
  - 최신 홍보 트렌드의 민간 홍보 우수 case-study를 정책홍보에 반영,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
  - PR전문회사 등 현장방문 교육 및 홍보 네트워크 강화 지원
- 국가행사 및 위기상황 발생시 '여론상황반' 주도적 역할 수행
  - G20정상회의 기간 국내언론 및 인터넷 여론 모니터링 지원
    - \* 주요실적: △신문·방송 종합 3건 △TV시사 30건 △온라인 여론 10건 등
  - '천안함 침몰' 관련 국내언론 및 인터넷 여론 모니터링 지원
    - \* 주요실적: △신문·방송 종합 15건 △TV시사 63건 △온라인 상황 38건 등
  - '북 연평도 포격' 관련 국내언론 및 인터넷 여론 모니터링 지원
    - \* 주요실적: △신문·방송 종합 10건 △TV시사 9건 △온라인 상황 20건 등
- 지역 정책여론 수렴 사업 실행
  - 2010년 신규사업 차질 없이 실행(2월 시작)
  - 4개 지역 시범 실시로 당초 계획인 지역별 '월 20건' 보다 많은 평균 '월 25건' 이상 모니터링으로 목표 초과 달성

- 분석업무 전문성, 이슈·위기관리 역량 제고 위한 학습·연구
  - 분석과 내부 '커뮤니케이션 연구회' 발족(2010년~, 월 2회 학습),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위기·이슈관리' 강연 등)
    - \* 주요실적 : 연구회 총 10회 학습,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 3회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내실 있는 컨설팅 운영을 위해 중·장기(25일, 40일 과제) 위주의 지속적·단계적 컨설팅으로의 전환 필요
  - \* '09년·'10년 만족도 조사 결과, 단계·지속적 컨설팅 필요 의견 최다
- 정책보도 분석자료 DB 활용방안 확대 검토
  - 주요 정책이슈의 시계열적 분석자료를 각 부처에서 주요 홍보 이슈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범위 확대방안 검토 필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e-브리핑 서비스 영역을 기자와 공무원에서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으로 확대, 정책에 대한 알권리 확대와 직접 홍보의 장 마련
  - 국민이 인터넷·모바일·SNS 환경에서 정부브리핑을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 홈페이지 구축 및 모바일 홈페이지 개발, 트위터·페이스북 계정 운영 등 정책 홍보에 충실함
- 정부 브리핑 인터넷 동영상 중계, 실시간 속기록 제공, 브리핑 시스템 확장 등을 통하여 정부 발표지원 역할 수행
  - 40개 부처의 대언론 브리핑을 지원하여 언론인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취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e-브리핑을 통한 △브리핑 인터넷 생중계 △VOD 서비스 △속기록 서비스 등은 기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
  -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기관에 취재지원장비를 설치하여 e-브리핑시스템으로 통합(14개소→19개소)

□ 주요 성과

- e-브리핑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 개설, 개인 정보 보호기능 강화 등으로 시스템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만족도 향상
  - 기자 및 각 부처 홍보관계자들의 이용자가 현재 7,027명(공무원 4,657명, 기자 2,370명)으로 금년도에 신규회원 925명 증가
  - e-브리핑 이용 언론 기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79.3%로 대체로 높은 수준 유지

- e-브리핑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운영을 통하여 SNS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 트위터(briefing\_kr) 팔로워 1300명, 페이스북 정부브리핑 홈페이지(ebriefing) 좋아요 추천 569명 기록
- e-브리핑시스템 활용 각 부처 브리핑 지원
  - 40개 부처 4,910회 브리핑 지원(09년과 대비 994건 증가)
  - 동영상 및 속기록 서비스 제공, 취재보도활동의 편의 제공 (2,691건)
-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e-브리핑시스템 보급 확대
  -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농촌진흥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에 e-브리핑시스템을 설치
  - 과천시 2개의 합동브리핑실을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로 각각 이관, 브리핑실 운영을 합리화

□ 잘된 점

- 뉴미디어를 활용한 e-브리핑 대국민 서비스 개발
  - 기자와 공무원에게만 서비스하던 e-브리핑을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모바일 페이지 개설하였으며 트위터·페이스북에 e-브리핑 서비스를 시작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대국민 서비스로 개발한 e-브리핑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내용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모바일·SNS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및 관리 필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온라인 환경에 맞는 정책 홍보 추진
  - 기존 홈페이지 등에서 진행해왔던 일방향적 정책홍보방식을 극복, 웹 2.0 시대 뉴미디어 환경 및 블로그 공간의 특성에 조응하는 '쌍방향 소통' 진행
- 소속 및 공공기관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통합·협력홍보 정립
- SNS(소셜네트워크) 시대에 걸 맞는 뉴미디어의 적극 활용

□ 주요 성과

- 2010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공로상' 수상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블로그산업협회가 주관하는 '2010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공로상' 수상
  - "다양한 콘텐츠 생산을 통해 국민들과의 활발한 소통능력을 보여주었다."는 평을 받음
- 정책 소식 및 현장 취재 실시간 업데이트
  - 블로그 담당자 및 대학생기자단을 통한 콘텐츠 생산
  - 웹툰 제작을 통해 우리부 정책정보를 재미있고 친근하게 홍보
- 문화·체육·관광 각 분야별 전문 필진을 통해 다양한 시각의 콘텐츠 게재

□ 잘된 점

- 우리부 SNS(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과의 연계를 통한 콘텐츠 확산 및 이벤트 진행
- 우리부 이슈와 관련한 동영상 제작을 통한 효과적인 정책 홍보
- 네티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 진행

- 블로그 1주년 및 방문자 돌파 100만 돌파를 기념하여 방문자 대상으로 이벤트 진행
  - ※ 2010년 6~7월, 총 554명 이벤트 참여, 블로그 방문자 수 및 댓글 수 증가
- 문화·체육·관광 관련 만나고 싶은 인물들을 묻는 대국민 댓글 '릴레이 문화 데이트' 캠페인 진행
  - ※ 2010년 12월 1~15일, 총 437명 참여, 블로그 방문자 수 및 댓글 수 증가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문화·체육·관광 관련 전문 필진 추가 확보
  - 각 분야별 전문 필진을 추가로 확보하여 양질의 콘텐츠 확산
  - 웹툰의 독자 호응도가 높은 것을 고려, 웹툰 기획 추가 계획
- 주/월간 단위의 정책 이슈 기획
  - 주간/월간 단위로 우리부 정책 이슈에 대한 메인 콘텐츠 제작
  - 각 담당 실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
- 문화부 자체평가위원회('11.1.26)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대표블로그의 경우 △2010 대한민국 블로그 어워드 '공로상' 수상 △블로그 방문자 대상 참여 및 소통 이벤트(1주년 기념, 100만 돌파 기념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등) 연계 등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 2010년도 정부업무 평가 세부시행계획(자체평가 매뉴얼)에 따른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미흡 문제와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 등급기준(제43차 정평위 심의·확정, '08.12.19)에 따라 평가결과의 상대등급화를 고려하여 등급을 매긴 결과 다소미흡으로 평가되었음.
- 이에 대해 홍보분과 김희진 위원님께서 1차적으로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도록 해야겠지만, 불확실하고 유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정책환경에서 상반기에는 목표치를 조정하고 합의한 후에 하반기에는 목표치 달성도만 확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음.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웹 2.0 기반의 소셜미디어 확산 및 스마트폰 확산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한 정책 홍보를 위해 정책블로그 신규 채널 확보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운영, 네티즌 참여형 이벤트 등으로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친근감 확대
  - '찾아가는 홍보' 실천을 위해 정부대표블로그 '정책공감' 야후 블로그 개설(9월), 트위터(4월)·페이스북(12월) 계정 운영, 소셜 뉴스서비스 '위키텐트리' 운영(7월), 온라인 이벤트 진행(5회) 등
  - 다양한 온라인 프로모션을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써 블로그 이용자들의 흥미 유발,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함
- TV,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정부광고 시행, 국가주요시책 및 국정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정책정보 소통의 활성화
  - 국정 철학을 반영한 '더 큰 대한민국' TV캠페인 전개(연중)
  - '4대강 살리기', 'G20'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 활용매체 다변화, 광고공모전 등 소통 채널을 확산하여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지하철, 극장 등 다양한 생활 밀접매체와 종교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등 민간 소통채널을 확산하여, 정부 광고의 채널을 다변화
  - 'G20 영 앰배서더', '대학생 광고 공모전' 개최를 통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제고

## □ 주요 성과

- '정책공감' 정책블로그의 안정적인 운영 및 우수 콘텐츠 확산
  - 다음, 네이버 '정책공감'에 이어 야후 블로그 신설(9월)
    - 블로그 순위 : 다음부 블로거 241,614명 중 랭킹 196위(상위 0.08%), 사회채널 랭킹 6위('10.12.28. 현재)
    - 정부부처 블로그 중 최초 1,000만명 돌파('10.11.3.)
-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 정책공감 블로그의 콘텐츠를 트위터 등 SNS 매체를 통해 홍보
  - 정책공감 트위터 개설('10.4월~, 팔로어 2,463명, 트윗 534개) 및 페이스북('10.12월) 개설
  - 소셜 뉴스 서비스 '위키텐트리'에 정책공감 계정 운영('10.7월)으로 네티즌과 소통 강화
    - 위키텐트리 최다 리트윗(RT) 100대 뉴스 중 58위 선정(트위터 노출 310,403회)
    - 우수 활동실적으로 위키텐트리 최고등급 기자로 활동(OPM : One Person Media)
- 외부 필진 활용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소통 강화
  - 12인의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블로거 in 공감' 프로그램 운영('10.8월~)
- 국정 철학을 반영한 「더 큰 대한민국」 연중 캠페인을 전개, '더 큰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부여하고, 성숙한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역량 결집 및 동참분위기 조성
  - 더 큰 대한민국(3~5월), 사회통합(5~7월), G20 정상회의(8~9월), 공정사회(11~12월) 등 연중 캠페인 4편 시행
  - 주 매체인 TV 외에 라디오, 지하철, 인터넷(온라인 프로모션 병행)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한국정책방송, 국군방송 등 정부 보유 케이블TV 및 전광판 정부광고, 우리 부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정책공감 블로그, 공감 코리아) 병행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

- 주요 국정사업, 국제행사에 대한 대중매체 광고를 시행,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정책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와 연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동 사업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와의 공조 하에, TV 및 라디오 캠페인, 심볼 및 슬로건 공모전, 무가지·생활정보지 광고 시행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G20 영 앰배서더'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참여도 제고
- 활용매체 다변화 및 참여형 광고이벤트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
  - 종교방송, 위성방송, 네이버, 다음, 판도라TV, 곰TV 등 민간 소통채널을 확산하여, 정부 광고의 채널을 다변화
  - 다양한 서민생활 밀접매체(지하철, 버스, 극장, 무가지, 생활정보지, 전광판 등)를 활용한 광고 시행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기부·나눔 문화, 국격 높이기 4대 실천운동을 주제로 TV스토리보드·인쇄광고·UCC 등 3개 부문 '대학생 광고 공모전' 개최 및 전시를 통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신한 정책광고 아이디어 발굴

#### □ 잘된 점

- 온라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 새로운 소셜미디어 운영 등 매체를 다변화
  - 트위터, 페이스북, 위키트리 등 새로운 소셜 미디어 매체 적극 도입
- 네티즌의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과 생활공감형 우수 콘텐츠 전파 및 네티즌의 방문 적극 유도
  - 생활 공감형 우수 콘텐츠를 발굴, 전체 포스팅(2,258건) 중 461건(20.4%)이 다음뷰 베스트(Daum 블로그 뉴스)에 등재
  - 블로그 개설('08.9월~) 2년 2개월만에 정부부처 블로그 중 최

- 초로 1,000만명 돌파('10.11.3., 일평균 12,000여명 방문)
  - 네티즌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 상시 추진, 블로그 인지도 및 정책 홍보 효과 제고('10년 정책공감 이벤트 5회 진행)
- 대중매체를 활용한 「더 큰 대한민국」 연중 캠페인 지속 시행 및 주요 국정사업, 국제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대중매체 광고를 시행,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정책 이해도 제고 및 공감대 확산
  - 국정 철학을 반영한 '더 큰 대한민국' TV캠페인 지속 전개를 통하여 성숙한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 역량 결집
  - '4대강 살리기', 'G20' 등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
-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 광고 및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주요 정책정보의 효과적 전달 및 대국민 공감대 확보
  - 지하철, 극장 등 다양한 생활 밀접매체와 종교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등 소통채널을 확산하여, 정부 광고의 채널 다변화
  - 'G20 영 앰배서더' 및 '대학생 광고 공모전' 을 통하여 국가 정책에 대한 젊은 세대의 관심을 제고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장기적 관점의 기획홍보 기능 강화 및 부처간 연계를 통한 일관된 메시지 전달 필요
-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홍보기법의 지속 개발이 필요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정책현안에 대한 정책 간행물 적시 발간 및 효율적 배포로 오프라인 홍보수단의 효과 제고
  -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논리 개발 및 간행물 기획·발간
- 사전에 충분히 예상되는 주요 이슈나 제기된 정책사안 외에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이슈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등 능동적 대처
-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물 발행을 통해 국민의 정책 이해도 제고
  - 위클리 공감, 카툰 공감, 손끝으로 읽는 국정, 리플렛, 화보집 등 정기·수시 간행물 발행

## □ 주요 성과

- 한정된 정책간행물 발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지속 추진으로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및 확산
  - 정기간행물 발간 : 1,840,000부
    - 정책정보지 “위클리 공감” 1,470,000부 발행 : 주간, 3만부
    - 만화정책지 “카툰 공감” 360,000부 발행 : 월간, 3만부
    - 점자간행물 “손 끝으로 읽는 국정” 10,000부 발간: 월간, 1천부
  - 비정기 간행물 발간 : 911,800부
    - 서울G20 정상회의, 공정한 사회, 품격 높은 대한민국, 국정운영 성과자료집, 대통령연설문, 대통령 외교성과, 4대강 살리기, 문화정책 등 18종

- 정책정보 사각지대 및 무관심 계층을 위한 홍보 콘텐츠 개선과 발행주기 확대로 정책홍보 대상 저변확대 및 시의성 있는 홍보 추진
  - 만화정책지: 격월간→월간 3만부, 친근한 콘텐츠 젊은 주제 지향
  - 점자간행물 : 격월간 → 월간 1천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 정책홍보간행물 제작 관계자와 간담회·워크숍을 통해 전문가 의견조사 및 홍보의 효율성 제고
- 정책간행물 품질 제고 및 배포처 개선
  - 매호 지속적 정책홍보 콘텐츠 보강 및 표지 등 디자인 개선
  - 정책 수요층, 오피니언 리더, 다중이용 장소에 맞춤형 배포
- 정책 현안과 연계한 홍보메시지 및 홍보콘텐츠 개발로 효과적 홍보 추진
  - 서울G20 정상회의, 일자리 창출, 4대강 살리기, 공정한 사회, 일자리 창출, 녹색성장, 2010 대한민국 세계에 통하다 등 홍보콘텐츠 개발 및 국정 아젠다 담론 확산

## □ 잘된 점

-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디자인 개선 및 양질의 콘텐츠 생산으로 정책홍보 간행물의 가독성 제고 및 질적 향상
  - 정기적 기획회의를 통해 양질의 홍보콘텐츠 생산
  - 전문가 자문 및 평가를 기초로 디자인, 내용 품질 개선
  - 정책현안에 따른 공급·수요층의 요구에 부합한 간행물 발간
- 정기·수시 정책홍보 간행물을 통해 국정과제 집중홍보 실시
  - 위클리 공감, 리플렛 등을 통해 서울G20 정상회의 성과, 4대강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집중홍보로 대국민 인식 개선

- 정책 수요자 배려를 통한 맞춤형 정책 정보 제공으로 정책소통 채널 내실화
  - 카툰 공감 발행주기 확대(격월간→월간), 친근감 있는 콘텐츠 발굴로 만화콘텐츠를 젊은층의 눈높이에 맞춤
- 점자간행물 발간 확대로 정책 소외 계층인 시각장애인 등의 정책간행물 접촉 수혜계층 확대
  - 손끝으로 읽는 국정 발행주기 확대 : 격월간 → 월간
-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전략적 홍보콘텐츠 기획
  - 정책홍보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전문가 의견 청취
  - 주요 현안에 대한 홍보기획, 정책간행물 제작 시 반영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정책 간행물의 지속적인 품질 개선
  - 정책홍보 콘텐츠 및 디자인 등 지속 개선
- 정책홍보 대상 저변확대 및 시의성 있는 홍보 추진을 위한 간행물 발간 확대 필요
  - 정책수요층, 오피니언 리더, 다중이용 장소 등 수요층 배포확대

## 65 정책포털 콘텐츠 충실화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정책포털 콘텐츠 다양화·충실화로 정책포털 만족도 제고, 각 부처 정책정보를 실시간·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한민국 정책정보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 정책포털(www.korea.kr) 일평균 방문자수 77,629명, 일평균 페이지뷰 687,634회로 지속적인 이용자 확보('10.1~11월간 평균)
  - 정책포털 만족도 조사 결과, '09년 65.9점에서 67.3점으로 전년 대비 만족도 상승 및 목표치(67점) 초과 달성
-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급부상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정책정보 콘텐츠를 확산 시킬 수 있는 기반 구축
  - 정책포털에 게재되는 주요 정책정보에 대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의 '공유하기' 기능 추가 및 정책포털 모바일용 페이지(http://m.korea.kr) 구축
- 정책에 관심있는 국민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정책기자단 확대 운영('09년 120명 →'10년 240명)하여 국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 \* 2010년 정책기자단 작성 기사 총 965건 게재, 다음뷰 베스트 14건 성과
- 주요 국정과제(G20 정상회의) 및 주요 계기(6·25 60주년 계기 사진전 개최 등)를 활용하여 정책 홍보 콘텐츠 생산, 정책포털 게재 및 온오프라인 다각적 홍보
  - 특히 서울 G20 정상회의 기념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 강연회를 개최하여 정책포털 내 전문가 릴레이기고, 정책

포털 내 G20 정상회의 강연회 특집 페이지 (<http://g20lectures.korea.kr>) 구성, KBS 등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송(KBS 5회, TBS 14회, KTV 14회), 강연집 출판 등을 추진하여 정책홍보 콘텐츠를 다각적으로 확산

## □ 주요 성과

- 정책포털 웹사이트 운영체계 개편, 콘텐츠 충실화, 정책포털 인지도 제고 등 지속 추진으로 '대한민국 정책포털'의 안정적인 서비스 궤도 진입
  - 정책포털([www.korea.kr](http://www.korea.kr)) 회원가입수 '10.1월 419,050명에서 '10.11월 430,287명으로 2.7% 증가, 일평균 페이지뷰 '10.1월 616,279명에서 '10.11월 792,477명으로 28.6% 증가
- 국민에게 필요한 실용정보 등 국민 친화형 콘텐츠 개발로 일반 국민의 정책 이해도, 체감도 및 접근성 제고
  - 각 부처가 정책 홍보를 위해 인기 연예인 등을 홍보대사로 임명하고 있음에 착안, 정책포털 특집 기획으로 '국격 제고 부처 홍보대사 릴레이 기고' 추진
    - \* '10.5월~10월, 17개부처 총24명의 스타홍보대사가 기고에 참여(△통일부, '정준호가 아이리스 촬영하며 바꾼 생각, △환경부, 이세창과 함께 친환경 운전하기 등)
  - 정책포털 내 「글로벌 공감」 코너를 통해 해외에 주재하는 '문화홍보관' 활동 내용을 기고('10.4월~), 「문화칼럼」 필진 보강(외국인, 결혼이주여성 등)을 통한 정부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각 제공
    - \* 문화칼럼 필진(예시) : 이자스민(필리핀/결혼 이주여성), 조 맥퍼슨(미국/한식 블로그 '젠 김치' 운영자), 오니사하루카(일본/'도깨비짱'의 한국수첩' 편집자), 로저 세퍼드(뉴질랜드/백두대단 중주 외국인)
  - 일자리 정보, 공무원 합격수기 등 국민 관심 실용정보 강화

- 종합적인 부처 정책정보, 시의성 있는 기획/특집 기사 추진, 정부의 실시간 대국민 메시지 전달, 깊이 있는 정책 전문정보 등을 제공하여 윈스톱 정책정보 서비스 구현
  -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운영하여('10.9.30~)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야기하는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정부의 정확한 입장과 정보를 신속히 전달
    - \* '10.9.30일~12.30일까지 총 274건의 해명자료 게재, 이 중 20%(총 55건)의 해명자료가 언론에 반영되어 기사화 된 것으로 확인
  - 「전문자료」 메뉴를 통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정책·연구 보고서, 회의·행사자료 등 전문자료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제공 등
    - \* '10년 41개 기관 494건의 전문자료 신규 등록, 출처별/주제별/유형별 종합 제공
- 민간포털과의 연계 강화로 정책포털의 콘텐츠 확산·유통
  - 5대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및 파란)과 뉴스콘텐츠 제휴 관계를 유지하여 정책정보 자동 연계, 2011나라살림·햇살론·구제역 등 정책키워드(총 52건) 생산 및 민간포털에 등록
  - 민간포털(다음, 네이트) 뉴스 서비스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 신설, 정부 입장 전달 채널 확대, 국민 친밀도 및 접근성 제고
  - 네이트 「판」에 스타홍보대사 기고문 연계
    - \* 21건이 NATE 「판」 헤드라인 노출(댓글 총 1,266건, 조회수 총 669,222회)
  - 네이트와 '온기훈훈(온라인 기부로 훈훈한 세상) 캠페인 공동추진, 기부·나눔 메시지 확산 및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 유도
    - \* 부처 이벤트시 증정하는 경품에 상응하는 금액을 당첨자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10.6월~10월간 총1,86,4360원 모금, 사랑의 열매에 전달
- 모바일 환경 대두, SNS 서비스 확산에 따라 정책포털에 SNS를 접목하여 정책정보 콘텐츠 확산·유통 채널 강화

- 정책포털 모바일용 페이지 개발 및 서비스 개시(<http://m.korea.kr>)
  - \* 정책정보, 정책기고, 보도자료 등을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제공
- 주요 정책정보에 대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와 '공유하기' 기능 추가하여 정책정보 콘텐츠 확산 및 부처별 SNS를 종합제공하는 '소셜홈'을 신설하여 각 부처 SNS 운영 현황을 실시간 제공
- 정책기자단을 통한 정책홍보 강화
  - 정책에 관심있는 국민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국민 소통 증대
    - \* 정책기자단 생산 기사 총 965건('10.1월~10.12월)
    - \* '도서관책, 소독해서 보세요 등 14건 「다음뷰」 인기글로 등록
- 주요 계기별 정책포털-오프라인 연계 행사 개최로 정책포털 콘텐츠 온·오프라인 확산,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사이트 인지도 제고
  - 6·25 60주년 계기, 「최초공개, 컬러로 보는 한국전쟁」 사진전 개최(5.4~6.30, 청와대 사랑채) 및 정책포털 콘텐츠로 활용
  - G20 정상회의 기념,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 강연회 개최(10.1~29, 광화문 광장 해치마당) 및 정책포털 콘텐츠로 활용
    -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조정래 소설가, 한비야 국제구호활동가 등 29명의 명사 초청 릴레이 강연

#### □ 잘된 점

- 부처 정책정보 종합적 제공,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 신설 등으로 오해를 야기하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정부의 입장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소통 강화에 기여

- 민간포털과 연계 강화로 정책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유통·확산할 수 있는 채널 다양화 및 효과성 제고
  - 5대포털(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및 파란)과 콘텐츠 제휴·협력 강화로 정책정보 유기적 연계, 정책 키워드 민간포털에 등록 등 정책정보의 접근성 강화
  - 네이트와 '온기훈훈(온라인 기부로 훈훈한 세상)' 캠페인 공동추진 등 정부에 대한 국민 친밀감 강화
- 스마트폰 보급, SNS 확산이라는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정책정보 확산 방안 마련
  - 주요 정책정보에 대하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공유하기' 기능 추가, 정책포털 모바일용 페이지(<http://m.korea.kr>) 구축 등
  - 정책포털에 '소셜홈' 구축하여 각부처 SNS 운영 현황 실시간 종합 등
- G20정상회의 계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 강연회를 기획하여 방송(KBS, TBS 및 KTV), 정책포털, 서적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홍보콘텐츠 확산함으로써 국가적 행사 홍보를 위한 콘텐츠의 생산 및 유통 관련 성공사례 창출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SNS 활용 등 온라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포털의 정책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특집기사·대담 기획 등 기획 홍보 콘텐츠 보완 필요
- 정책기자단을 보다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정책 메신저 및 소통의 도구로 활용 강화 필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문화정보화 정책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를 통해 문화정보화 철학 및 비전 등 장기적으로 문화정보화가 추진되어야 할 정책 방향 도출에 기여
  - 문화정보화 각 분야 전문인력 풀 구성, 전문가 인터뷰, 전문가 간담회 개최(4회), 정책 포럼 개최(1회)를 통해 문화정보화 인력과 전문가 협의를 거쳐 문화정보화 7대 분야 선정
  - 유/무선 서비스 확산, 공공문화정보 개방, 기존 문화정보 사이트의 고도화를 차년도에 대응해야 할 핵심 주제로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하여 방안 도출
- 문화정보화 실행 계획, 예산 계획 수립에서 전년도 정책연구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실행 방안 도출에 기여
  -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문화어울림터 예산계획,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등의 사업계획에 반영
- 문화정보화협의회(회원 141명)를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정보화 정책 확산과 실행에 기여
  - 정책공유토론회 및 워크숍(7회), 정책포럼(1회)을 개최하여 정책 토론, 확산, 협력의 채널로 활용

□ 주요 성과

-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 선정 및 추진을 통해 문화정보화 고도화를 위한 추진 동력의 지속적 확보

< 2010년 정책 연구 >

△문화정보사이트 종합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문화정보 모바일서비스 전략계획 수립 △문화정보화 백서 △공공문화정보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

- 문화정보화 정책연구 실적 목표치 3건 대비 연구과제 4건을 수행하여 목표 133% 달성
- 지속적인 정책 연구과제 활용을 통해 문화정보화 고도화 기반 제공

<정책연구 활용>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 안전센터 개소 기반자료 활용 △문화정보화 관련 예산확보에 활용 △국가정보화 실행계획 수립 시 활용 △문화정보화 협의회 정책토론에 참고자료로 활용

- 문화정보화협의회 및 워크숍(7회)등을 통한 전문가와의 교류 등 문화정보화 정책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협력 방안 마련

<협의체 운영 및 교류>

△문화정보화 협의회 운영(7회) △정책방향 수립 포럼 △문화나래 소그룹 연구주제 연계 간담회

□ 잘된 점

- 연구과제 계획 수립을 위해 문화정보화 분야 학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문화정보화의 직접 담당자와 협의를 거치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에 매우 충실하였음
- 정책연구사업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산출지표인 실적건수와 활용율을 성과지표로 선정하였으며, 정책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활용율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60%에 비해 높은 80%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및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였음

- 설정한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
  - 정책 연구과제 4건(33% 초과)(문화정보 모바일 서비스 전략 계획 수립, 문화정보사이트 종합분석 및 발전방안 수립, 2010 문화정보화 백서 발간, 공공문화정보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
  - 정책 연구과제 활용율 100% (25% 초과)

**67** **깨끗한 공직사회구현을 위한 행정감사 추진**

**(1) 평가결과 종합**

**총평**

- 총 3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지표별 비중 산출) 96.5%로 목표치에 근접한 실적을 달성
  - 환수조치(573,128천원)를 통해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였음

**주요 성과**

- 종합감사 5개 기관, 특별감사 8건, 테마 감사 4건을 실시하여 573,128천원의 환수금액을 포함하여 총 17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는 등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신뢰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함

**잘된 점**

- 국정감사 등 외부기관의 문제가 제기된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김성태 의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외부 상황변화에 따라 적극 대응하였으며,
- 테마감사의 경우 언론지적, 민원제기 등에 따라 선제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부조리 요인 원천 제거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전반적으로 추진일정 등에 따른 실적을 달성하였으나 종합감사 6건중 5건 수행으로 사전 목표계획이 신중할 필요

## (1) 평가결과 종합

## □ 총평

- 추진계획 및 성과지표 설정시 관련 통계현황 및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관계기관과의 상시 업무협조 체계 유지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 분야별 전문교육 및 개방직 직위의 외부인사 채용이 일부 지연 추진되었으며, 성과지표에 따른 목표달성도가 다소 미흡함

## □ 주요 성과

- 과장급 직위까지 개방형 직위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공직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 신규직원 대상 실무 워크숍 개최 및 첨단 콘텐츠 기술에 대한 직장교육을 통해 젊은 인재들의 역량 강화 및 최신 트렌드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배양함

## □ 잘된 점

- 계획수립시 교육 통계자료 분석 등의 사전조사 및 외부전문가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며,
- 계획 추진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연계성 유지와 직원 의견 수렴 등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대부분의 과제를 추진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일부

과제의 경우 계획에 비해 지연 추진되었으며 전직원 교육 이수율은 성과목표치 달성에 미흡.

- 사전 조사를 통해 예상치 못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유연성 있게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직원 교육 이수율의 경우에는 차년도 1월말에 최종집계가 가능함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설정해야 할 것임

69 성공적 청사이전 추진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집행단계에서 추진일정에 충실하고 관계기관과의 연계성이나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성이 우수하였으며, 계획단계에서 완료 단계까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100% 목표달성을 완료

□ 주요 성과

- 성과지표로서 문화부 청사의 성공적 이전을 촉박한 기간, 한정된 사업비, 부처의 이해관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음

□ 잘된 점

-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였으며, 적극적인 과제추진으로 연내에 성과지표의 100%를 달성하였음

70 재정혁신 추진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원 투입, 재정 지원방식 개선으로 사업 추진의 효과성 제고 등 전략적 재원 배분을 통한 재정혁신 추진

□ 주요 성과

- 정책효과 및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통한 재원배분의 합리성 확보
  - 집행부진, 재정사업자율평가 미흡, 사업타당성 재검토 필요 사업 등 구조조정
  - 선택·집중 지원, 간접지원, 사후지원 등 성과 중심의 재정 지원 추진
  - ‘공모절차’를 통한 공연예술행사 지원 등, 지원과정의 투명성 제고 및 성과평가 강화

□ 잘된 점

- 민간보조금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민간보조금 관련 규정제정 및 공무원, 민간단체 임직원 교육(10회 / 818명), 자체 정비토론회(3회), 민간보조금 효율화 TF 운영,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생산성 제고

※ '11년 우리부 재정대비 민간보조금 비율을 전년대비 0.7% 축소

구 분	재정	지자체보조	민간보조	직접사업
2010년도(억원)	31,747(100%)	11,003(34.7%)	10,220(32.2%)	10,524(33.1%)
2011년도(억원)	34,557(100%)	12,041(34.8%)	10,889(31.5%)	11,627(33.7%)

- 재정사업 성과평가결과와 예산 편성과의 연계 강화
  - '11년 예산 편성시 평가결과 '미흡'등급 이하 사업 759.2억원 삭감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전반적으로 추진일정 등에 충실하였으나 신중한 목표 설정 미흡으로 목표 미달성

71 관리과제명 : 문화체육관광 법제 선진화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 집행단계에서 추진일정에 충실하고 관계기관과의 연계성이나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성이 우수하였으나, 계획단계에서 성과지표 설정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

□ 주요 성과

- 성과지표로서 규제개선 20건, 법령 정비 64건을 달성하였으며, 당초 규제개혁 과제 22건 외에 18건을 신규 발굴함

□ 잘된 점

- 계획수립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과의 연계성 및 행정여건 변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였으며, 적극적인 과제추진으로 상반기에 성과지표의 75% 수준을 달성하였음

□ 미흡한 점 및 개선·보완 사항

- 성과지표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사전분석 작업과 적극적인 추진자세가 필요하며, 타부서 과제관계자에 대한 점검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여 법령 개정작업을 독려·관리해야 할 것임

####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관리시행계획상 관리과제별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의 추가 발굴 및 지속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 반영('11.3월)</li> <li>○ 정책환경 변화에 의한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시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 조정 추진 ('11.11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평가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른 개편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평가관련 전문가 확충 등(5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평가결과 미흡과제(3개)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개선 보완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문화원 확충 및 특화사업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과제의 누락된 핵심 성과지표인 “문화원 개원” 추가 및 추진계획 관리 철저(3월~)</li> </ul> </li> <li>○ 관광레저도시 개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개발 및 목표치 적극적 설정(3월)</li> </ul> </li> <li>○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 개발(3월) 및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연중)</li> </ul> </li> </ul>